

지금 알려줄게요, 미국대학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14438)」

지금 알려줄게요, 미국대학원

© 이민아 2017

초판 1쇄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지 은 이 이민아

펴 낸 이 이정원

편집책임 선우미정

편 집 이동하

디 자 인 김정호

마 케 팅 나다연 · 이광호

경영지원 김은주 · 박소희

제 작 송세연

관 리 구범모 · 엄철용

펴 낸 곳 도서출판 들녘

등록일자 1987년 12월 12일

등록번호 10-156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98

전 화 편집 031-955-7385 마케팅 031-955-7378

팩시밀리 031-955-7393

홈페이지 www.ddd21.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luefield198

I S B N 979-11-5925-261-7(13370)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파본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꿔드립니다.

푸른들녘은 도서출판 들녘의 청년 브랜드입니다.

지금 알려줄게요, 미국대학원

저자의 말

작년 겨울, 마지막 지원서를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하며」라는 글을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기간 동안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메일에 답장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된, 유학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유학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특출하게 똑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유학 준비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처음부터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초까지만 해도 유학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고, 의지도 약하고, 목표도 불투명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장래 희망도, 전공에 대해서도,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뚜렷하지 못했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사례를 통해 아직 스스로 확신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도 얼마든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학생, 그중에서도 제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이는 후배에게 이야기하듯, 따뜻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보들만 가득한 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반적인 유학 서적과 같이 교육자 입장에서 쓴 권위주의적인 딱딱한 글이 아닌, 유학에 관심이 있는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편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학원 지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내서 도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유학에 성공한 선배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과연 유학에 대한 책을 쓸 자격이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 모습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했기에 겪게 된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책의 집필 및 제작과정과 유학 준비과정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 기시미 이치로 &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차례

저자의 말 _4

프롤로그 4학년 2학기에 비로소 유학을 결심하다 _14

PART I 미국 박사과정 진학,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

학부 졸업 후 바로 박사과정을 지원하자 _19

석사과정 vs. 박사과정 |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왜 미국인가? | 연구에 뜻이 있다면 학부 졸업 후 바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도전하자

아이비리그, MIT, 스탠퍼드, 버클리...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_25

아이비리그가 궁금하다 | 아이비리그란 무조건 좋은 학교일까? |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내가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대에게 _34

아직 몰라도 괜찮다 | 나는 연구 혹은 유학에 적합한 사람인가? |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유학 정보, 어떻게 구할까? _39

정보를 얻는 흔한 방법 | 지인 정보와 검색 정보의 한계 | 유학 준비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돈 때문에 미국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_43

장학금과 펀딩을 적극 활용하자 | 장학금이란? | 장학금 지원 시기 | 펀딩이란? | 펀딩 유무는 언제 결정되는가?

PART II **생각보다 단순한** **지원 과정 파악하기**

미국 대학원 지원 과정_53

대부분의 지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 지원 결과 발표와 입학 시기 |
영어권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 미국 대학원의 입학사정 과정

유학에 대한 정교한 청사진을 그려라_58

한정된 지면에 다양한 장점을 드러내야 한다 | 전체 그림을 파악하라

1년 만에 연구·영어·서류 세 마리 토끼를 잡자_64

가고 싶은 학교들의 지원 마감일과 선발 방식을 파악하자 | 준비해야 할 것
들을 파악하자 | 타임라인을 그려라 | 학점과 영어와 연구

PART III **마음먹고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Chapter 1 학교 조사

지원할 학교는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_77

학교 조사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 학교 조사를 할 때 무엇을 파악해야
하나? | 학교 조사의 중요성

학교 선택의 기준_84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다 | 어떤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 필요
한 정보를 찾는 방법 | 전문가의 도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학교 및 교수의 홈페이지를 공략하라_91

학교 홈페이지 뜯어보기 | 교수 홈페이지 뜯어보기

관심 분야의 학술지, 논문, 최근 연구를 파악하라_97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초록을 읽어라 |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를 파악하자 | 교수의 논문 실적을 살펴보자

대학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_101

대학 순위를 맹신하지 말자 | 대학의 평판과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

지원하는 학교를 10~15개 내외로 제한하라_10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까? | 지원하는 학교의 수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라

Chapter 2 연구

논문을 쓰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업, 프로젝트, 연구에 임하자_115

목표 의식을 장전하라 | 논문을 쓰자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반드시 논문이 필요할까?_121

논문은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하나'가 아니다 | 학부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반드시 논문 실적이나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할까? | 학부과정을 마치고 바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 논문이 있는 학생이 많을까? | 논문을 완성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 그래서 도대체 논문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

논문이 거절되더라도 말로 잘 풀어내면 승산이 있다_128

논문이 아니어도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필할 수 있다 | 논문이 거절되더라도 괜찮다

무엇을 하고 싶는지 잘 모르겠다면, 학부 연구생_133

왜 학부 연구생인가? | 학부 연구생의 장점 | 학부 연구생의 단점 |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 교수와 면담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자 | 해보고 결정하라

국제학회는 유학 생활을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다_142

국제학회를 통해 얻게 된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 국제학회에 도전하라 | 국제학회 등록하기 | 국제학회 참석하기 | 국제학회 즐기기

Chapter 3 영어

영어 성적이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_151

영어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 영어 성적이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때

TOEFL과 GRE 성적은 늦어도 지원 3개월 전까지 확보하라_159

최대한 빠르게 공부하는 어떻게? | 학원을 다녀야 할까? | GRE의 기초가 되어주는 TOEFL

GRE는 TOEFL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단어 3,000개만 더 외우면 된다_165

GRE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어 영역이다 | 인간의 기억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단어 | 나의 눈을 의심케 하는 독해

Chapter 4 이력서

Step1 파악하기 한두 장의 문서로 나를 세일즈하라_173

이력서에 무엇을 얼마나 쓸까? | 입학사정관들은 이력서에서 무엇을 볼까? | 좋은 이력서를 쓰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Step2 작성하기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쓰기_178

이력서는 어떻게 구성하나? | 기본 자료 준비하기 | 작성하기

Step3 완성하기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라_191

일관성을 부여하라 | 스타일을 덧입혀라 | 센스를 발휘하라

Chapter 5 학업계획서

Step1 파악하기 학업계획서가 판도를 뒤집는다_201

학업계획서가 뭐지? | 학업계획서 ≠ 자기소개서 | 학업계획서는 기회다

Step2 준비하기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힘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온다_207

“나쁘지 않다”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 나는 왜 박사과정을 밟고
자 하는가? | 진지하게 되묻고 솔직하게 대답하자

Step3 작성하기 학업계획서, 이렇게 써라_211

주제 선정 | 개요 잡기 | 작성하기

Step4 발전시키기 현재 학업계획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_218

학업계획서 작성 초기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 공부를 하며 작성하자
| 고민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믿자 | 합격생의 학업계획서와 교수
의 연구계획서를 참고하자

Step5 완성하기 다양한 사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 번 수정하라_223

100번 이상의 퇴고 |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 | 어떤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
할까?

Chapter 6 추천서

추천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다_233

추천서는 지원자의 서류 중 가장 먼저 읽힌다 | 추천서가 중요한 네 가지 이
유 | 좋은 추천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추천인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빠르게 부탁해야 한다_238

최고의 추천인을 찾아라 | 추천서의 퀄리티는 나와 추천인 간의 관계의 깊이
와 정비례한다 | 추천인을 정했다면 신속하게 부탁하라

연구, 학업, 성격 등 다양한 장점을 강조하는 추천서를 받아라_243

세 명의 추천인이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 나의 추천서 구성 전략 | 연구, 학업, 성격의 특징점을 부각하라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싶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탁하라!_250

추천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청하라 | 연락을 드릴 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프레이밍하라 | 찾아보기 |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 | 주기적으로 리마인드시켜 드리기

추천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_257

추천인이 추천서의 초안을 요구할 때 | 추천서 작성 방법 |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Chapter 7 장학금

장학금은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합격 확률을 높여주는 지표다_267

장학금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장학금의 장점

국내 장학재단의 선발 개요_272

대표적인 국내 장학재단의 선발 개요 | 장학금의 종류와 특징

장학금 지원을 박사과정 지원의 예행연습이라 생각하라_278

장학금 지원과 박사과정 지원은 비슷하다 |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하라 | 장학금 지원으로 생산성과 능력을 높여라

Chapter 8 콘택트 메일

보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_285

콘택트 메일이란 무엇인가? |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대표적인 이유와 장점 | 콘택트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 콘택트 메일은 가성비가 뛰어난 자기 마케팅 수단이다 |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시기

메일은 반드시 짧게 두괄식으로 작성한다_293

상대방을 배려한 글쓰기가 중요하다 | 콘택트 메일도 편지글이다

Chapter 9 인터뷰

말만 들어도 두려운 인터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_307

인터뷰 요청 메일 |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지원하는 모든 학교와 인터뷰를 해야 할까? | 인터뷰의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 인간성, 성격, 느낌을 볼 수도 있다_314

합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하는 인터뷰도 있다 | 질의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뷰도 있다 | 평가가 목적인 인터뷰도 있다

주요 질문에 대답하고, 반대로 질문하는 연습도 하자_318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질문 |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을까?
| 교수에게 할 질문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감사의 말_325

부록_333

유학 준비 타임라인 | 나의 이력서 | 나의 학업계획서

4학년 2학기에 비로소 유학을 결심하다

이 책에서 내가 연구를 시작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 때부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한다. 나는 1년 동안 유학을 준비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총 16개의 대학에 박사과정 원서를 넣기까지의 시간이다. 1년 전 나는 내가 봐도 참 답답한 상태에 있었다.

- 대학원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 중
- 미국 유학에 대해 아는 것 전무
- 연구 경험 전무

이런 내가 대학원 지원을 결정하고, 유학을 결심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기말고사 기간에 질문하러 갔다가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해 듣게 된 것, 호기심에 수강한 수업이 인연이 되어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게 된 것, 그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과분한 칭찬을 받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내가 만약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시간을 내서 질문하러 가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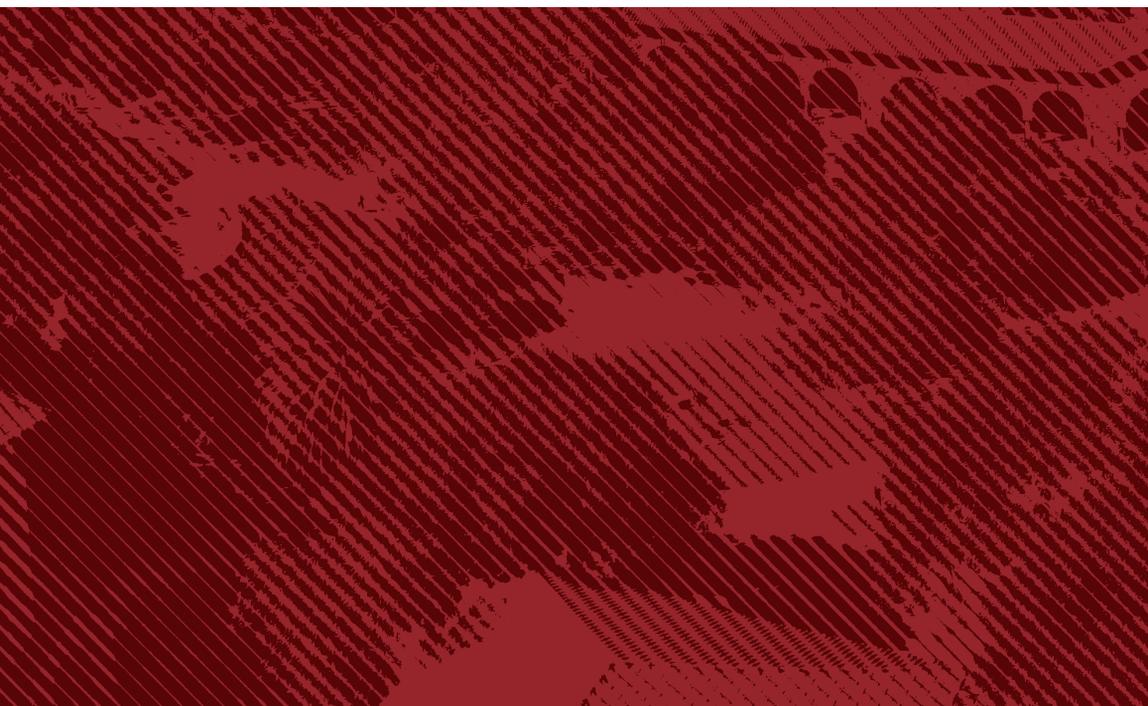
았다면, 호기심에 그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정확하게 그 시기에 칭찬과 격려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연구 경험도 없었을 것이며, 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진 상태로 아직까지 이곳 저곳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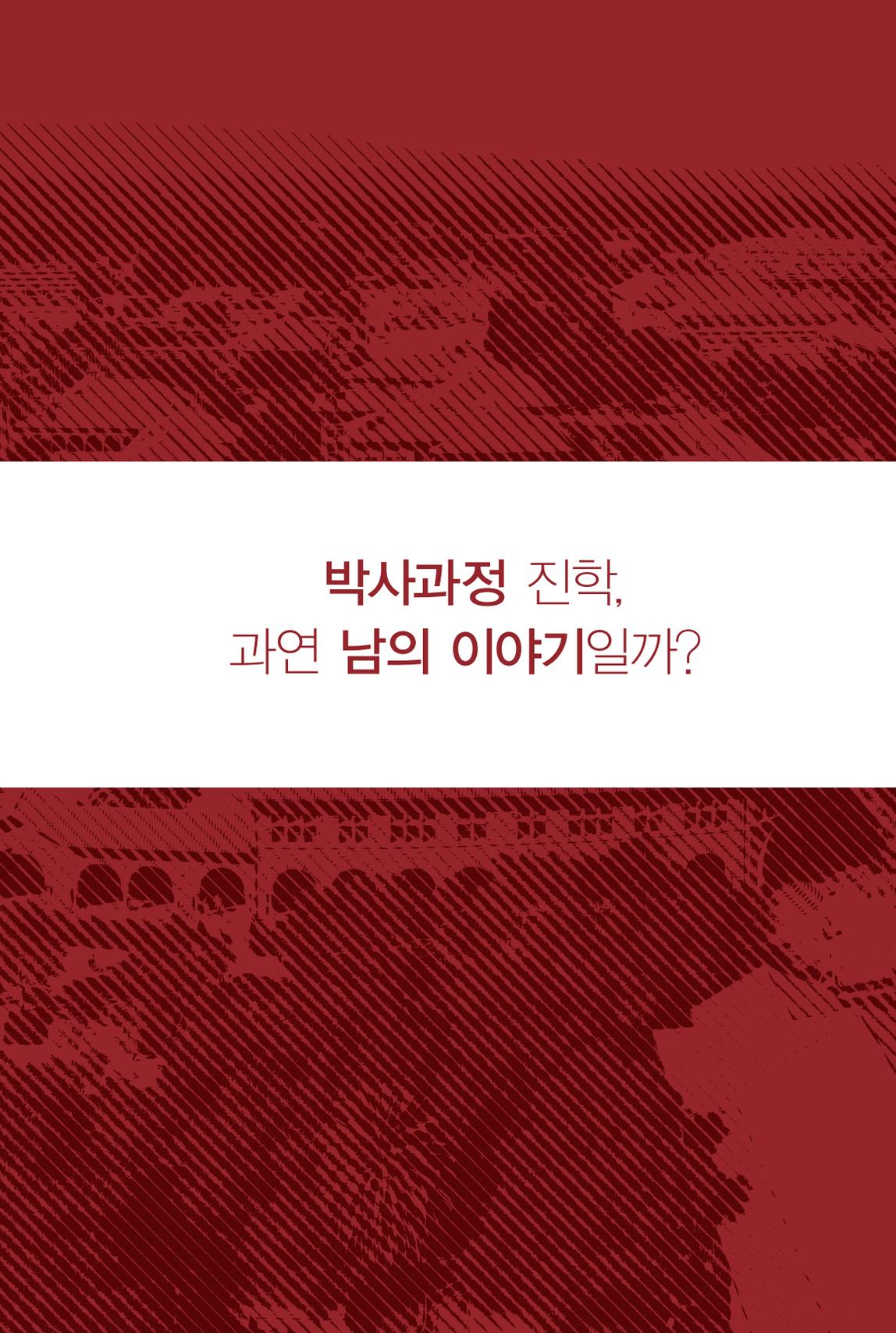
나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나처럼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괜찮다,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아직 유학에 대해 확신이 없고 잘 모르더라도,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해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주고 싶었다.

내게는 유학 준비 과정이 우연의 연속이 만들어낸 뜻밖의 행운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책이 뜻밖의 행운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앞으로 대학 생활 또는 유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글을 썼다.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를 응원한다.



PART I





박사과정 진학,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 Paulo Coelho, 『The Alchemist』

학부 졸업 후 바로 박사과정을 지원하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박사과정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박사과정을 지원하려면 당연히 석사학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당연히 국내 또는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학원은 다르다. 대부분의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를 학부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다.

석사과정 vs. 박사과정

두 과정이 지향하는 바는 매우 다르다. 단순화해 설명하자면, 석사과

정(Master's Degree)은 주로 산업체로 가기 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자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수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다양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심화된 전공 지식을 쌓는다. 분야에 따라 순수학문 석사학위(Academic Master's)와 전문 석사학위(Professional Master's)로 나뉘기도 한다.*

박사과정(Doctoral Degree)의 경우 실무보다는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진로도 학계나 연구소에서 일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지원한다. 수료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서 논문을 쓰며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데 주력한다.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석박사 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사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별도로 석사과정을 거쳐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도록 과정이 통합된 것이다. 이 경우 들어야 하는 학점 수가 줄어들고, 석사 논문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므로 1년 정도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할 경우 석사학위만 받고 졸업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 대학원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도 전반적인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 미국의 대학원 교육 (http://www.fulbright.or.kr/kr/usec/adm_graduate.php)

박사과정 지원에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캐나다도 석사학위를 요구하지만, 학사학위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많이 있다. 즉, 각 국가별, 학교별, 학과별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학교의 지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왜 미국인가?

그렇다면 왜 미국 박사과정인가? 우선 미국은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학문의 중심지다. 저명한 석학의 지도하에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연구자들과 수평적인 분위기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희소성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학위는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연구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비영어권 국가 대학원 진학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되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표의 내용 모두 학교에 따라 혹은 연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가장 좋다는 식의 논지를 펼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유사한 점이 많겠지만,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좋다는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당연히 개인차가 있고, 둘 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

* 국내 진학 vs. 해외 진학 (출처: 2016년 AKUSSA 유학설명회 자료집(김지석))

구분	국내 대학원	미국 대학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이나 안정적으로 졸업 가능 • 과제보고서 작성, 연구실 내 행정일 등 여러 가지 업무 부담 • 유행을 따라가는 연구 분위기 (원하는 분야 선택이 힘들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나 실력 없으면 졸업 불가 • 본인 연구 이외에 다른 업무에서 자유로운 편 • 유행을 좇지 않고 희소성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진행 • 생각보다 저명한 석학 밑에서 공부하기 어려움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환경(문화, 음식 등)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비슷한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권 출신 연구자와 교류 • 한국인처럼 끈끈한 관계 맺기 어려움 • 미혼의 경우 결혼 문제 • 폐쇄적인 한국 유학인 사회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취업: 현지 체류 경험이 부족하므로 어려울 수 있음 • 국내 취업: 유학 준비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취업준비에 쏟아 더 탄탄한 기반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취업: 상대적으로 교수 임용 기회 많은 편 • 국내 취업: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대비 가점은 없으나 인정해주는 분위기
지출 및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및 생활비(한 학기에 약 1천만 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및 생활비(1년에 약 1억 원 이내) • 자비로 유학 시 큰 재정적 부담이 있으나 연구 조교 및 수업 조교를 통한 펀딩, 장학금 등의 혜택을 통해 등록금 면제 및 월급으로 생활 가능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가 진로를 챙겨주던 풍토가 사라지는 중 • 자기 분야의 연구 인맥 상대적으로 풍부 • 최근 학계에서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포닥 연구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 시 개인의 역량/노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도적인 연구 자세를 익힐 수 있음 • 영어로 학위논문 발표까지 마쳐야 하므로 배우는 동안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음 • 박사과정 중에 잘리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국내 대학원 vs. 미국 대학원

문이다. 다만 앞으로의 내용이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기 바란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지원한다. 미국 학생이라도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 이유는 (유학생들의 경우 슬프게도 박사과정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 경험을 쌓아 보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함이다. 연구가 주목적이 되는 박사과정의 경우, 지원자의 연구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 사람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성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학부만 졸업했을 경우 연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지 않아 박사과정에 지원하기 힘들 뿐더러 합격 확률도 낮다. 따라서 학석사 통합과정, 학부연구생, 연구보조원, 전문연구요원, 연구소 인턴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석사과정을 별도로 밟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본인이 과연 연구에 맞는 사람인지, 맞는다면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에 뜻이 있다면 학부 졸업 후 바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도전하자

연구에 뜻이 (심지어 연구 경험까지) 있다면 학부 졸업 후 바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하자. 원하는 학교의 박사과정에 곧장 지원할 수 없다면, 순위가 좀 낮은 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높은 순위 학교의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 주변에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의 원하는 학교에서 다시 석사과정을 밟은 사람도 있었다. 유학을 결

심했다면 기회는 다양하다. 두 프로그램의 차이를 알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

이 책에서는 주로 박사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석사과정 지원에도 적용된다. 오히려 석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이 책의 조언에 따라 준비한다면 합격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석사과정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원자가 될 테니까! 따라서 남들보다 앞서 간다는 마음으로 이 책의 조언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자.

아이비리그, MIT, 스탠퍼드, 버클리…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아이비리그! 이름만 들어도 경외심이 드는 대단한 학교들 아닌가? 내 계도 마찬가지로였다.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아이비리그의 이미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수재들의 전당’일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이비리그를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아이비리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아이비리그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이비리그가 궁금하다

MIT, 스탠퍼드, 버클리 대학은 아이비리그일까? 사실 나도 아이비리그가 어떤 학교를 가리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막연하게 '아이비리그는 대단한 대학들'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 결과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내가 가졌던 아이비리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아이비리그(Ivy League)^{*}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 사립대학 또는 이들 8개 대학으로 구성된 스포츠연맹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이비리그를 구성하는 대학들은 학문적 수준, 교수진과 연구진, 시설 및 장학금제도가 우수하고, 졸업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8개의 대학은 다음과 같다.

1.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1764년에 설립되었다. 미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세 번째,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한다. 유명한 동문으로 아시아인 최초 아이비리그의 총장 및 세계은행 총재 김용,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 호러스 맨, 전 국무장관 존 헤이 등이 있다.
2.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175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며, 국제 정치의 핵심인 UN본부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

* 두산백과 '아이비리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526&cid=40942&categoryId=40507>)

인접해 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기업인이자 투자가 워렌 버핏 등이 컬럼비아 대학 출신이다.

3.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미국 뉴욕 주 이사카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1865년에 설립되었다. 아이비리그 중 학부생의 수가 가장 많으며, 공학 계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문으로는 『대지』를 쓴 노벨상 수상작가 펄 S. 벅, 여성 최초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한 바버라 매클린톡 등이 있다.

4.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 미국 뉴햄프셔 주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1769년에 설립되었다. 실제로는 종합대학(University)이지만 전통적으로 학부 교육을 중요시 해 칼리지(College)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교환학생 및 외국어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명한 동문으로 20세기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전 부통령 넬슨 록펠러 등이 있다.

5.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1636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등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대통령, 연방 대법원 대법관, 로즈 장학생 등을 배출했다.

6.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1740년 설립되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대학 중 하나이며,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 엘론 머스크 등을 동문으로 두고 있다.

7.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미국 뉴저지 주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1746년에 설립되었다. 전통적으로 학부 교육과 학문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일하게 의학, 법학, 경영대학원이 모두 없다. 유명한 동문으로는 노벨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인물 존 포브스 내쉬,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 등이 있다.

8. **예일 대학(Yale University)**: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1701년 설립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 중 하나로 장학금 지원이 풍부하다. 미국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설립자 해럴드 스탠리 등이 예일 대학을 졸업했다.

아이비리그란 무조건 좋은 학교일까?

‘아이비리그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미국 대학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물론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들은 좋은 학교다. 그러나 미국 대학원 순위는 전공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공과대학의 경우 MIT, 스탠퍼드, 버클리 대학 등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아이비리그의 경우 20위 밖인 학교가 태반이다. 참고로 2018년도 기준 미국 공과대학 순위*는 다음과 같다.

* 2018 Best Engineering Schools Rankings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engineering-schools/eng-rankings?int=a74509>)

1.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3. 버클리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4.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5. 카네기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6.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7.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8.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9.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0.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
11. 텍사스 A&M 대학(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12.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terbi)
13.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14.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15.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6.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7.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18.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 존스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20.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21.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2.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23.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

미국 공과대학 순위(2008년도 기준)

* 정확하게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통용되는 호칭을 반영해 ‘버클리 대학’으로 칭한다. 이처럼 혼동의 여지가 적은 경우 편의상 캠퍼스 명을 대학 이름으로 대신해서 사용하거나, 가독성을 위해 대학 이름만 사용하고 캠퍼스 명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대학의 이름은 영문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따라서 전공 분야에 따라 아이비리그인 하버드 대학(23위)이 아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1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4위) 등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내가 합격 결과를 받았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은 아이비리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컴퓨터학과에서 5위로 평가되는 일리노이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엔 시큰둥했지만, 19위로 평가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자 모두들 '아이비리그 합격생'으로 인정 해주었다.

대학 평판을 무시하자거나 대학 순위를 맹신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국 명문 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학교에 대한 정체불명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대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전하자. 아이비리그가 전공에 무관하게 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고칠 때가 되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미국 명문 대학원 지원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면에 있어서 출중해야 할 것 같고, 학교에는 천재들밖에 없을 것 같으며, 지원하기 위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주로 학부과정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

* 2014 Best Computer Science Rankings (<https://premium.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science-schools/computer-science-rankings>)

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과정의 경우 여태까지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학교 성적, 교외 활동, 외국어, 봉사 활동 등 다방면에서 모두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박사과정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앞으로 지겹도록 강조하겠지만—연구 역량이다. 연구 역량이라고 하니 대단해 보이지만, 말 그대로 '연구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학교는 지원한 학생이 본교에 와서 5년 동안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스스로 공부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학부 성적, 영어 성적, 이력서 등을 요구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구 역량이다.

학부 지원처럼 대부분의 지원자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박사과정 지원의 경우 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국어, 그중에서도 현대 소설만을 가지고 겨루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만의 전문성, 즉 연구 역량을 이 책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며 기르도록 하자. 그리고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지금 당장은 유학을 갈지 말지,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조차 모호할 것이다. 사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유학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오래 걸리는 부분이다. 특히 지원할 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학교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탕으로 지원할 학교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볼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직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조금은 선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유학을 고민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이름에 쉽게 주목 들어 포기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초기의 모호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따른 식물군의 변동을 파악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온도 변화에 따라 한국 경상북도 지역의 소나무 집단의 분포 및 개체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소나무 집단 및 다른 식물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한다”라는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이다. 대학원 지원도 마찬가지다. 막연하게 ‘명문 대학원 합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원의 어떤 교수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

물론 지금 당장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 연구 활동을 하며, 그리고 학교 조사를 하고 지원 서류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앞으로 어떤 교수의 지도하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면 이것은 실현 가능성 100%의 목표가 된다.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가 아이비리그 이던, MIT, 스탠퍼드, 버클리 대학이던, 그 이름에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다. 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과 그 학교, 그리고 그 교수가 함께 연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매체가 바로 지원 서류다.

Cheer Up!



미국 명문 대학원, 그것도 박사과정으로의 문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사과정은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 경험 및 연구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좁은 문이지만, 기회는 더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가 분명하고, 자신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 명문 대학원 진학은 결코 여러분에게 좁은 문이 아니다.

“내가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대에게

대학원은 연구하러 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연구란 무엇인가? 나는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옳은 걸까? 대학원을 단순히 취업에 대한 회피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선택한 전공의 전망이 좋을까? 나중에 바꾸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지? 결국 취업을 할 거라면 굳이 박사학위가 필요할까? 모두 내가 지원을 준비하며 품었던 고민들이다.

아직 몰라도 괜찮다

사실 나도 연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아

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4학년이 되어 으레 그렇듯 취업과 대학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학부 연구생으로 일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되돌아보면 큰 꿈이나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이마저도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면서 나는 종종 주변에 있는 박사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으며, 박사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었나요?” 하고 묻곤 했다. 그들도 대학원을 지원할 당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몰랐다고 했다. 심지어 두 가지 비슷한 분야를 착각해서 전공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고, 중도 포기하고 취업을 고려했던 사람도 있으며, 박사과정을 마친 이후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교수의 길로 방향을 바꾼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현재 모두에게 인정받는 교수, 연구원, 회사원 등이 되어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자신의 일과 삶을 즐기며 살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박사과정도 내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니까! 잘 풀린 사람들의 사례만 나열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탄탄대로를 걸어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원은 내가 아직 부족하기에 더 공부하고 연구하러 가는 곳이지만, 그렇기에 더더

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앞서 말한 사람들 모두 계속해서 이 길이 내게 맞는 것인지 고민했고, 좌절했고,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것이다.

나는 연구 혹은 유학에 적합한 사람인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이 연구 그리고 유학에 적합한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보자.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 잘 모르고 확신이 없더라도, 고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연구의, 유학의,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할까? 일단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연구를 잘해야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다는 명제부터 따라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도 대학 생활처럼 주어진 기간 동안 시간을 적당히 보내고 주어진 일을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연구를 잘하지 못하면 학위를 받지 못한다. 각 학교가 제시하는 기준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물론 해보기도 전에 자신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부 연구생으로서 연구실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학부 연구생과 실제 대학원생의 차

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부 연구생일 때에는 연구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학교 수업 공부를 하다가,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다시 연구로 돌아올 수 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주변 선배나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은 조금 다르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본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다독이며 끈기 있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연구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게 의미 있는 연구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만큼 일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머릿속에 파고든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연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말 내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나보다 연구 경험이 훨씬 풍부한 선배들로부터 들은 것이 대부분이다. 나도 아직까지는 연구에 대해 최대한 진지하게 생각해보려 노력하는 학부 졸업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하다. 대학원에 진학하든 유학을 준비하든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와 여러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과연 연구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인지, 박사학위 취득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국내 대학원과 해외 대학원 진학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본인이 유학에 적합한 사람인지 충분히 고민하자는 뜻이다.

새로운 길을 앞두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분명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잘 굴러간다고 하지 않던가? 앞서 말한 사례들은 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는 데 많은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상황과 판단 과정이, 아직 자신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선택은 했지만 확신이 없어 불안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유학 정보, 어떻게 구할까?

사람들이 유학 준비를 힘들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정보’ 때문이다. 내게 맞는 정확한 정보와 질 좋은 정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탓이다. 가벼운 정보가 넘쳐나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믿고 따를 만한 고급 정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급 정보들은 대개 튼튼한 자체 방화벽을 가지고 있어서 잘 공개되지도 않는다.

정보를 얻는 흔한 방법

사람들이 정보를 구하는 채널은 대개 다음 두 가지이다.

- 지인 -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다녀온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 검색 -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한다. 알 때까지.

나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보통 지인에게 먼저 조언을 구한다. 그 사람이 자세한 설명을 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하다면, 유학의 대략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지인도 본인의 경우 외에는 잘 모를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 본인 또한 아직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추상적이다 보니 돌아오는 답변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지인에게 구하지 못한 (수많은) 정보는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게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구하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지인 정보와 검색 정보의 한계

일단, 지인에게 묻는 것도 쉽지 않다.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적거니와, 준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나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포닥, 연구소 등을 거쳐 교수로 부임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질문 폭탄을 투하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

우 최소 약 10년 전에 유학을 경험하였기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언을 주기가 어렵다. 게다가 모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력서, 학업 계획서 등에 대해서 시시콜콜 묻기에는 왠지 눈치가 보인다. 바쁜 만큼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인터넷 검색이지만, 이 또한 어렵긴 마찬가지다. 인터넷도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특히 한국어로 검색할 경우, 한국어로 된 검색 결과만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 소수의 몇 명이 작성한 박사과정 준비 후기가 전부다. 박사과정 유학으로 검색하면, 놀랍게도 내가 2016년 말에 작성한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하며」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후기가 적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얼마 안 되는 검색 결과를 훑어보고 나면 더 이상의 정보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도 된다.

유학 준비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책은 유학을 준비하며 가졌던 나의 끝없는 질문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정리한 것이다.

대학원 지원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고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무한하다. 이 책은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조금 먼저 한 내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관

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전공별로,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론과 실천법을 제시했다.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파악한 뒤 그중에서 취사선택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돈 때문에 미국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학' 하면 돈 걱정부터 한다. 나도 유학을 결심했던 초기에, 나를 유학의 길로 이끌어준 교수님께 불안한 마음이 앞서 고민을 털어놓았던 기억이 난다. 부모님에게 의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스스로 목돈을 마련해 유학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을 고려해보지만 이쯤 되면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 대학원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장학금과 펀딩을 적극 활용하자

미국 대학원의 값비싼 등록금을 고려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 국내 대학원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평균적으로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인 반면, 미국 대학원의 경우 1년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생활비는 어땠단 말인가? 고액의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감당하라니, 짐작하기 힘들 정도의 큰 액수라는 느낌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이렇듯 미국 대학원은 국내 대학원에 비해 등록금과 생활비가 몇 배로 비싸지만 이것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장학금과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펀딩이다.

장학금이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장학금은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동시에 여러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합격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준다. 장학금에는 국내 장학금, 국외 장학금,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 장학금의 지원 기간과 금액은 지원해주는 곳과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 국내 장학재단의 경우 지원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 지원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등록금과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US News (<https://www.usnews.com/>)

국의 장학금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주로 박사과정을 시작한 뒤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춰 지원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장학금의 경우 아예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방침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장학재단의 경우 매년 각각 약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해외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자.

장학금 지원 시기

장학금은 지원 시기에 따라 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기 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전 장학금,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후 장학금,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전/후 장학금으로 나뉜다. 지원 전 장학금의 경우 원서 접수 전 여름인 7월과 8월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후 장학금의 경우 원서 접수 후 진학할 학교가 결정된 다음인 4월과 5월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펀딩(Funding)이란?

다음으로는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펀딩이 있다. 이것은 장학금*과는 다르다. 장학금이 일정 기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준다면, 펀딩의 경우 조건부로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원 범위에 따라 풀펀딩(Full Funding), 일부펀딩(Partial Funding), 노펀딩(No Funding)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조건부라 함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연구 조교(Research Assistant) 또는 수업 조교(Teaching Assistant)로서 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수업 조교로 일하는 조건으로 풀펀딩을 받는다면 매 학기 등록금이 면제되며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이때 생활비는 보통 학교 및 학과의 재정 상황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물가를 반영해 결정되는데,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학과의 경우 매달 약 3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무려 3백만 원이라니!” 싶겠지만 이 지역의 기숙사 월세가 15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여전히 매우 큰 액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원을 진학하면, 매 학기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아 학업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웬만한 기업에서 일하는 수준 이상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다. 보통 국내 대학원에서 수업 조교로 일하게 될 경우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매달 수십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게 되는데 이보다 훨씬 나은 실정이라고 할

* 한국에서는 장학금과 펀딩을 통틀어 ‘장학금’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에서도 장학금(Scholarship/Fellowship)과 펀딩(Funding)을 혼용하기도 한다. 특히 박사과정 기간 동안 풀펀딩을 받는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전액 장학금’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설명의 명확성을 위해 두 가지를 구분한다.

Stanford CS Ph.D. Admissions: Congratulations

Dear Mina Lee,

We are pleased to offer you admission to the doctoral program in the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t Stanford University.

.....

As part of our admissions offer we are pleased to present you with financial support that includes tuition, a health insurance subsidy and a salary/stipend.

스탠퍼드 대학으로부터 받은 펀딩 패키지의 주요 내용 (일부 수정)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미국 대학원은 국내 대학원보다 비싸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펀딩 유무는 언제 결정되는가?

펀딩의 유무는 공식적으로는 합격과 동시에 결정된다. 즉, 합격 사실을 통지할 때 학교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학교에 합격했으니 이를 받아들여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를 펀딩 패키지(Funding Package)라고 하는데, 주로 지원 기간과 지원하는 등록금, 생활비, 보험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범위가 담겨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장학금, 여행 경비, 노트북 등의 지급도 가능하다.

이것은 매년 학교, 학과, 연구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지원 전에 알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격 전까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금 답답하더라도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일부 학과의 경우 홈페이지에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반드시 제공한다고 명시하기도 하므로, 학교 홈페이지의 펀딩과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자. 지원하는 학교의 교수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간 상태라면 콘택트 메일을 통해 미리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처 또는 관심 있는 연구실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볼 수 있다(이는 교수, 학생별로 다르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질문하자).

다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미국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박사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펀딩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과의 경우 5년 중 처음 1~2년만 지원해주거나 아예 노펀딩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펀딩의 주된 출처는 교수의 연구비 또는 학교 및 학과의 예산인데 이들의 사정이 어려울 경우 자비로 입학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첫해는 자비로 유학을 하며 연구 조교 또는 수업 조교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구실과 학교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미리 학교 조사 단계에서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PART II





생각보다 단순한
지원 과정 파악하기

The point of living and of being an optimist,
is to be foolish enough to believe the best is yet to come.

- Peter Ustinov

미국 대학원 지원 과정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끝난다.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지원하는 데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마저도 혹시 잘못 입력된 내용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느라 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지을 미국 대학원 지원 과정의 모든 것이다.

대부분의 지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가요?” 하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먼저 학교별 입학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요구하는 정보들을 채운다. 기본 인적 사항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국적 등이 있다. 출신 학교, 학점 등을 입력하고 성적표를 함께 업로드 하는 부분도 있다. 그 외에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력서와 학업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일부 학교의 경우 성적표와 같은 공식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접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든 지원 절차가 끝난다. 미국 대학원의 지원 과정은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 대학원 지원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결과 발표와 입학 시기

미국의 학교들은 가을 학기에 시작한다. 3월에 봄 학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9월에 가을 학기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을 학기 입학에 위한 지원은 전년도 말에 받는다. 대부분은 11월부



미국 대학원의 지원, 결과 발표 및 입학 시기

터 이듬해 1월까지다. 대학마다 봄 학기 입학생을 별도로 뽑기도 하고, 가을 학기 입학이라 하더라도 지원 기간이 이르거나 늦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별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에 지원이 끝나는 학교의 경우 늦어도 4월까지 합격 불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학생도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학에 결정했다면, 당해 9월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영어권 학생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미국 대학원은 전 세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쟁의 장이다. 지원자 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국제 학생들도 있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다. 특히 평소 우러러보던 꿈의 학교인 MIT, 스탠퍼드 대학 등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어가려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미국 명문대학교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학부 졸업생일 뿐이다. 그들의 학교에도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학생이 있게 마련이다. 학교의 이름은 분명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을 대변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연구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학부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였느냐가 반드시 연구 실력과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높은 학점을 땀다고 해도 연구는 답이 존재하는 학부과정 공부와 다르고, 연구 실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그들이 무조건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에 있어

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할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선부른 걱정이다.

미국 대학원의 입학사정 과정

미국 대학원 입학의 문이 좁은 것은 사실이다. 2017년도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의 경우 전체 1,00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90명을 살짝 웃도는 수가 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만 보고 겁을 먹는다. 박사과정이란 것이 원래 모집 인원도 적고, 굉장히 뛰어난 지원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데, 합격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과연 지원하는 1,000명의 사람들 중 합격하는 90명은 누구이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입학사정 과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가장 먼저 접수된 지원서를 검토해 후보자 수를 반으로 줄인다. 많은 학교에서 이 과정에 대학원생들이 큰 역할을 한



입학사정 과정

다. 합격한 학생과 함께 일하는 것은 교수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실의 학생들이기도 하다. 그들도 앞으로 함께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다음, 객관적인 지표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반으로 추려진 후보자를 최종 합격자의 2배수 정도로 추린다. 즉, 약 500명에서 200명의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서류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2배수에서 1배수로 좁혀지는 것은, 각각의 서류, 교수와의 매칭 등 학교별로 중요도를 다르게 두는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최종 선발에 가까워질수록 서류 하나하나에 대한 심층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경우에 따라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여러 번 이루어질 수도 있다.

Cheer Up!



미국 대학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전 세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세계적 경쟁의 장이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들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학생일 뿐이고, 여러분만큼 연구에 대한 경험이 없을 확률이 크다. 목표를 높게 잡고 자신 있게 도전하자.

유학에 대한 정교한 청사진을 그려라

미국 대학원 지원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제출하는 몇 개의 서류만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아니, 나에 대해 판단하는데 고작 그걸로 충분하단 말이야?”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고작해야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정도만 가지고 어떻게 천 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 출중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류 몇 장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다.

한정된 지면에 다양한 장점을 드러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한다. 전반적인 그림

을 그리지 못한 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에 전력투구를 다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서류 몇 장으로 나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만큼 한정된 매체에 자신을 최대한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 준비에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를 자신의 장점을 다각도에서 부각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도 허투루 낭비할 것이 없다. 물론 대부분의 지원자가 서류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준비할 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소가 자신의 다양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 그림을 파악하라

지원에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로는 앞서 언급한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가 있다. 그러나 지원에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요소도 있다. 학교 조사, 연구, 영어, 장학금, 콘택트 메일, 인터뷰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유학 준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서류와 이런 추가적인 준비 요소들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학교 조사

지원할 학교를 알아보는 단계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과정으로, 지원 준비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모든 전략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 선택의 기준은 대학 순위, 프로그램, 재정, 환경, 교수진, 연구실 구성 등이 있다.

❖ 연구

연구 경험을 쌓는 단계이다. 아직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학부 연구생과 인턴에 도전해보자. 적극적으로 지도교수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자. 벌써 연구를 하고 있는 학부 연구생이나 석사과정 학생이라면 논문을 쓰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업, 프로젝트, 연구 활동에 임하자. 논문이 없어도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구 역량을 증명해나가면 된다.

❖ 영어

지원에 필요한 영어 성적을 만드는 단계다. 미국 대학원에서는 주로 TOEFL과 GRE 점수를 요구한다. 영어 성적은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다. 수능 성적처럼 몇 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거나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어 성적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이력서

그동안의 자신의 이력을 담은 문서다.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에 대해 파악하려고 보는 것이므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두 장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략적으로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강조하고,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야 한다.

❖ 학업계획서

연구와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두 페이지 이내에 요약적으로 담아내는 문서다. 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 이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 학위를 마친 뒤 목표 등을 서술한다. 이것은 대학원에서 하게 될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추천서

추천서는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서류 중에서 가장 먼저 읽는 서류 중 하나다. 주로 교수에 의해 작성되며 여러분이 우수한 학생임을 주장하는 글로서 연구, 학업, 성격 등에 대해 서술한다. 강력한 추천서는 여러분을 주목할 만한 인물로 부각해줄 수 있으며, 출신 대학, 학점, 영어 성적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커버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추천서를 받으려면 철저한 전략과 요령, 노력이 필요하다. 추천인

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빠르게 추천서 작성을 부탁해야 한다.

❖ 장학금

해외 유학 장학금에 지원하는 단계다. 국내 장학재단은 5개 정도가 대표적인데 풀브라이트, 한국고등교육재단, 관정이중헌재단, 국비장학금,* 일주장학재단 등이 있다. 장학금은 학생과 교수 모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며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 장학금 지원 과정은 박사과정 지원 과정과 매우 유사하므로 박사과정 지원의 예행연습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좋다.

❖ 콘택트 메일

관심 있는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는 단계다. 이는 교수에게 자신을 알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합격과 직결될 수 있다.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누구에게 보내고 보내지 않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메일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짧게 두괄식으로 작성한다.

❖ 인터뷰

지원한 대학의 교수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면접 전형이다. 직접 학교에 방문하거나 화상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지금까지 해 온 연구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인터뷰의

* 국비 장학금의 경우 그 출처를 장학재단이라 칭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으나, 매번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 편의상 장학재단이라고 부른다.

목적에 따라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는 인간성, 성격, 느낌을 볼 수 있으며 학교에 따라 인터뷰를 하는 곳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터뷰에 있어서는 주요 질문에 대답하고, 반대로 교수에게 질문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

Cheer Up!



미국 대학원 입시는 제출하는 몇 개의 서류만으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뒤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뿐만 아니라 학교 조사, 연구, 콘택트 메일, 인터뷰 등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다양한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자.

1년 만에 연구·영어·서류

세 마리 토끼를 잡자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그 기간은 지원하는 시기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1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연구 경험을 쌓는 것과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추천인과의 관계를 쌓아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뭔가 대단한 것을 당장 해내라는 것이 아니다.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에서부터,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은 매일 단어를 외우는 것에서부터, 추천인과의 관계를 쌓아올리는 것은 교수님을 뵈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남은 경우라면 서류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가고 싶은 학교들의 지원 마감일과 선발 방식을 파악하자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의 지원 마감 시기는 주로 11월부터 1월 사이로 학교와 학과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절대적인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만 원서 접수를 더 빠르게 하도록 권장하는 학교도 있다. 공식적인 지원 안내 페이지에는 언제까지 마감이라고 적어놓고 “공식 마감일은 이렇지만 언제까지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라고 적어놓는 식이다. 이런 것은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운드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학교도 있다. 먼저 지원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이므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교의 경우 지원 기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에 차등을 두기도 하므로 지원 및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원서 접수 마감일이 12월 중순이고, 만약 이 글을 읽는 시점이 6월이라고 하면, 지원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또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 이 글을 읽고 유학을 준비한다면, 지원까지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준비해야 할 것들을 파악하자

앞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할 일은 그중에 현재 내가 갖춘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앞으로 언제 무엇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 **학교 조사:**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해당 학교에 어떤 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가? 그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어:** 영어 점수가 있는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영어 성적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가? 필요시 영어를 공부해서 시험을 칠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 **이력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놓은 이력서가 있는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심사에 맞추어 구성되었는가?
- **학업계획서:** 작성한 학업계획서가 있는가? 연구 중심으로 서술하였는가? 같은 전공을 가진 친구, 선배, 교수 등에게 피드백을 받았는가? 원어민에게 영어 교정을 받았는가?
- **추천서:** 추천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있는가? 그 중 2명 이상이 교수인가? 추천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그들과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했는가?
- **장학금:** 외부 장학금이 있는가? 국내 장학재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원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 **콘택트 메일:** 지원하려는 대학에 연락이 닿은 교수가 있는가?
- **인터뷰:** 자신의 연구와 전공에 대한 주요 질문들에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가? 영어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가?

많은 질문에 대해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모든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면서 꾸준히 준비하면 된다.

타임라인을 그려라

앞의 과정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필요한 것들을 남은 시간에 맞추어 분배하는 것이다. 다음은 12월 지원 마감을 기준으로 세운 나의 1년 동안의 유학 준비 타임라인*이다.

구분/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학교 조사															
영어															
(지원 전) 장학금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kontakt 메일															
지원 마감															
인터뷰															
결과 발표															
(지원 후) 장학금															

나의 유학 준비 타임라인

*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자.

나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학교 4학년 2학기에서야 유학을 준비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제야 방향을 잡은 것이다. 방향의 일환으로 한 학기 동안의 휴학이 있었기에 나의 4학년 2학기는 봄 학기였다. 따라서 나는 그해 12월 지원을 목표로 잡고 준비했다.

뒤늦게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했기에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놓은 것이 없었다. 학교 조사에서부터 장학금까지 하나씩 알아보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학교 조사는 지원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했다. 처음에는 나의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대학이 어디인지조차 몰랐다. 차근차근 대학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대학의 교수들로, 그리고 그 교수들의 연구 주제로 아는 범위를 넓혀나갔다.

필요한 영어 성적은 늦어도 지원 3개월 전까지는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TOEFL의 경우 약 3년 전에 시험을 본 경험이 있어 학교를 다니며 4~5월에 준비를 병행하고, GRE는 7~8월 동안 집중해서 점수를 만들었다.

영어 성적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이력서와 학업계획서 작성에 뛰어들었다. 사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모두 한두 장 이내임을 감안한다면,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를 왜 3개월 동안이나 작업하나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민의 시간과 깊이의 차이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특히 수년, 수십 년간 입시를 담당해온 사람들의 눈에는 더 그렇다. 나는 3개월 동안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를 다듬고 완성시킨 것이 유학 준비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 마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해외 유학 장학금에 지원하고, 교수 또는 직장 상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며, 미국 대학 교

수들에게 콘택트 메일을 보냈다. 정확하게 마감일이 있는 장학금 지원과 달리 추천서를 부탁하고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일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 너무 이르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잘 계획했다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점과 영어와 연구

위와 같이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것들을 남은 기간에 맞추어 계획한다면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다만 학점과 영어, 연구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 학점 및 학교생활

학점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특별히 학점이 낮은 것이 아니라면* 입학사정 과정에서 여러분의 학점을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점은 본인의 성실성과 학부 수준의 공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마쳤음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를 업으로 삼고자 하고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의 평균 학점은 대체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 학점의 높고 낮음의 기준은 학과별로 다르다.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US News 등에서 공개하는 각 학교의 학과별 합격생의 학점 평균을 참고하자.

❖ 영어

영어 성적도 학점과 마찬가지로 점수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다만 불이익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보는 것 외에도 평소에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졸업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영어권 국가로의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도 단기간에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국내에서 학교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학생 및 여행자를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며, 미국 드라마 시청을 통해 영어권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거나, 원서로 된 교과서 및 참고 도서를 읽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이다.

❖ 연구 활동

연구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연구 경험 없이 대학원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신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연구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연구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다. 나도 대학교 4학년이 되서야 학부 연구생으로서 연구실 생활을 시작했고, 그나마도 처음에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찾지 못해 4학년 2학기가 되기까지 방황하며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4학년 2학기가 시작한 3월 말부터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졸업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진행한 연구가 결실을 맺어

6월에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이후 8월에 논문 게재가 허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0월에 학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고 정처 없이 헤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앞으로 할 좋은 연구의 밑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끈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렇게 쌓은 연구 경험은 여러분을 훌륭한 지원자로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연구의 경우 이상적으로는 유학을 준비하기 전부터 미리 시작하여, 유학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Cheer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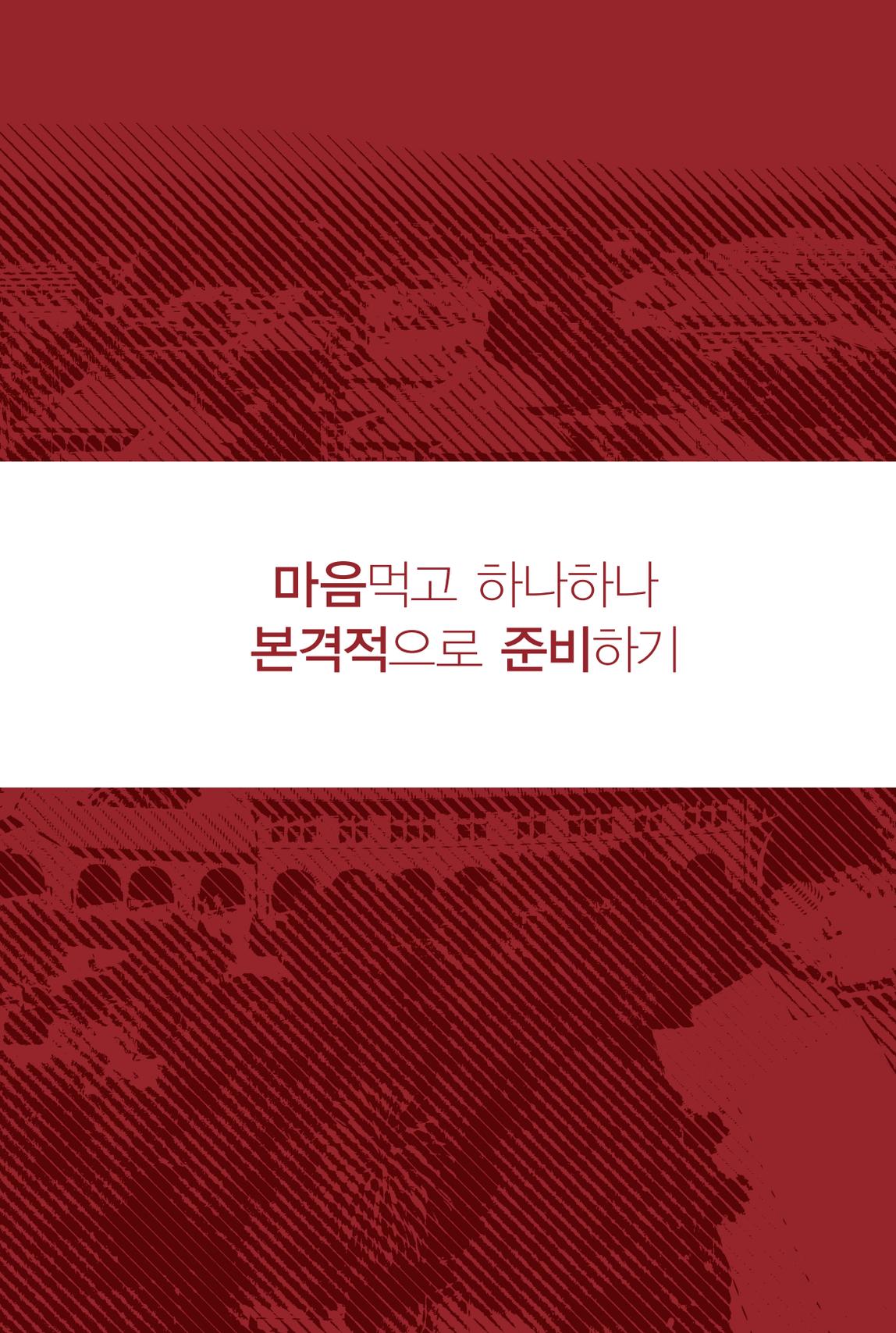


유학 준비에 있어서는 시기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중간 목표들을 설정하고 스스로 늘어지지 않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와 영어, 그리고 서류를 1년 만에 준비하는 것,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PART III





마음먹고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njoy your life - to be happy - it's all that matters.

- Audrey Hepburn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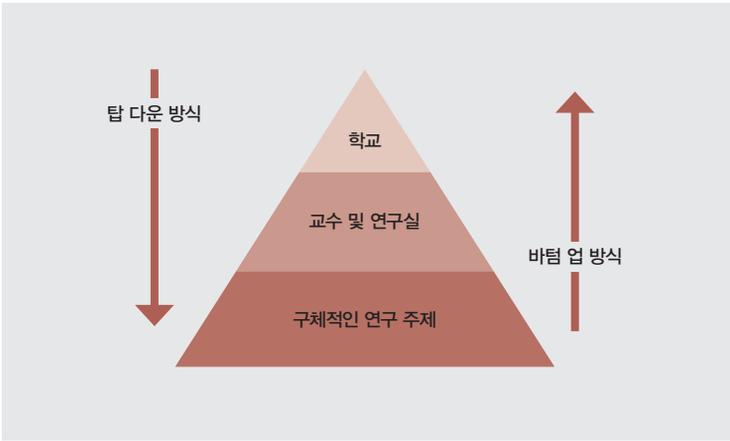
학교 조사
School Search

지원할 학교는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박사과정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다. 가장 먼저, 지원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학교 조사를 알아보자. 학교 조사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5년 이상을 보낼 학교이자 평생 졸업장과 함께 우리의 뒤를 따라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조사는 앞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학교 조사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학교를 조사하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정이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기 힘들며,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알아보



학교 조사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고 비교해야 한다. 누군가는 해당 학교의 교수진과 연구 주제만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누군가는 도시의 분위기, 물가, 날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해도 400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데 미국에는 얼마나 많겠는가? 모든 학교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지원할 학교를 선택할 때만큼은 신중해야 한다. 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방식은 탑 다운(Top-down) 방식과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나뉜다.

❖ 바텀 업 방식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한, 주로 현재 석사과정을 밟고 있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관심 있는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주제 또는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교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교수와 연구실을 위주

로 알아가다 보면 학교들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이 경우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학교가 뚜렷하게 정해지므로 학교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탑 다운 방식**

아직 구체적인 연구 관심사가 없거나 모호하지만 유학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일단 유학을 가기로 결심한 뒤,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본 몇 개의 학교 및 순위가 높은 학교들 위주로 알아본다. 그런 뒤 관심이 있는 세부 전공의 교수진을 한 명씩 살펴보고,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보며 무엇이 자신의 흥미를 일으키는지 파악한다. 즉, 학교부터 시작해 관심사를 구체화하는 조사 방법이다.

학교 조사를 할 때 무엇을 파악해야 하나?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수진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교수 2~3 명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 학교의 지원 마감일, 요구하는 서류 및 영어 성적 등을 체크한다. 실제 지원이 시작되고 나면 학교별로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요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진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성적표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어떤 학교는 TOEFL 성적이 하한선을 영역별로 정해두며, 어떤 학교는 학업계획서의 포맷을 다르게 설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상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별 파일을 만들어 정리해두면 좋다.

지원 전				
대학 이름				
지원 마감일				
지원 학과				
대학 순위	US News		QS	
교수	이름			
	연구 주제			
	이름			
	연구 주제			
	이름			
	연구 주제			
지원 기간				
온라인 지원	URL			
	ID		PW	
TOEFL	최저 점수			
	Inst. Code		Dept. Code	
GRE	최저 점수			
	Inst. Code		Dept. Code	
증명서	성적 증명서		온라인/우편	
	졸업 증명서		온라인/우편	
서류별 주의사항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기타 서류			
학교별 요구사항				
지원 후				
결과 발표일				
서류 도착 확인	TOEFL		GRE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추천서 등록 확인				

학교 조사 정리 양식

기간	할 일
지원 전 (~8월)	교수진, 연구 주제 파악 후 지원 학교 결정
지원 기간 (9~12월)	학교별 요구 조건 자세하게 파악
지원 후 (12~2월)	인터뷰 질의응답을 위한 학교 조사

학교 조사 작업 일지

학교 조사의 중요성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탐 다운 방식으로 학교 조사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5개 내외의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학교의 잘 모르는 교수들에게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 조사의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학교에만 해도 수십 명의 교수가 있고, 좋은 학교일수록 각각의 교수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사전에 배분하고, 시간과 공을 들여 학교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와 교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라

학교와 교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곧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인지 설득하는 교수들의 홈페이지 글을 읽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된다.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모호하게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이미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구체화하여 효과적으로 풀어내는지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 **학교 및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학교와 프로그램(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에 대해 알아갈수록 합격 확률도 높아진다.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입학사정관들이 일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일까?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다른 학교로 진학한 경우, 입학사정관이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학교로 올 학생을 선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특징과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매우 좋다. 예를 들어,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박사과정의 경우 첫 한 해 동안 지도교수 없이 자유롭게 학과 내의 다양한 세부 전공을 탐구하고, 부가적으로 다른 학과를 이중전공 해야 한다. 이후 코넬 대학의 교수와 인터뷰를 하며, 나는 왜 이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설명했다. 아직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하나의 세부 전공밖에 탐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전공들도 도전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했고, 교육, 생물, 음악 등 다른 분야와의 공동 연구에도 크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중전공 제도가 그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단순히 학교 이름과 교수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필하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입학사정관들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오해하지 말자. 보여주기 위한 학교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학교와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찾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단순히 시간만 잡아먹고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는 과정이라고 느껴지면 안 된다.

❖ **학교 조사는 지원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학교 조사는 정말 중요하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데에도, 그리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그러므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학교 조사를 하도록 하자. 조금하게 마음을 먹거나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되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박사과정 지원 과정에서도 조사와 정보 수집은 정말 중요하다. 학교 조사를 게을리 하지 말자.

학교 선택의 기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찾아볼 때에는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을 필요로 한다. 학교 선택은 정말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는 부분이다. 때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맬 수도 있고, 때로는 정보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겨내자. 이겨내야 한다. 학교 조사에 있어서 만약 너무나도 조급해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합격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이다.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다

학교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다. 대학 순위, 프로그램, 재정, 환경, 교수진, 연구실 구성 등 개인별로 각각에 두는 중요치가 다를 것이다. 또

	구분
학교	대학의 명성, 순위, 평판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환경 (날씨, 치안, 생활비 등)
연구실	연구 관심사의 적합성
	진행 중인 프로젝트
	교수의 성향
	연구실 구성
	연구실의 재정 상태

학교 수준과 연구실 수준에서의 학교 선택의 기준

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수많은 요소가 마찬가지로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5년 이상을 생활해야 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학교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대학 순위,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학교가 위치한 도시의 날씨, 치안, 생활비 등을 아우르는 환경 등이다. 주로 참조되는 대학 순위 지표로는 US News*와 QS**가 있다. 두 평가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두 곳의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제공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학교가 위치한 도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 US News (<https://www.usnews.com/>)

** QS University Rankings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

❖ 연구실 단위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

연구 관심사의 적합성,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교수의 성향, 연구실의 구성, 연구실의 재정 상태 등이다. 특히 연구실의 재정 상태는 펀딩의 유무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연구실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가령 A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기후가 좋지 않다고 하자. 날씨라는 요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이유만으로도 A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날씨란 그 사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아무리 명문 학교에서 좋은 교수와 함께 일할 수 있더라도 (날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찾지 못한다면 이는 박사과정을 밟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네 앞길에 큰 성취가 있길 빈다.

.....
다신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도

.....
무엇보다 행복해야 한다.”

.....
-어느 익명의 교수님이 보낸 메일 중에서

반대로 날씨라는 요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연구는 주로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며,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차라리 우중충한 날씨에 비나 눈이 오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사람에게 날씨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울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

정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방법과 직접 질문하는 방법이다.

※ 인터넷 검색

주로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찾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특정 정보에 특화된 사이트를 이용한다. 연구자 및 논문에 대해 찾아볼 때에는 주로 Google Scholar, 그중에서도 컴퓨터 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에는 DBLP*에서 검색을 하는 식이다. 학교에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YouTube와 같은 채널을 통해 학교 차원에서 캠퍼스, 수업, 기숙사 등의 가상투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 올라

* DBLP: Computer Science Bibliography (<http://dblp.uni-trier.de/>)

**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및 교수의 홈페이지를 공략하라>에서 다루도록 한다.

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통해 교수의 강의를 제공하거나, 학술지 및 학회에서 발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수의 수업 및 발표에 대한 영상은 간접적으로나마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도움이 된다. 영상이 없다면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진을 찾아보거나, 교수가 가르친 과목의 웹페이지가 있다면 강의 자료 등을 보고 교수의 스타일을 가늠해보는 방법도 있다.

❖ 직접 묻기

인터넷 검색보다 훨씬 많은 용기와 인적 네트워크를 요구하지만, 양질의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나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교 및 연구실의 재정 상태와 같은 부분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정보다. 가깝게는 주변의 선배나 교수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대학의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알아보는 단계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좋은 학교, 연구실, 교수를 찾는 지름길은 교수 또는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학교 조사를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도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하며 보내게 될 것이다. 다양한 학교, 연구실, 교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은 길고 고되다. 사실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도, 원어민이 아닌 이상 아무래도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것은 한글로 된 글을 읽는 것보다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읽어야 할 너무나도 방대한 양에 막막한 느낌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판도를 읽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통찰력을 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어떤 곳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데 기분 나빠할 교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교수의 연구 주제 및 출신 대학과 관련해서 질문한다면 더더욱 풍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찾아갈 때도 해당 교수의 업적과 논문 실적 등을 살펴보고 가는 정성을 보이자. 모든 것을 파악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가장 최근의 것이라도 간단하게 보고 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최소한 처음 이야기의 말문을 트는 데에 이만큼 쉽고 좋은 것도 없다. “이번에 최우수 논문상 받으신 것 정말 축하드려요!” 칭찬은 교수도 춤추게 한다.

조금 더 신중해지고 싶다면 해당 연구실의 선배 또는 대학원생을 먼저 만난 뒤 교수와 면담할 수도 있다. 선배로부터 일차적인 정보를 얻은 뒤 조금 더 심화된 정보를 교수에게 묻는 것이다. 대학원생들도 주요 학회 및 주요 연구자들의 이름과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도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고민과 고충을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멍청해 보이면 어찌지?” 하고 생각하는 대신 보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교수 또는 선배에게 묻는 경우 자신의 관심사 및 연구 스타일에 최적화된 답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기는 힘들다. 게다가 같은 내용도 저마다 다른 단어와 표현으로 되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는 글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의 관심사 위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교수와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줄 지름길이다.

학교 및 교수의 홈페이지를 공략하라

어떻게 하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확실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것은 지원하는 학교와 관심 있는 교수의 홈페이지다. 사람들은 대개 학교 홈페이지를 자세히 뜯어보지 않는다.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은 뒤 나가버린다. 교수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알아두어야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학교 홈페이지 뜯어보기

지원을 염두에 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순위

US News, QS 외에도 평가 기관은 수없이 많으므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기관, 단체들의 순위와 더불어 학교의 숨은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올해의 대학 순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순위, 그동안의 발전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 프로그램

해당 대학의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지원 조건과 학위 수여 조건 등도 사전에 확인해두자. 학교별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현황을 공개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 주제와 졸업 후 진로를 파악할 수 있다.

❖ 등록금과 생활비

대부분의 학교가 예상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 계획을 일찍이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보험비와 예상되는 전공 서적 구매 비용까지 구체적인 목록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참고하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교수 및 연구실 정보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세부 전공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얼굴과 이름만이라도 익혀두자.

❖ 입학과 관련된 정보

지원 방법, 지원 시 필요한 서류, 서류별 가이드라인, 학점 및 영어 성적의 요구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등,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사전에 숙지해두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앞에서 소개한 ‘학교 조사 정리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잘 정리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주의하자.

❖ 자주 하는 질문(FAQ)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했던 내용이 다. 특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자주하는 질문란을 미리 읽어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학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큰 이슈, 관심 있는 교수가 해당 학과의 학장이라는 사실 등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교수 홈페이지 뜯어보기

그다음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교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열에 아홉 이상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보통 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홈페이지가 노출되지만, 만약 찾을 수 없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진 목록으로 들어가서 이름 옆 홈페이지란에서 찾으시면 된다.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를 비롯한 연락처이며, 다음과 같은 정보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직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내가 지원하려는 교수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년 보장을 받지 않은 젊은 교수와 함께 성장하며 일하고 싶은 경우, 또는 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싶은 경우 등 개인이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 관심사

교수의 연구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교수에 따라 연구계획서 (Research Statement)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계획서는 우리의 학업계획서와 같이 교수가 자신의 연구와 비전에 대해 쓴 글이다. 그 외에도 교수들은 홈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하기도 하며, 자신의 논문으로 링크를 걸어놓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관심사와 능력에 특별하게 부합하는 프로젝트나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학업계획서나 콘택트 메일을 통해 강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 연구 실적

논문, 출간 서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저널 또는

학회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학회, 키노트, 워크숍, 튜토리얼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보다 쉽게 연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생 모집 여부

지원하는 연도에 학생을 모집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자. 단, 홈페이지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논문 목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콘택트 메일 수신 희망 여부

평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콘택트 메일을 보내려 할 때는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일부 교수의 경우 홈페이지에 아예 콘택트 메일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적어놓기도 한다. 이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면 역효과만 낳으므로 주의하자. 콘택트 메일을 보낼 때 특정 문구를 포함하라고 지시하는 교수도 간혹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의 메일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지도 학생 및 졸업생 현황

교수에 따라 개인과 단체 사진을 올리기도 하므로 연구실의 구성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학생 수로부터는 교수가 얼마나 여러 분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인지 가졸업생들이 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진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 최근 활동

만일 교수가 홈페이지에 자신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면, 교수가 참석하는 학회 등을 파악해 직접 만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당 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미리 연락 후 교수의 상담 시간 (Office Hours)에 찾아갈 수 있다.

Cheer Up!



학교 홈페이지와 교수 홈페이지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출처이자 거의 유일무이한 출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고, 학교마다 교수마다 홈페이지의 생김새와 써놓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속도가 잘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처음은 막막하고 어려워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해지고 쉬워진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학교 조사의 첫 걸음을 학교와 교수 홈페이지에서 시작하자.

관심 분야의 학술지, 논문, 최근 연구를 파악하라

학교 조사를 하며 하나의 세부 전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교수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분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논문을 읽으면 되는 걸까? 그렇다면 과연 수천, 수만 편의 논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초록을 읽어라

전공 중에서도 관심 있는 세부 전공에 대해 전반적인 트렌드와 어떠한 주제들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해당 분

야에서 최고로 인정되는 학술지의 최근 몇 년 사이 실린 논문들의 초록(Abstract)만이라도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는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내게 추천한 방법이다. 논문의 도입부만이라도 읽다 보면 해당 분야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 나가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

물론 그마저도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술지별로 일반적으로 수십 개 정도에서 많게는 수백 편의 논문들이 매년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런 학술지가 여러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수천 편의 읽어야 할 논문이 쌓여 있는 셈이다. 아무리 초록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굉장히 많은 양이다. 따라서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욕심낼 필요가 없다. 아직 아는 것이 많이 없고, 배우려고 읽는 것이자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만 봐서 내용이 어떨지 아무런 짐작이 가지 않는다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읽기 시작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슬슬 용어가 익숙해지고,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일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선택적 읽기도 수월해진다.

그 외에도 발표를 녹화한 비디오 및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논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른 이해를 돕는다. 특히 발표의 경우 20~30분 안에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와 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의 접근 방식과 결과를 요약적, 핵심적으로 담아내므로 짧은 시간 안에 대부분

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우수 학회의 논문과 발표 자료의 경우 퀄리티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우수학술지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 다양성을 위해 좋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발견했다면 한 학술지의 논문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그럴 경우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최근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연구를 주도해가는지에 보다 명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훑어보다가 시선을 확 끄는 논문이 있다면 보다 꼼꼼하게 뒤편까지 살펴보자.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분과 굉장히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연구를 쭉 진행해왔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연구만 따라가도 재미있는 문제들을 잔뜩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를 파악하자

저널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면,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몇 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나온 논문의 제목으로부터 주요 키워드를 파악해 이것을 중심으로 검색해나가자. 가장 흥미로운 논문 몇 개를 집중해서 읽으며 관련 연구를 파악한다. 관련 연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해당 논문의 관련 연구(Related Work), 참조된 논문(Reference), 공저자의 다른 논문 등을 참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면 주요 교수들의 이름

과 학교가 자주 보이며 눈에 익게 될 것이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해 찾고 기록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자.

교수의 논문 실적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교수에 대해 살펴볼 때 논문 실적을 주의해서 살펴보자. 어떤 논문을 어떤 학회에 많이 냈는가, 이 사실만으로도 교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교수가 논문을 우수학술지에 여러 편씩 꾸준히 냈다고 하자. 이는 교수의 성격이 어떻든, 연구 스타일이 어떻든, 매년 학생들과 최상의 퀄리티의 연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혹은 위커홀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논문 별로 다른 그룹의 학생들과 작업한 뒤 여러 편의 논문을 냈다면, 교수가 각각의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할 만큼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와 동시에 주로 학생들이 그룹 단위로 일하는지, 아니면 개인 단위로 일하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공저자 란을 보면 다른 교수 또는 회사와의 협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다.

대학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 순위에 대한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앞서 소개한 두 평가 기관 US News와 QS의 대학 순위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교 조사를 이어갈수록 석연찮은 점들이 많았다. 주요 학술지에서 발표되는 논문들과 교수진의 규모 등으로 따져보았을 때 분명 상위권에 있어야 할 대학이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이는 국제학회에 참석해 교수,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의 인식과 언론에 노출되는 대학 순위와의 간극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 이에 대한 막연한 느낌은, 미국에 있는 선배의 답변으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얻게 되었다. 선배의 도움으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공유하니, 여러분은 이 정보를 처음부터 참고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알아가기 바란다.

대학 순위를 맹신하지 말자

첫 번째로 대학 순위 평가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기관별로 대학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요소에 더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먼저 US News가 제시하는 2014년도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s) 분야의 대학 순위를 살펴보자.

1. 카네기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2.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4.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5.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6.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7.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8.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
9.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0.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언뜻 보면 이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해 잘 모를수록 그렇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지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절대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위

의 평가 결과는 100% 설문조사에 의해 나온 결과*다. 설문조사의 경우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응답자가 해당 학교나 분야의 최근 연구 실적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응답 결과가 학교의 평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도 공과대학 순위의 평가 지표에서는 설문조사의 비중이 40%로 조정**되었으나 이마저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제 다음의 대학 순위***를 살펴보자. 연구 결과는 주로 논문으로 대표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부 전공을 포함시켜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우수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참고로 US News의 경우 2018년도 공과대학 평가 시 연구 활동(Research Activity)에 대한 가중치를 25%로 늘렸으나 이마저도 논문이 아닌 연구비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1.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2.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4.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

* Methodology: Best Science Schools Rankings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graduate-schools/articles/science-schools-methodology>)

** Methodology: 2018 Best Engineering Schools Rankings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graduate-schools/articles/engineering-schools-methodology>)

*** Rank CS Department by Publication Productivity (<http://www.cs.rice.edu/~sc40/Rankings/>)

5.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6.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7.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8.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
9.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0.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전혀 다른 결과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이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두 번째 평가 결과에서 1위인 워싱턴 대학이 US News 대학 순위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US News의 평가 지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위의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수랏 차우드리 교수의 「논문 실적에 따라 자유자재로 컴퓨터학과 순위 매기기」*를 참고하자.

여기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더 올바른 평가 방식인지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대학을 논문 실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 순위라는 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평가 기준을 세워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 Ranking CS Departments by Publication Productivity, Interactively (<http://www.pl-enthusiast.net/2015/04/30/ranking-cs-departments-interactively/>)

대학의 평판과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

하나의 학교가 어떻게 평가되고 순위가 매겨지는지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보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돌아오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하게 될 가장 큰 두 요인은 결국 대학의 평판과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일 것이다.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가 좋은 대학에 있고, 그곳에 합격했다면 걱정 없이 가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나와 관심사가 일치하는 교수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대학에 있다면?

대학의 이름이 더 중요한지, 교수가 더 중요한지는 정답이 없다.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의견을 나열함으로써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만한 부분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들을 종합한 것으로, 참고만 하되 각각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평판보다도 연구 실적이 중요하다. 학교는 연구 실적 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
- 5년 이상의 학위 과정에서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도교수이다. 박사과정 지원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지 장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 지도교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인맥과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도 지도교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자. 좋은 지도교수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닥, 교수직 등을 얻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평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정년을 보장하는 교수 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극소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 순위가 낮은 대학은 평판을 높이기 위해 명문 대학 졸업생을 임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교수직 지원자를 실력으로만 평가하기 힘든 상황에서 출신 학교의 명성은 안전한 평가의 잣대가 된다.
- 연구 관심사만으로 학교와 교수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는 교수의 연구 관심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 특정 교수 때문에 학교를 결정하는 것 또한 위험한 선택이다. 그 교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은 어떤 이유에서든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대학 순위에 관하여 사람들이 주로 가지는 몇 가지 오해를 풀면서, 지원할 대학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하였다. 결론은 단순하다. 대학 순위를 맹신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해서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워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나가면 된다.

지원하는 학교를 10~15개 내외로 제한하라

마지막으로 학교 조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한두 학교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까? 지원하는 학교의 개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 여러 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데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일까? 추천서는 왜 학교 선택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내려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까?

학과마다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적게는 5~7개, 일반적으로 10~15개, 많게는 20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한다. 보통 적게 지원하는 것은 소신 지원인 경우가 많다. 미리 해당 학교의 교수와 연락이 닿아 합격이 기정사실화되었거나,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있어 합격에 자신감이 있거나, 또는 이 학교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 첫해에는 연습삼아 적게 소신 지원하고 조금 더 준비해서 이듬해에 제대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10~15개의 학교를 지원할 때는 상향 지원, 소신 지원, 하향 지원을 모두 하게 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학교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상향 지원하고, 자신과 연구 주제 및 관심사가 잘 맞는 교수 또는 연구실이 있는 학교에 소신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랭킹이 낮으나 괜찮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학교가 상향이고 하향인지 알기 어렵다. 단순히 대학 순위만 봐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전 합격생들의 스펙을 참고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다.

20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흔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희귀하지도 않은 현상이다. 반드시 올해에 유학을 가고자 하며, 합격 확률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과일수록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수가 많아진다.

지원하는 학교의 수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라

10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다 온라인 지원이지 않은가?” 하고 알고고 시작했다가는 필히 후회할 것이다.

❖ 시간을 고려하라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같은 서류에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업계획서의 경우 한 문단 정도는 지원하는 학교의 프로그램과 관심 교수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또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학교마다 3명의 교수에 대해 알아본다고 해도 벌써 10개의 학교면 30명이다. 30명의 교수가 하는 연구에 대해 파악하고 논문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이해해서 학업계획서에 녹여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같은 성적을 입력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원래 학점을, 어떤 학교는 변환된 학점을, 어떤 학교는 전공과목 학점을, 어떤 학교는 최근 2년간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수강한 전공과목의 학수번호와 과목명, 받은 학점을 일일이 입력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두 학교를 할 때에는 괜찮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을 열 번 이상 반복한다고 생각해보라. 온라인 지원도 능사가 아니다.

❖ **비용을 무시하지 마라**

한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정도다. 따라서 10개의 학교에 지원하려면 1백만 원, 20개의 학교에 지원하려면 2백만 원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원에서 TOEFL과 GRE 성적을 제출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성적표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 TOEFL과 GRE의 출제 기관인 ETS를 통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의 성적을 한 학교에 제출하는 데 각각 2, 3만 원 정도 하므로 10개의 학교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50만 원, 20개의 학교에 지원하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TOEFL과 GRE 시험의 응시료, 학교로부터 공식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등, 쓰면 쓸수록 슬퍼지므로 더 이상 나열하지 않겠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더해보면, 합격 확률을 높이고자 무조건 많은 학교에 지원서를 내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다.

구분		금액
영어 시험 응시료	TOEFL	\$190
	GRE	\$205
영어 시험 성적 레포팅	TOEFL	\$19 × 15
	GRE	\$27 × 15
성적표 발급 및 배송		\$100
원서 접수비		\$100 × 15
총계		\$2685 (약 3백만 원)

15개 대학 지원 기준 예상 접수 비용

❖ 학교를 선택할 때 추천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지원할 대학과 그 개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천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추천인에 따라 추천서를 써주는 학교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서를 쓰는 것은 바쁜 추천인에게 매우 부담되는 일이다.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답해야 하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추천서 등록에 들어가는 시간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추천인들이 추천서를 써주기로 하되 써주는 학교 수를 제한하곤 한다. 이럴 경우 지원하는 학교의 수를 줄일 수 없다면 새로운 추천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추천인의 경우 특정 학교에 한해서만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 연도 같은 대학에 여러 명의 학생들의 추천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가 되지 않으면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모든 준비가 그렇듯 지원하는 학교에 있어서도 최대한 미리 고민하고 어느 정도 결정해놓는 것이 좋다. 온라인 지원이라고, 한 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우습게보면 안 된다. 15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데 최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몇 개의 학교에 지원할 것이며, 어떤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 추천인과 상의하며 계획해야 한다.

The wisest men follow their own direction.

– Euripides

Chapter 2

연구

Research

논문을 쓰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업, 프로젝트, 연구에 임하자

여러분은 수업을 듣거나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 단순히 수업 내용을 받아 적고, 시험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사실 나의 대학생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업은 수업 그 자체로서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했고, 공부의 목적도 시험을 보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까지의 수동적인 공부 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내가 놓쳤던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목표 의식을 장전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논문을 쓰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수업, 프로젝트, 연구에 임하라고 말하고 싶다. 논문이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제대로 논문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뭔가 읽어보아야지 하고 앞에 놓으면 뻑뻑하게 가득 찬 글씨와 그래프, 수식 등에 눈앞이 깜깜해질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논문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 다루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논문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주고 싶다. 그 전에 왜 논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에 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 주도적인 공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하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즉, 목표를 세움으로써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을 잡아놓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 이때는 단순 암기 및 이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공부한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재가공한다. 이는 다음 학습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논문을 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와 공부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깊이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상 기준에 없던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보통 교과서를 통해 공부할 때처럼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

책해 나가는 것이 연구다. 따라서 연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숙제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프로젝트 경험

무언가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든 한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얻을 수 있다. 바로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진행한 연구의 주제 및 방법이 자신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세부 전공에만 해도 연구 주제가 수천, 수만 가지 산재해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았다고 무조건 연구가 본인과 잘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도 연구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경험하고 비교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며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대학원 진학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경험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최소 5년 정도를 연구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한 연구란 학부 과정에서의 공부와 다르므로, 단순히 친구들과의 학점 비교를 통해 이 과목을 내가 더 잘하는구나 하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당 과목에서 주어지는 자유 프로젝트 등의 기회를 통해 그 분야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최소한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대학원생보다도) 깊게 파고들기를 추천한다.

❖ 연구 과정의 처음부터 끝

마지막으로, 논문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연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많은 선배들이 첫 번째 논문은 무조건 빨리 쓰라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연구 과정을 백지 상태인 처음부터 시작해서 논문으로 귀결되는 마지막까지 겪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서툴고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새로운 과제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논문을 쓰자

이제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사실 대학원에 가면 어차피 논문을 써야 한다. 박사과정 졸업 요건에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논문을 쓰고 싶지만 (또는 써야 하지만) 논문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조금은 겁이 날 수도 있다. 지금부터 논문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 모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논문이 될 수 있다

학교 수업 중 진행하는 자유 프로젝트, 공모전 아이디어, 그 외에도 평소에 떠오르는 자잘한 아이디어들 모두 논문이 될 수 있는 가능

* 첫 번째 논문을 최대한 빨리 써라 (<http://gradschoolstory.net/yoonsup/first-paper/>)

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논문이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내야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물론 일부 논문의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말 작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이 재미있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풀어냈다면 그것은 한 편의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익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잘하는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다. 지도교수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학부생 또는 석사과정 학생이 혼자서 연구 주제를 찾고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 또는 선배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면 된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거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보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바꾸어줄 것이다.

❖ 기존의 연구, 관련 연구를 살펴라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면, 이제 기존에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차례다.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푼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풀었고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없다면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같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읽고, 빠르게 내용을 흡수할 것이다.

어느새 그 과정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들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 아주 논리정연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며 감탄할지도 모른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배움이 일어난다. 교과서에는 미처 실리지 못한 최신 연구의 결과들을 따라가며 여러분은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된다. 또한 관련 연구가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비슷한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보며 여러분의 연구에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왜 이 문제의 경우 이것이 효과적인데 이 문제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지 등을 분석하며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게 된다. 실제로 연구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러한 작업이기도 하다. 알아보고, 살펴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구의 방향과 접근 방법도 구체화된다. 이렇게 자신의 연구의 차별성과 중요성,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면 논문은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Cheer Up!



설령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자. 있었던 것을 공부해도, 새로운 것을 연구해도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일단 목표를 높게 잡자. 논문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연구 경험도 쌓이면서 몰라보게 성장한 자신을 마주할 것이다.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반드시 논문이 필요할까?

많은 학생들이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논문이 있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 박사과정을 지원함에 있어 본인의 연구 역량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논문의 유무가 합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주변에서 “유학을 가려면 논문을 써야 한다”고 할 때마다 이런 궁금증은 증폭될 것이다. 박사과정과 논문, 과연 어떤 관계일까?

논문은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하나’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학원 지원에 있어서 논문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머지 논문을 ‘해치워야 할 체크리스트 목록 중 하나’로 간주

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막 유학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일단 필요한 스펙부터 갖추고 보자는 태도이다. ‘문제의 발견 ⇨ 해결 ⇨ 논문 작성 ⇨ 후속 연구’를 위한 유학이 아니라 그 역순인 ‘유학을 가기 위한 논문, 논문을 위한 문제 정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듯싶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전에 논문을 쓸 걱정부터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부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반드시 논문 실적이나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할까?**

일단 짧은 대답은 “아니오”이다.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질문을 “학부생이 박사과정에 지원할 때 논문 실적이나 연구 경험이 매우 중요한가?”라고 바꾼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대학원이란 연구를 하는 곳이기에 지원자들의 연구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그중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평가 지표가 논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수한 저널 및 학회에 논문이 받아들여지고, 본인이 해당 연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연구 능력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다. 만약 논문이 없더라도 프로젝트 등의 연구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학업계획서에 잘 녹여냄으로써 본인의 연구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이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실력은 당연히 논문 실적이나 연구 경험을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한 이유는 연구 경험이 아예 없는데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순위가 낮은 학교일수록 상대적으로 연구 경험이 적거나 거의 전무한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부를 졸업하고 별다른 연구 경험 없이 지원하는 경우라면,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연구 역량보다는 학점, 영어 성적, 관심사, 학업 계획 등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박사과정 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논문 실적이나 연구 경험이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학부과정을 마치고 바로 지원하는 학생들 중 논문이 있는 학생이 많을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본 사람으로서 “아주 많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컴퓨터학과의 경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찍이 논문을 목표로 학부 연구를 하는 것을 다수 보았다. 몇 명의 예를 들자면, 일단 나는 세컨티어 정도의 학회의

* 그렇지만 동시에 같은 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연구 경험과 논문이 있었던 학생은 떨어진 것으로 보아, 그 학생에게서 직접적인 연구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논문과 최우수 논문상이 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합격한 학생은 여러 편의 논문이 있었다. 학교 방문 시 함께 호텔 방을 쓴 MIT에서 온 친구는 논문은 없고 워크숍 페이지만 하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논문이 있는 상태에서 합격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의 논문 실적을 검색해 보자. 박사 몇 년차인지와 언제 논문이 발표되었는지를 비교하면 대학원 합격 전 논문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논문을 완성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지원하기 얼마 전까지 논문을 완성하면 좋을까요?”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지원 막바지에 이르러서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논문이 생각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준비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에 맞추어 끝나겠지만, 이것은 토폴을 몇 개월 안에 완성하겠다는 것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을 주자면, 이상적으로는 지원 마감 한 달 전까지는 작업 중인 논문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논문 작업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서류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업계획서 등에 소홀해지면 합격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 한 달 이상은 서류에 집중해서 서류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차가 있다.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미리 교수와 연락이 되었거나, 연구 실적에 매우(?) 자신 있는 경우 논문 작업이 늦어져도 크게 차질이 없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상황이다. 어쨌거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논문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마감일 직전에 벼락치기를 하지 않도록 일찍 준비를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나가며 동시에 연구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도대체 논문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

논문이 있으면 좋다. 엄청 좋다. 그중에서 내가 지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느낀 장점을 들자면, 논문이 (1)연구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되며 (2)연구 주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3)연구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 논문은 연구 능력을 증명해준다

논문이 있다면 자신의 연구 능력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수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다면 굳이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퀄리티가 보장된다. 학술지의 이름이 먼저 많은 교수들의 시선을 잡아 끌 테니까! 따라서 논문이 있고 좋은 곳에 게재되었다면, 이런 사실을 명시하기만 해도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곳에 논문을 냈어? 제1저자야?”라며 관심을 보일 것이다.

❖ 연구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논문을 통해 여러분의 연구 주제와 관심사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논문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연구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놓은 글이다. 따라서 논문만큼이나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게다가 논문은 그 중요성을 이미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 연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논문이 있다면 연구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 특히 학회*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합격 후 인터뷰를 할 때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다. 이것은 내가 느꼈던 논문의 큰 장점 중 하나다. 나는 논문이 없을 적에 한 번 학회에 참석했었으며, 이후 논문이 있는 상태에서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 차이는 과장 조금 보태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소개를 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자신 있게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나를 인터뷰했던 교수 중 한 명이 인터뷰의 시작과 동시에 “네 논문 잘 읽었어”라고 말해준 것이다. 그 교수는 놀랍게도 제출한 학술지에서 내 논문을 검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수백 편의 논문 중 신기하게도 내 논문을 읽은 것이다. 당연히 인터

* 컴퓨터학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저널보다 학회에 논문 게재하는 것을 (훨씬) 인정해준다. 타 학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회보다 저널을 (마찬가지로 훨씬) 중요시한다.

뷰는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드럽게 흘러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학교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 교수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논문을 읽거나 포스터를 보고 이야기를 걸어왔다.

Cheer Up!



논문이 있으면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논문이 없어도 괜찮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논문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만큼 학업계획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잘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라.

논문이 거절되더라도

말로 잘 풀어내면 승산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정보 공유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 추세다. 컴퓨터학과에서 공신력 있는 학회의 논문 게재율(Acceptance rate)을 보면 20~3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대학원생의 논문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부생들이 논문 없이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력서의 빈 논문(Publications) 칸을 가지고 합격했을까?

논문이 아니어도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필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논문이 없는 상태라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In submission), 제출했

지만 떨어진 상태(Reject), 학회는 아니지만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 등에 논문을 제출한 경우, 포스터 발표를 한 경우 등이다.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력서에 이것을 명시해서 논문 실적에 넣을 수 있다. 워크숍 논문 및 포스터 발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학업계획서에서도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아니, 다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문이 아직 게재되지 않았거나 없더라도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필할 수 있다.

논문이 거절되더라도 괜찮다

논문 게재가 거절된 경우 일반적으로 이력서에는 실지 않는다. 그러나 괜찮다. 거절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낸 논문보다도 제출 후 수정을 거듭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웠을 수 있다.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고민해보자.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척척해내고 성공만 하는 로봇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인 이상 당연히 도전한다면 언젠가 실패하게 마련이며, 그들은 여러분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한다.

※ 내가 거절된 논문에서 배운 것

나도 거절된 논문이 있었다. 심지어 세 번이나 거절된 논문이다. 내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이미 논문이 두 번 다른 학회에 제출되었다가 거절된 상태였고, 나의 역할은 이 논문을 푹푹푹 고쳐서 세 번째로 학회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내세울 만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참여했던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였기도 하고, 의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처음 문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나처럼 이렇게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를 재가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연구 과정의 전반을 파악하고 전 과정에 참여하며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다는 이점이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될 경우, 연구실의 주요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되어 연구에 대한 실전감각을 빠르게 익힐 수 있으며, 이미 정의되어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수와 선배의 지도하에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내 경우와 같이 이미 완성되었던 프로젝트를 재가공하는 경우는 어떨까? 특히, 학업계획서를 쓰는 와중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것이 무엇일까? 이미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셈인 걸까? 이렇게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옳은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게다가 논문 게재가 또다시 거절되어, 나의 참여가 굉장히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까 싶다가도 너무나도 부족한 연구 경험에 이마저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었다. 이 애플단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답답한 과정의 반복이었다.

그러던 와중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아 꼼꼼이 생각해보았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맡은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 프로젝트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집중했다. 다른 사람,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나니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논문 작성법을 배웠다. 정말 이론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닌, 실제로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일이 뜯어 고치며 배웠다.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했고, 이전에 제출했던 학술지로부터 받았던 리뷰들을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과 좋은 논문에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지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고쳤고, 다른 논문들을 읽어가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 발전시켰다. 이 과정을 거치며 내가 배운 것은 논문 작성법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때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이후 내가 논문을 쓸 때 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때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이야기와 나의 생각들을 모두 학업계획서에 담아냈고, 나를 인터뷰하고 실제로 만났던 어느 누구도 왜 프로젝트에서 논문 작성법을 배웠냐고 따지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매우 중요한 스킬이며 잘 배웠다고

칭찬했다. 조금은 특이한 경험이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프로젝트
지만 내 스스로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배움을 얻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Cheer Up!



논문이 거절 당해도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반드시 논문이 아니더라도, 연구와 관련된 다
양한 활동을 어필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전하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면, 학부 연구생

대학원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둘 다 시도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대학원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학부 연구생을, 취업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인턴을 해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학원’ 또는 ‘회사’의 이미지와 실제의 간극이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대학원과정의 미리보기 격인 학부 연구생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것이다.

왜 학부 연구생인가?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는 주된 목적은 대학원 생활 및 연구 활동을 경험해보기 위함이다. 학부 연구생, 학생 인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

리는데 여기서는 학부 연구생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지원 방법은 관심 있는 교수와 면담한 뒤 학부 연구생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 된다. 때때로 학교나 학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부 연구생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이 경로를 통해 지원하더라도 보통 교수와 일대일 면담 후 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학부 연구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학원생처럼 특정 교수의 지도를 중점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와 연구실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학생이 아주 많지 않은 한 주로 상시 모집이라고 보면 된다.

학부 연구생의 장점

학부 연구생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대학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연구실에 자리를 할당받게 되는데 강의가 없을 때 그리고 수업이 모두 끝난 뒤 이곳에 가서 공부 또는 맡은 일을 하게 된다. 이때 같은 연구실의 대학원생들과 생활을 같이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평소 생활 모습이 어떤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는지 보고 듣다 보면 자신에게 대학원 생활이 맞을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 연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학부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자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연구’ 수준으로 깊어지는 것은 웬만한 의지가 없으서는 힘들다. 보통 기존에 있는 접근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다른 방법과 합치거나, 조금 더 심화시켜서 적용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학부 연구생으로서 기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진정한 연구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정기적인 논문 토론회 모임, 세미나, 연구 미팅 등을 통해 발표 및 토론을 하는 문화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논문을 읽고 쓰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대학원생처럼 하루의 모든 일과가 연구 활동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중 일정 시간 이상이 이런 대학원생의 일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가 가능해진다

학부 연구생을 하다 보면,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것과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부와 연구의 차이를 언급할 때마다 강조한 것처럼,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능동적이고 심도 있는 공부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인 고민의 과정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연구가 천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학부 연구생의 단점

학부 연구생 생활에는 단점도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잘 돌아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학부 연구생에 지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주어지는 일이 많으면 본 학업과 병행이 어려워진다

이는 연구실마다 교수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학부 연구생 지원을 위한 면담 시 반드시 물어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사전에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의 경우, 4학년이어서 수업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았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마음껏 굴러주세요” 하고 들어갔다.

※ 타 세부 전공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다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와 한 분야에 대해 깊숙이 파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 전공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타 전공에 대한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한다.

※ 연구실을 옮기게 될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학부 연구생으로 한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연구실로 옮긴다던지,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다른 연구실로 지원할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예의바르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이를 크게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구실을 옮긴다고 해서 배신자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잘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수가 기대치가 본인의 목표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유학 지원을 위해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거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한 학기 동안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며 대학원 지원 및 세부 전공을 고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애매하게 “학부 연구생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교수는 여러분이 학부 연구생으로 일한 뒤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교수를 찾아가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찾아가서 만난다고 해도 굉장한 거리감을 두고 교수를 대한다. 하고 싶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부족하고 교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막연하게 조언을 구하고, 막연한 조언만 받은 채 돌아온다. 학부 연구생을 지원하기 꺼리는 이유 중 대다수도 이것 때문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학부 연구생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짐작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아무 것도 모른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학부생이 혼자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혼자 하기에 힘든 과정이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이 박사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고된 훈련 과정을 이끌어주는 전문가이자 멘토가 교수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도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바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여러분은 교수에게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다. 여러분의 등록금은 어디로 가는가? 많은 교수들이 여러분을 위해 상담 시간(Office Hour)을 설정해두었다(수업 첫 시간에 받은 강의계획서 또는 교수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분명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량을 학생 상담 시간으로 비워놓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불쑥 찾아가기보단 이메일 등을 통해 먼저 약속을 잡자.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거나 학교에서 자주 마주친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라면 조심하자. 수업 시간 내내 딴 짓을 하다가 조언을 구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교수와 면담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자

드디어 교수를 찾아갈 용기가 생겼는가? 면담 날짜를 잡았는가? 그렇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명심하자.

❖ 거짓말을 하지 말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갈 것이므로 짧게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을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연히 관심이 있다거나,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말도 한다. 그러나 오래 있지도 못할 거면서, 오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무례한 행동이다. 연구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만큼 해서 시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각 프로젝트 별로 시작과 끝이 있는 독립적인 활동이다. 무조건 오래 있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도, 교수에게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적을 말하라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그 전까지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며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학회에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도 되고 망설여지겠지만, 사실 교수들은 여러분의 이런 태도를 싫어하기보단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에게도 논문은 중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논문이고, 남들이 그들의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잣대

도 논문이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질이 어떤지는 결국 논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막연히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서 들어오는 학생보다 “논문을 쓰고 싶다, 그것도 빠르게”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과 기대를 갖게 마련이다.

해보고 결정하라(Decide by Doing)

나는 학부 연구생으로 일하기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인턴십 및 수주를 받아 여러 번 일했다. 인턴 또한 학부 연구생과 비슷하게 회사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기간 동안 내게 회사 생활이 잘 맞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민아 씨는 졸업하고 C 할 거예요, Java 할 거예요? 지금부터 선택해서 둘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묻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지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돌연 물거품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연구실에서의 경험은 180도 달랐다. 일 자체가 너무나도 내게 적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업에서 받은 연습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거리를 그저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풀어간다는 느낌이 너무나 좋았다. “내가 컴퓨터학과의 미래에 대해 접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머쓱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장황하게 내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도 해보고 결정하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경험자의 이야기라도 많이 들어보자.

국제학회는 유학 생활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다

“너는 정말 학회 타입의 사람이다.” 처음으로 참석한 국제학회에서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 지도교수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유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겼다. 대학원 생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회라고 생각했기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다. 유학 생활이 과연 나와 잘 맞을지 걱정되는가? 외국 학생들과 연구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한가? 대학원을 다니며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 외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국제학회에 참석해보자.

국제학회를 통해 얻게 된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국제학회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협업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다양한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학자들과 교류하다 보면 쉽게 앞으로의 유학 생활을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학회는 관심 있는 교수를 실제로 만나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논문에서 이름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 그들과의 대화는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된다. 그들 역시 자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소개해준다.

나의 경우 학회에서 알게 된 학생, 포닥, 교수들의 인연은 학회를 마친 이후로도 이어졌으며, 그들이 유학 준비 과정에서 내게 준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해 잘 모르던 내게 유용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었다.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자들을 먼저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력서,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원어민의 시각에서 피드백을 줘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국제학회에 도전하라

연구 결과가 없고, 아직 진로 고민을 하는 학부생일지라도 상관없다. 나도 첫 학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참석했다. 제대로 유학 준

비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영어도 안 쓴 지 너무 오래되어 혀가 굳어 있는 상태였다. 솔직히 조금 겁나기도 했다. 하나도 발표 내용을 알아 듣지 못하면 어찌지?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내가 너무 멍청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지? 등등. 그러나 모두 다 허튼 고민이었다. 학회가 시작되고 동시에 이런 고민들은 말끔히 사라졌다. 어차피 발표되는 논문은 모두에게 새로운 내용이며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또한 학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학생이었기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낯선 환경에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신감마저 떨어져 더더욱 네트워킹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국제학회에 도전하라고 하고 싶다.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자신이 유학 생활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담한다. 용기를 내서 참석한다면 걱정했던 것이 정말 별 게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유학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커질 것이다.

국제학회 등록하기

학회에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관심 있는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등록(Registration) 버튼을 눌러 등록하면 된다. 등록비용은 학회마다

다양한데, 내가 참석했던 학회의 경우 학생은 \$500, 일반인은 \$1,000 정도였다. 자비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특히 미국 또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여하려면 경비도 부담해야 하므로 더더욱 부담이 크다.

주로 학회는 논문이 게재되었을 때 발표하러 가거나, 관심 있는 우수 학회에 참석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속한 연구실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자의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알아볼 수 있다. 학회에 미리 등록(Early Registration)하는 경우 일부 등록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학생 자원봉사(Student Volunteer)를 신청하는 경우 학회 기간 동안 몇 가지 업무를 맡는 대신 학회 등록비용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학회도 있는데, 운 좋게 나는 이 혜택을 받아 학회 등록비용과 항공비, 체재비를 모두 지원받아 참석했다. 학회별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꼭 미리 알아보고 용기 내어 도전하자.

국제학회 참석하기

학회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키노트 연설
- 논문 발표
- 포스터 발표
- 워크숍
- 튜토리얼

-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
- 저녁 식사(Banquet)

학회의 하루는 보통 유명 인사들의 키노트 연설을 시작으로, 여러 사람들의 논문 발표로 이어진다. 논문 발표는 주로 20분 정도의 구두 발표와 1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학회에 게재된 논문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므로 관심 있는 발표를 찾아 들으면 된다.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워크숍 및 튜토리얼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도 따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중간 중간 네트워킹을 위한 커피 브레이크가 포진해 있다. 이것은 주로 1시간 반 정도 발표가 진행된 뒤 15분에서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때 사람들은 넓은 공간에서 간단하게 다과를 즐기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방금 막 발표를 마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며, 나 같은 학생들은 오늘 저녁을 어디로 먹으러 갈지에 대해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 시간이다.

국제학회 즐기기

학회를 200%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했기에 “학회 타입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걸까?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간단하다. 미리 관심 있는 주제의 논문을 읽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라는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목록은 학회 시작 전에 모두 공개된다. 사전에 미리 관심 있는 주제의 논문을 간단하게라도 읽고, 그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메모해놓자. 이 과정이 선행된다면 함께 발표를 들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만약 발표 도중 질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메일로 관심을 전달하고 따로 약속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당신의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읽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학회 기간 중에 시간 약속을 하고 잠깐 만나서 질문해도 괜찮겠는가?”라고 묻는 것은 전혀 실례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논문과 발표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준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고마워할 것이다.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 네트워킹이 처음부터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맞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미리 경험하는 셈 치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며,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는 굉장히 낮은 경험일 것이다. 처음 학회에 참석하여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Success usually comes to
those who are too busy to be looking for it.

- Henry David Thoreau

Chapter 3

영어

English

영어 성적이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유학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은 영어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앞에서 숙연해진다. 유학을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영어를 과연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영어 성적이 입학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성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원 지원에 필요한 영어 시험을 소개하고 노파심에 몇 가지 조언들을 덧붙였다.

영어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영어 성적이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능 성적처럼 몇 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박사과정 입학사정 에 있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학점, 영어 성적, 이 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연구 실적...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그 중 영어 성적의 중요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 어 성적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너무 낮 은 점수를 받을 경우 불합격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 TOEFL vs. GRE

많은 학교들이 지원 시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과 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 성적을 요구한다.

	TOEFL				GRE		
대상	비영어권 나라의 학생들				영어권,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 구분 없이 모든 대학원 진학 희망자		
난이도	대학 수준의 미국식 표준 영어				대학원 수준의 미국식 표준 영어		
평가 영역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언어	수리	작문
평가 영역	30	30	30	30	170	170	7.0
응시료	\$190				\$205		
유효기간	2년				5년		
재시험	최근 시험일로부터 12일 이후 응시 가능				최근 시험일로부터 2일 이후, 12개월 내에 최대 5번 응시 가능		

TOEFL과 GRE란 무엇인가?

혹시 TOEIC, TOEFL과 같은 영어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공부를 시작하길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TOEIC보다 TOEFL이, TOEFL보다 GRE가 (훨씬) 어렵다고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영어 시험들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응시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잘 나온 점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TOEFL은 국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데, 미국 대학을 나왔거나 영 어권 소재의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면제된다. GRE는 일부 학교의 경우 요구하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하므로 미리 점수를 받아놓는 편이 안전하다.

TOEFL 대신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를 인정하는 학교도 많이 있으며, MBA과정의 경우 GRE 대신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TOEFL과 GRE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또한 일부 학과에서 요구하는 GRE의 Subject Test*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겠다.

❖ 몇 점을 받아야 할까?

그렇다면 각각의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 이 또한 학교별

* GRE는 General Test와 Subject Test로 나뉘는데, General Test는 GRE를 치러야 한다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험이며, Subject Test는 수학하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이다. Subject Test의 경우 총 8개 분야가 있으며, 학교나 학과별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Subject Test 시험이 존재하는 8개의 분야는 생화학(Biochemistry), 세포분자생물학(Cell and Molecular Biology), 생물학(Biology), 화학(Chemistry), 컴퓨터학(Computer Science), 영문학(Literature in English), 수학(Mathematics), 물리학(Physics), 심리학(Psychology)이며 주로 박사과정 지원 시 요구되지만 간혹 석사과정 지원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로 다르지만,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수의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몇 점을 받든 지원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간혹 TOEFL에 하한선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총점에 대해 두거나 각각의 영역에 둔다. 대부분의 하한선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낮거나, 아니면 반대로 걱정해야 할 정도로 높다. 걱정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말하기 영역에 높은 점수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한선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의 석사과정의 경우 반드시 수업 조교(Teaching Assistant)로 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TOEFL 말하기 영역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의 성적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격 후 추가적인 영어 시험을 통해 조교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메시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TOEFL은 전체 총점이 100점 이상이면 대부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하한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GRE는 내가 지원한 16개의 대학에 있어서는 모두 제한 점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자.

개인적으로 GRE의 경우 TOEFL보다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률이 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목표를 구체적인 점수로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 더 높은 점수에 대한 미련 없이 공부를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 사실 이는 TOEFL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에서 1~2점 정도의 차이는 입학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목표 점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구체적인 점수를 설정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 하한선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학교 합격생의 최저 점수 및 평균 점수를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과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분야에 맞추어 확인해보기 바란다. 다음 쪽의 표는 주요 공과대학 박사과정 합격자의 TOEFL, GRE 평균 점수이다.

이런 통계 자료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만약 공개된 자료를 찾기 힘들다면 입학처에 이메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년 지원자들의 평균은 어떤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기대하는지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정보의 출처로부터 구체적인 점수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세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학교별 영어 성적 요구사항과 함께 평균 점수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경우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TOEFL 점수는 79점이다. 그러나 합격자 평균을 보면 104점으로 이를 훨씬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점수를 목표로 하기보다 평균을, 기초적인 영어 실력이 쌓여 있는

학교	TOEFL	GRE		
		언어	수리	작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08	161	167	4.30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N/A	161	167	4.50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N/A	159	166	4.20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07	161	169	4.00
카네기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104	158	166	3.90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N/A	157	165	3.90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04	156	165	3.90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99	154	165	3.70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N/A	156	166	N/A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Austin)	104	157	166	3.80

주요 공과대학 박사과정 합격자 평균 TOEFL, GRE 영역별 점수*

상태라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영어 성적이 지원자를 거르는 기준이 될 때

그렇다면 위의 기준으로 세운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조건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을까? 이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 학교별로, 사람 별로 수많은 케이스가 존재해서 어느 상황이나 반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연구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면 부족한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이다. 주변에서 미국 명문 대학원에 GRE 언어 영역

* US News (<https://www.usnews.com/>)

의 점수가 150점 이하인데도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150점은 전체 GRE 시험 응시자의 평균*이다). 이 사람은 학점과 영어 성적 모두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반대로 비슷한 점수대의 어떤 사람은 교수와 연락이 굉장히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 중간에 교수로부터 다시 GRE 시험을 볼 수 없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점수를 제출했고, 그 결과 떨어진 것이다.

사실 꽤 유의미한 숫자의 대학들이 GRE 성적을 가지고 먼저 지원자를 걸러낸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지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GRE 성적이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걸러내는 기준이 된다면 왜 애초에 학교는 해당 성적에 대한 점수 제한을 걸어놓지 않는 것인가? 이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함일 수도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영어 성적이 비교적 낮은 경우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불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의 두 학생이 동일한 연구실에 지원했다.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연구 실적 등)에서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오직

* 2016-17 GRE Guide to the Use of Scores (https://www.ets.org/s/gre/pdf/gre_guide_table1a.pdf)

** Inside Graduate Admissions (<http://www.hup.harvard.edu/catalog.php?isbn=9780674088696>)

TOEFL 점수에서 약 10점 이상 차이가 났다. 결과적으로 둘 중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더 빠르게 거절 메일이 도착했다. 실패의 원인을 영어 탓으로만 돌릴 수 없겠으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Cheer Up!



“결국 영어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 아닐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어 성적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평균 이하의 성적이어도 합격 케이스는 아주 많다. 말 그대로 ‘평균’은 ‘평균’이니까! 영어 성적이 박사과정 지원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평가 결과에는 반영된다. 어떤 경우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최종적으로 가릴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목표 점수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TOEFL과 GRE 성적은 늦어도 지원 3개월 전까지 확보하라

앞서 미국 대학원 지원에 필요한 영어 시험과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세워놓고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래야 영어 시험에 투자하는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목표를 세웠으니 이제 진짜로 영어를 공부할 때다. 영어 공부라니! 마지막으로 단어를 외운 것이 언제인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단어장을 다시 펼쳐 들어야 할 때다.

최대한 빠르게

영어 성적은 최대한 빨리 완성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완성'이라 함은 목표 점수를 만족하는 성적을 획득해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점수 자체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다. 지원하는 학교와 전공을 바탕으로 세운 목표 점수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소개했듯 TOEFL과 GRE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로 보는 시험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표는 지원 3개월 전까지 TOEFL과 GRE 성적을 만들어놓는 것이다. 이는 다른 서류 작성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다. 만약 지원하는 학교의 원서 접수 마감일이 12월인데, 11월 말까지 시험을 보고 있다면 지원 직전까지 영어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게 되므로 집중력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 따라서 마지막 3개월 정도는 이력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콘택트 메일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자. 그러려면 9월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시험을 고려하여 1~2달 정도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OEFL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GRE의 경우 5년이므로, 가능하다면 이른 시기에 점수를 갖추어놓는 것도 좋다. 이 경우 지원 전에 온전히 서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준비 과정에 여유가 있다. 다만 일찍 시험을 보는 경우,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이 지원시기까지 충분하게 남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학교

의 경우 지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합격 후 입학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2018년도 9월 입학 을 위해 2017년도 12월에 원서를 접수한다면, 유효기간이 2년인 TOEFL 성적의 경우 (2015년도 12월이 아닌) 2016년도 9월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고, 필요한 경우 다시 한 번 시험을 보는 것도 계획해야 한다.

공부는 어떻게?

안타깝게도 나는 일반적인 영어 공부 방법론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나도 한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How are you?”라는 질문에 대해 “I a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영어 성적, 그중에서도 TOEFL과 GRE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영어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부하는 도중에 적어도 한 번은 시험 보는 것을 추천한다. 컴퓨터로 보는 시험의 차이를 경험하고 자신의 상태를 중간 점검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일찍 파악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시험을 본 다음 재시험을 보게 된다면, 공부기간이 늘어나 이전에 공부한 것을 까먹고 상대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데 가장 최적의 시기는 방학이다. 만약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지원 전 마지막 방학을 무조건 영어에 투자하자. 그러나 연구실에서 맡은 업무가 많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에만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영어를 공부하는 기간과 결과는 철저히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독학을 하더라도 TOEFL과 GRE 모두 오래된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할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다.

학원을 다녀야 할까?

학원에 가는 것은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지름길을 택했다.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정리된 자료를 통해 공부하고 선생님의 노하우를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스터디라고 생각한다.

스터디는 학생들끼리 모여 단어 시험, 문제 풀이, 오답 체크 등을 하는 것이다. 보통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며, 혼자 공부할 때 쉽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벌금이라는 강제성을 부과하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정답과 오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은 문제 풀이 능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학원에서도 수업에 가지 않더라도 스터디엔 꼭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강의를 듣는다고 저절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며, 결국 스스로 문제를 풀고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두 달 동안 스터디를 하루 세 시간씩 했는데, 스터디를 통해

영어 실력도 크게 늘었지만 함께 공부한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다. 인천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전 7시 스테디에 매일 오는 사람, 고시원에서 살며 밥을 먹을 때마다 영어 공부에 전력투구하는 사람, 회사를 다니며 피곤한 와중에도 저녁 시간, 주말 등의 시간을 쪼개 학원을 다니며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등. 그들을 보며 나태해지려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GRE의 기초가 되어주는 TOEFL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TOEFL을 먼저 본 다음 GRE를 본다. 왜냐하면 TOEFL이 GRE보다 쉽고, 근본이 되는 실력을 쌓아주기 때문이다. 단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TOEFL에서 외우는 단어들은 GRE에서는 당연히 아는 것으로 간주되어 단어장에 나오지도 않는다. GRE를 먼저 공부함으로써 TOEFL까지 한 방에 잡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기본이 없으면 고급 어휘를 억지로 외우더라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럿 봤지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TOEFL, GRE 각각 공부해야 하는 양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GRE와 TOEFL은 같지 않다. 비슷하다고 하기에다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두 시험이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TOEFL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으로 나뉘지만 GRE의 경우 언어,

수리, 쓰기 영역으로 나뉜다. 따라서 GRE만 공부한다면 TOEFL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GRE 공부의 90%는 단어 암기인데 TOEFL 단어를 모른다면 엄청난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TOEFL을 공부해서 기본 실력을 닦은 다음 GRE를 공부하길 추천한다.

GRE는 TOEFL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단어 3,000개만 더 외우면 된다

GRE는 어렵다. 정말 어렵다. 특히 언어 영역은 뭐 이리 어려운 시험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는 GRE 언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괴수도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TOEFL 읽기 영역에서 만점을 받는 것보다 백만 배 정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어민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 GRE이다. GRE는 왜 어려운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GRE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어 영역이다

누군가 GRE를 공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언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GRE가 어렵다고 하면, 대부분 언어

영역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리 영역의 경우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영어로 풀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반대로 작문 영역의 경우 단기간에 실력이 크게 늘기 힘들어서 시험의 구성 및 답안 작성 요령만 익히고 기본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어 영역은 다르다.*

인간의 기억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단어

언어 영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단어다. 나는 처음으로 GRE 문제를 보았을 때 선택지에 있는 5개의 단어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 모르는 단어가 1~2개 있으면 어떻게 찍기라도 할 텐데, 이건 뭐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하다 보니 문제에 손을 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앞서 GRE를 공부하기 전에 TOEFL을 공부하라고 한 이유를 조금 알겠는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GRE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 TOEFL 수준의 단어는 대부분 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만 GRE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다. 학원에서든 웬만한 단어는 (즉, 원어민도 잘 모를 정도의 단어이지 않고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TOEFL을 통한 기초 실력을 닦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시험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통째로 머릿속

*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 문제는 GRE의 출제 기관인 ETS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 넣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수준, 즉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사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TOEFL 단어에 추가적으로 3,000개 정도의 단어를 더 외우면 된다(일반적으로 GRE 단어집에는 이 정도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단, 이 3,000개의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말자). 이 단어들을 모두 외우고 나면 문제 및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GRE 단어를 외우다 보면 분명 지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회의감도 강하게 들 것이다. ‘거대한 바다괴물’, ‘고양이가 야옹야옹 우는 소리’ 등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외우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걸 대체 언제 써먹지 하는 생각과 이 시험이 끝나면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슬픈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므로 GRE를 공부할 때는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수준의 단어를 외울 기회도 없고,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먹어야 한다. 총 3,000개의 외워야 하는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닌, 그날 외워야 하는 100개의 단어에 집중하자. 영어에 있어서는 마지막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삼으며 수행하듯 하나씩 외워나가면 한결 수월할 것이다.

나의 눈을 의심케 하는 독해

그다음으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독해다. 한 달간 단어만 미친 듯이 외우고 나니 이제 선택지의 단어들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친절하게 문단을 나누고, 각각의 문단의 핵심 주제를 두괄식 또는 미괄식으로 예쁘게 정리해주는 TOEFL과 달리 GRE는 정말 읽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문단이 한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 문장 안에 이중, 삼중 부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논문처럼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복잡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한 것 같은 글들도 간혹 마주친다. 그럴 때마다 매번 당혹스럽지만 어떻게 해서든 읽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글들은 정말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덜 겪겠지만, 한국어로도 복잡한 글 읽기를 피해왔던 나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글들을 접할 때 적잖이 당황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나 문단을 마주칠 때마다 문장 구조나 새로운 표현, 문법 등을 파악하고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GRE를 공부하며 여유가 된다면 (공부가 아닌 복습용으로) 영어 원서를 읽어보자. 이전에는 읽히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던 문장들이 늘어난 어휘와 높아진 문장 실력을 통해 눈에 속속 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 배움의 즐거움을 한껏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Self-respect is the cornerstone of all virtue.

- John Herschel

Chapter 4

이력서 쓰기
Curriculum Vitae

Step1 파악하기

한두 장의 문서로 나를 세일즈하라

이력서는 지원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는 문서이다. 이력서는 간결하고 요약적으로 경험과 관련된 사실들을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력서만 봐도 여러분이 왜 지원자로서 적합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장 안에 지원하는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력서에 무엇을 얼마나 쓸까?

이력서에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걱정하지 말자. 지금까지 겪어 온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자 이력이다. 자신이 왜 대학

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중 가장 중요한 경험들을 선택해 이력서를 구성하면 된다. 누구나 이력서에서 할 말이 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력서에 답을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력서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적는 서류가 아니다. 이력서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자신이 회사에 지원할 때, 학교에 지원할 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모두 동일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이력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 지원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고 편집해야 이력서를 읽는 사람도 보다 빠르고 쉽게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평가자가 한 사람의 이력서를 보는 데 평균 6초가 걸린다고 한다.* 6초 동안 무엇을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따라서 이력서는 보통 2장을 넘기지 않는다. 이력서는 지원자의 가장 중요한 이력을 파악하고 평가자가 원하는 몇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해 보여주고, 나머지 기본적인 이력들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담아내야 한다.

입학사정관들은 이력서에서 무엇을 볼까?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력서의 목적은 상대방이

* Keeping an eye on recruiter behavior (<https://cdn.theladders.net/static/images/basicSite/pdfs/TheLadders-EyeTracking-StudyC2.pdf>)

원하는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력서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다. 이럴 경우 이력서를 작성하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력서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름, 학력, 연구 경험, 논문 실적, 관련된 다른 경험 등이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기술 및 경험에 대해 정량적,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력서에 어떤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어떤 부분이 추가될 수 있는지는 다음 장인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쓰기>에서 자세히 다룬다.

다음으로는 이력서의 구성과 형식이다. 과연 여러분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적으로 찾는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개개인의 전문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에 대해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를 결정한다. 이력서의 첫인상은 문서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원자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라> 장에서 어떻게 이력서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좋은 이력서를 쓰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좋은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자신이 한 일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다. 이력서는 한 번에 완벽하게 쓰기 어렵다. 빠뜨

리는 게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 일들을 그때마다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원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이력서의 내용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사전에 정리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이력서를 구성한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력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경력이 쌓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의 내용을 더 적합하게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면 이전의 이력도 업데이트하자. 여러분의 경험이 쌓임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을 서술하는 실력도 늘어날 것이고, 다른 논문을 읽는 와중에 조금 더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력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령이 있다면 이력서 안에 최종 수정 날짜를 적어놓고 버전 관리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변의 선배, 교수의 이력서를 참고하자. 지원하는 학교의 관심 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이력서도 좋은 참고자료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들의 이력서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 년 동안의 고민의 산물로 탄생한 결과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자신의 이력서를 발전시키도록 하자.

Cheer Up!



이력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다. 그러나 한두 장의 제한된 지면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를 작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의 조언을 따라 여러분의 장점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이력서를 완성하기 바란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쓰기

이력서는 정해진 규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 내용이나 구성 및 형식이 비슷하다. 결국 효과적으로 이력을 전달하는 방법과 사회적,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이력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력서는 어떻게 구성하나?

미국 대학원 지원에 필요한 이력서에 담기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름, 연락처, 학력 및 연구 경험이다. 존재 유무에 따라 기타 경험, 수상 내역, 논문, 특허, 교외 활동, 기술, 외국어, 기타 사항 등을 넣을 수 있다. 참조인과 최종 수정 날짜는 본인의

Minu Lee http://minulee.info	
INTERESTS	Program Synthesis, Computer-Aided Education, Software Security
EDUCATION	Korea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 Mar. 2012 - Aug. 2016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Software Technology and Enterprise Program Total GPA of 4.3 / 4.5 (98.7 / 10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xchange Student Sept. 2014 - Apr. 2015 Vancouver, Canada
HONORS AND AWARDS	Doctoral Study Abroad Scholarship ,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awarded to qualified students to complete their doctorates, full tuition and expense, 2017-2022 Best Paper Award ,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 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hip,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2015-2016 Seonwoo High Honor, Korea University, 2012, 2013, 2015, 2016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Korea University, 2016 Scholarship for PLM 2016, PLM/VP/LID, 2016 Dan's List, Korea University, 2015 Vietnam Internship Program Scholarship, Korea University, 2013 Honor Scholarship, Korea University, 2013 Columbia Honor, Korea University, 2013 Best Honor Scholarship, Korea University, 2012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for Freshmen, Korea University, 2012
PUBLICATIONS	Minu Lee, Seoboon Se, and Hakjoo Oh. 2016.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for introductory automata assignments. In <i>Proceedings of the 2016 ACM SIGPL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i> . [a0] [demo] [code]
RESEARCH EXPERIENCE	Programming Research Laboratory , Korea University Nov. 2015 - Aug. 2016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d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poster, and published paper based on work Participated in projects on program synthesis, static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Program Synthesis: Synthesized simple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Static Analysis: Reduced false alarms by selectively applying soundness to programs Machine Learning: Learned feature programs from results of static analysis Gave poster presentation on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at SPLASH 2016
TEACHING	Basics of Computer Systems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an. 2015 - Apr. 2015 Teaching Assistant Vancouver,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SC 241 Basics of Computer Systems 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Control basic C programming, assembly language (x86-64), pipelined CPU, caching, memory hierarchy, virtualization, processes and threads, file-systems, and networking Run laboratories for over 50 students twice a week, had office hours every week, answered questions in person and online, marked assignments, and proctored exams

INTERNSHIPS	Smart and Innovativ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 Jan. 2010 - Feb. 2016 Hwasong,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earched industrial protocols and their specifications for automatic control systems Developed open source libraries for protocols such as Modbus TCP, OPC UA, and BACnet Developed prototypes for networking simulation using Java for development, MariaDB and MySQL for database management, and Maven for project management
	Trap Denmark Software Developer Intern Jun. 2013 - Aug. 2015 Hørsholm, Den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ilt up digital strategy for national Danish topographic encyclopedia Developed interactive UI toolsets for map-related features using Mapbox API Developed Android application for prototyping and suggested markup language
EXTRACURRICULAR ACTIVITIES	Korea University Buddy Assistants Buddy Assistant Sept. 2011 - Feb. 2014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zed and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welcoming party, weekly dinner, monthly field trips, and international student festival Helped exchange students adjust to Korean culture and campus life Taught Korean and learned English by participating in language exchange programs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Computer Security Regular Member Mar. 2012 - Dec. 2013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ught C programming language to freshmen for semester Gave lectures and made assignments with one material on weekly basis Participated in study groups for web hacking and systems hacking
TECHNICAL SKILLS	Advanced C, Java, HTML, CSS, PHP, JavaScript, Query, Ajax, Moderate: C#, Perl, Assembly Language (x86-64), Android, Novice: C++
LANGUAGE PROFICIENCY	Fluent in English and Native in Kor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EFL: 104 (Reading: 14, Listening: 17, Speaking: 26, Writing: 26) IBT TOEFL: 114 (Reading: 28, Listening: 30, Speaking: 26, Writing: 30)
REFERENCES	Hakjoo Oh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Phone: +82-2-3200-6001 Email: hakjoo.oh@knu.ac.kr http://pc.knu.ac.kr
	Janggil Ch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Phone: +82-2-3200-6002 Email: jchoo@knu.ac.kr http://active.google.com/site/janggilchoo
	Hyeji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Phone: +82-2-3200-3030 Email: hlee@knu.ac.kr http://ccs.knu.ac.kr/people/hleej

나의 이력서(샘플) *

선택에 따라 넣거나 넣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항목이 이력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문 실적이나 특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기본적인 항목 외에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넣으면 된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 이름

이력서의 최상단, 정중앙에 위치하게 쓴다. 다 대문자로 쓰거나 각 부분의 첫 번째 알파벳만 대문자로 쓴다. 눈에 잘 들어오되 지나치게 크거나 튀지 않도록 적절한 폰트를 사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적는다. 주소는 적는 경우도 있고 적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을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연구 주제 및 관심사(Research Interests)

본인의 연구 관심사에 대한 키워드를 한 줄 이내에 들어오도록 서너 가지 정도를 나열한다. 취업용 이력서의 경우 요약(Summary)란으로 대체하고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하기도 한다.

❖ 학력(Education)

주로 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학력만 나열한다.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왔을 경우 이를 기재해도 좋고, 교환학생, 계절학기 등을 다른 학교에서 들었다면 그 학교들을 나열해도 좋다. 다만 시간의 역순으로 기재하고 다닌 기간 또는 졸업한 시점을 함께 기재한다. 졸업을 했다면 취득한 학위를 함께 쓰고, 원하는 경우 학점도 함께 기재한다.

❖ 경험(Professional Experience)

경험 칸은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데, 연구 경력(Research Experience), 가르친 경력(Teaching Experience), 일한 경력(Work Experience), 인턴십 경력(Internships) 등이 그 예이다.

❖ 수상 내역(Honors and Awards)

다양한 수상 내역과 장학금 수여 내역 등을 적는다. 마찬가지로 시간 역순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가장 상단에 위치시키고 여백으로 구분지어도 괜찮다. 수상 내역은 내용이 한글로 된 것이 많을 텐데 학교에서 받았을 경우 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영문명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논문(Publications)

게재한 논문이 있다면 적절한 인용(Reference)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자. 논문 파일 등을 하이퍼링크를 통해 첨부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다.

❖ 특허(Patents)

특허가 있다면 함께 기재한다.

❖ 교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동아리, 봉사활동, 공모전 등 교외 활동에 대해 기술한다. 지나치게 독립적인 내용보다는 지원하는 곳의 성격이나 특징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 기술(Technical Skills)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적는

다. 보통 숙련도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아주 능숙한지, 일반적인 수준인지, 초보자 수준인지 나누어서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능숙한 것부터 그렇지 않은 것 순으로 나열한다.

❖ **외국어(Language Proficiency)**

자신이 할 수 있는 외국어를 기재한다. 누구나 알 만한 공인 성적 (TOEFL, GRE 등)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도 좋다.

❖ **기타 사항(Others)**

위에서 기술한 것 외에 특별히 강조할 만한 사항을 적는다.

❖ **참조인(Reference)**

자신이 이력서에 기술한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과,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는다. 나는 세 추천인을 참조인으로 넣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이름과 직위, 소속, 연락처를 함께 포함한다.

❖ **최종 수정 날짜**

이력서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적는다.

기본 자료 준비하기

이력서는 제출하는 대상과 목적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위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하고 계획해보자.

❖ 이력서의 기본 항목들 채우기

가장 먼저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시간을 내서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이력들을 작성해보자. 이는 요리를 위해 재료를 갖추는 것과 같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일단 적어 내려가자.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빈칸으로 두자. 적다 보면 스스로 어떤 경험이 풍부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 찾기

다음으로 나의 이력서를 통해 강조할 세 가지 포인트를 잡는다. 이력서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요약된 정보지만,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을 선택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들은 1~2개월 동안 천 명이 넘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읽어야 한다는 상황을 고려하자. 한두 장 길이의 문서도 사실상 긴 편이며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공들여 읽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력서와 관련된 전략을 세울 때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최대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제대로 강조하여 입학사정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효과적으로 항목의 순서 정하기

마지막으로 이력서의 구성 요소의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항목들을 어떤 순서대로 보여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연관된 항목끼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 관련이 있는 내용끼리 묶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지만, 의외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읽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겠다는 짐작을 하며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자. 그리고 순서를 정할 때 위의 세 가지 포인트 외에도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력서의 형식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

위의 조언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나의 사례를 보자(우측 이력서).

내가 이력서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세 가지 포인트는 (1)박사과정을 위한 외부 장학금, (2)최우수 논문상, (3)다양한 수상 내역이었다. 이를 위해 외부 장학금(Doctoral Study Abroad Scholarship)과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하고, 수상 내역(Honors and Awards)을 학력(Education) 바로 다음에 위치시켰다. 이력서를 빠르게 훑어보면, 학력 다음으로 외부 장학금과 최우수 논문상을 중심으로 한 수상 내역이 눈에 들어온다.

대부분의 이력서에서 수상 내역은 이력서의 후반부에 위치시키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학력 바로 다음에 위치시켰다. 더 나아가 상위 두 개의 수상 내역의 이름을 굵은 기울임체로 강조했다. 이는 읽는 이에게 “오, 외부 장학금이 있네!”,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네?”로 시작해서 “(자세히 안 본 채로) 그

Mina Lee
<https://minalee.info>

INTERESTS	Program Synthesis, Computer-Aided Education, Software Security	
EDUCATION	Korea University <i>Undergraduate Student</i>	Mar. 2012 - Aug. 2016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Software Technology and Enterprise Program• Total GPA of 4.39 / 4.5 (98.7 / 10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Exchange Student</i>	Sept. 2014 - Apr. 2015 Vancouver, Canada
HONORS AND AWARDS	Doctoral Study Abroad Scholarship ,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awarded to qualified students to complete their doctorates, full tuition and stipend, 2017-2022 Best Paper Award ,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 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hip,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2015-2016 Semester High Honors, Korea University, 2012, 2013, 2015, 2016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Korea University, 2016 Scholarships for PLDI 2016, PLMW&PLDI, 2016 Dean's List, Korea University, 2015	

세 가지 포인트를 강조한 나의 이력서

외에도 수상 내역이 많네?”라는 의식의 흐름을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력서를 구성하고 작성하는 것의 장점은, 하나의 서류를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그 결과 같은 내용을 다른 서류에 반복적으로 언급 및 환기할 필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성취이므로 학업계획서와 추천서 등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보다, 그중 하나의 문서에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입학사정관 및 교수의 뇌리에 강력하게 남는다. ‘이민아’ 하면 ‘외부 장학금’과 ‘최우수 논문상’ 이런 식으로 무의식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력서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짧고 굵게 전달하여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작성하기

지금까지의 조언에 따라 이력서의 내용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떻게 보여줄지 계획했다면, 이제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을 실제로 작성해보자. 이때 주의할 점들도 함께 알아보자.

일단 미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레터(Letter) 용지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이력서도 마찬가지다. 기본 설정인 A4에 맞추어 이력서를 작성했다가 레터 용지로 바꾸면 틀어진 여백과 너비 때문에 다시 작업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므로 미리 조심하자.

❖ 간결하게 쓰기

이력서는 단순하고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정렬할 때에도 관련된 중요한 것부터, 시간 역순으로 나열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쓸 때에도 긴 줄글이 아니라, 목록으로 한 일을 나열하는 것이 선호된다. 심지어 한 문장도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문장 1), 동사로 시작하는(문장 2)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글이다.

Mina Lee https://minalee.info	
INTERESTS	Program Synthesis, Computer-Aided Education, Software Security
EDUCATION	Korea University Mar. 2012 - Aug. 2016 <i>Undergraduate Student</i>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Software Technology and Enterprise Program• Total GPA of 4.39 / 4.5 (98.7 / 10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ept. 2014 - Apr. 2015 <i>Exchange Student</i> Vancouver, Canada

RESEARCH
EXPERIENCE

Programming Research Laboratory, Korea University
Research Intern (Adviser: Professor Hakjoo Oh)

Nov. 2015 - Aug. 2016
Seoul, Korea

- Led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poster, and published paper based on work
- Participated in projects on program synthesis, static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 Program Synthesis: Synthesized simple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 Static Analysis: Reduced false alarms by selectively applying soundness to programs
 - Machine Learning: Learned feature programs from results of static analysis
- Gave poster presentation on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at SPLASH 2016

문장 1. “I led a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the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a poster, and published a paper based on the work.”

문장 2. “Led a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the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a poster, and published a paper based on the work.”

추가적으로 가독성을 위해 이력서에서는 관사를 생략해도 된다. 관사를 생략하라니? 이력서에 한해서 허용되는 특이한 점이다. 바로 가독성을 위해 관사를 모두 생략하는 것이다.

이력서는 경험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이에 충실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관사는 불필요하다(이러한 이유로 제목에서는 종종 관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제목도 이력서와 같이 의미가 전달된다면 문법의 정확도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2를 문장 3과 같이 쓸 수 있다. 단, 관사를 쓰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력서 전체에 걸쳐 생략해야 한다.

문장 2. “Led a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the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a poster, and published a paper based on the work.”

문장 3. “Led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poster, and published paper based on work.”

이는 관사에 약한 우리에게는 희소식이다. 관사를 틀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원어민들이 외국인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장 많이 느낄 때 중 하나가 관사의 사용에 미숙할 때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선택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다.

❖ 구체적, 정량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누군가가 이력서에 ‘가르치는 능력을 얻음(Learned teaching skills)’이라고 적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무엇을 통해 어떤 가르치는 능력을 얻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이력서를 간결하게 써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위와 같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저 말만 보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 CPSC 261 Basics of Computer Systems 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Covered basic C programming, assembly language (X86-64), pipelined CPU, caching, memory hierarchy, virtualization, processes and threads, file systems, and networking
- Ran laboratories for over 50 students twice a week, had office hours every week, answered questions in person and online, marked assignments, and proctored exams

구체적이며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위의 예시를 보자. 가르친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조교로서 어떤 업무를 마쳤는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물론 경험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서술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사소한 실수에 주의하기

이력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실수로 잘못 입력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오타자뿐만 아니라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한글명이 영어로 적절하게 번역되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부탁하자. 여러 분이 미처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Cheer Up!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느끼겠지만, 이력서를 뜯어 고치다 보면 고작 한두 장밖에 안 되는 서류 따위(?)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는 대신 꾸준히 고민하고 고쳐나가자.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훌륭한 이력서가 탄생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라

드디어 이력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은 일은 이력서를 프로페셔널하게 꾸미는 것이다. “꾸미다니? 나는 디자인에 소질이 없는데?”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꾸미기’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한 고급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한글이나 워드 등을 이용해서 각 요소의 형식을 조금 더 다듬고 정돈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인 글씨체나 굵기, 하이퍼링크, 가로선과 같은 것 말이다.

일관성을 부여하라

이력서는 그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심미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잊지 말자.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는 몇 개 되지 않는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이력서의 겉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의 인상이 첫인상에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이력서를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일관성이다. 사실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일관성은 중요하다. 같은 성질을 가진 글자에 대해서는 같은 글자 속성을 적용하고 같은 형식을 가진 내용은 같은 문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EDUCATION	Korea University <i>Undergraduate Studen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Bachelor of Engineering in Software Technology and Enterprise Program • Total GPA of 4.39 / 4.5 (98.7 / 100) 	Mar. 2012 - Aug. 2016 Seoul, Kore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Exchange Student</i>	Sept. 2014 - Apr. 2015 Vancouver, Canada

학력에 대한 부분으로, 두 학교에 대한 내용이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다. 이때 두 학교의 이름이 똑같이 굵게 표현되고, 직위가 기울임체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재학 기간과 학교가 위치한 도시와 국가가 우측에 표시된 형식도 동일하다.

학위를 받은 전공을 함께 굵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나는 학사학위를 받은 학교와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있었던 학교를 강조하고자 학교명만 굵게 설정했다. 영어권 국가에서의 재학 경험이 나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RESEARCH EXPERIENCE	Programming Research Laboratory , Korea University <i>Research Intern (Adviser: Professor Hakjoo Oh)</i>	Nov. 2015 - Aug. 2016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poster, and published paper based on work • Participated in projects on program synthesis, static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gram Synthesis: Synthesized simple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Static Analysis: Reduced false alarms by selectively applying soundness to programs Machine Learning: Learned feature programs from results of static analysis • Gave poster presentation on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at SPLASH 2016 	
TEACHING	Basics of Computer Systems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Teaching Assistant</i>	Jan. 2015 - Apr. 2015 Vancouver,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SC 261 Basics of Computer Systems 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Covered basic C programming, assembly language (X86-64), pipelined CPU, caching, memory hierarchy, virtualization, processes and threads, file systems, and networking • Ran laboratories for over 50 students twice a week, had office hours every week, answered questions in person and online, marked assignments, and proctored exams 	

또 다른 예로 연구 경험과 가르친 경험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자. 이 경우 일한 연구실의 이름과 가르친 과목명을 굵게 표시했고, 각각의 학교를 첫 줄에 함께 표기했다. 두 번째 줄에는 앞서 학력 사항을 기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위를 기울임체로 표시했다. 우측에는 기간과 위치를 명시했다. 비록 내용의 범주는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일관성 있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항목을 읽고 나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디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스타일을 덧입혀라

두 번째로 이력서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글씨체와 줄 간격, 여백, 목록 등의 스타일이다. 사실 이는 가독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던 서도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독성을 당연히 중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독성만을 중시하는 디자인은 지양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전공별로 추구하는 이력서의 스타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전공, 사람마다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력서의 스타일이 존재한다. 일례로 가독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며 글씨를 크게 설정하고 줄 간격과 여백을 크게 두었던 나의 예전 이력서를 보고 한 교수가 “너무 아마추어 같다”라는 피드백을 줬다.

당연히 처음에는 공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전 버전의 이력서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여러 교수 및 학생의 이력서를 참고하니 무엇을 고쳐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이력서는 정말로 아마추어 같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력서를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분명 훨씬 나은 이력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일부러 가독성을 포기하는 디자인을 택할 수도 있다. 아래는 나의 이력서에 있는 수상 내역으로, 일부러 처음의 두 항목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단순 나열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줄 간격과

<p>HONORS AND AWARDS</p>	<p><i>Doctoral Study Abroad Scholarship</i>,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awarded to qualified students to complete their doctorates, full tuition and stipend, 2017-2022</p> <p><i>Best Paper Award</i>,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p> <p>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hip,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2015-2016</p> <p>Semester High Honors, Korea University, 2012, 2013, 2015, 2016</p> <p>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Korea University, 2016</p> <p>Scholarship for PLDI 2016, PLMW@PLDI, 2016</p> <p>Dean's List, Korea University, 2015</p> <p>Venture Internship Program Scholarships, Korea University, 2013</p> <p>Honors Scholarships, Korea University, 2013</p> <p>Collegiate Honors, Korea University, 2013</p> <p>Best Honors Scholarships, Korea University, 2012</p> <p>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for Freshmen, Korea University, 2012</p>
--------------------------	---

여백, 목록 스타일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뻣뻣하고 가득 찬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일관성을 지키며 모든 항목을 수상 내역, 기관명(자세한 설명), 날짜 순서대로 나열했다.

센스를 발휘하라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독자를 배려하는 센스이다. 이력서는 친절한 문서가 아니다. 굉장히 딱딱한 사실의 나열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의 이력서를 읽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매끄럽게 읽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이력서지만,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시선을 주도록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PUBLICATIONS [Mina Lee, Sunbeom So, and Hakjoo Oh. 2016.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for introductory automata assignments. In *Proceedings of the 2016 ACM SIGPL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 \[pdf\]\[demo\]\[code\]](#)

가령 이력서의 논문 실적에는 저자 이름, 제목과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그리고 인용 시 따라 붙는 몇 가지 부가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때 논문 옆에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와 데모 페이지의 링크, 오픈소스 코드의 링크 등을 추가한다면? 그럴 경우 독자가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손쉽게 관련 정보를 가장 정확한 출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단순히 논문 제목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해볼 수 있는 것이다.

Mina Lee https://minalee.info	
INTERESTS	Program Synthesis, Computer-Aided Education, Software Security
EDUCATION	Korea University <i>Undergraduate Student</i>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Bachelor of Engineering in Software Technology and Enterprise Program ● Total GPA of 4.39 / 4.5 (98.7 / 100)
	Mar. 2012 - Aug. 2016 Seoul, Korea

또한 나는 이름 밑에 일반적으로 넣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대신 홈페이지 주소를 넣었다. 대학원 지원 서류에 포함되는 이력서의 경우 학생의 이메일,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온라인 지원서에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내가 가진 남들과의 차별성인 홈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의 이력서를 보다 지친 입학사정관이 잠깐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쉴 수 있도록 말이다.

Cheer Up!



이번 장에서 말한 요소들은 조언이나 팁에 더 가깝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력서를 작성했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의 세심함과 전문성에 크게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를 살펴보자.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전보다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입학사정관과 교수도 똑같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스타일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지 보이기 때문이다.

What we dwell on is who we become.

- Oprah Winfrey

Chapter 5

학업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Step1 파악하기

학업계획서가 판도를 뒤집는다

학업계획서는 무엇일까? 학업계획서는 왜 중요한가? 좋은 학업계획서를 만드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미국 대학원 지원 서류 중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자.

학업계획서(Statement of Purpose)가 뭐지?

Statement of Purpose* 라는 서류는 미국에서조차 그 이름의 애매모호함

* Statement of Purpose 외에도 Statement of Objectives, Statement 등으로 불리며 때에 따라 Personal Statement와 혼용되기도 한다. 실제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작성하기를 요구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실 학업계획서라는 말조차도 잘 와닿지 않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학업계획서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학업계획서랍시고 쓴 것이 나중에 읽어보니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였던 적도 있다.*

학업계획서 ≠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는 다르다. 자기소개서는 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를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는 글이다. 이때는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동기와 이야기가 주가 되어도 괜찮다.

학업계획서는 연구에 대한, 연구만을 위한 글이다. 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 이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 학위를 마친 뒤 목표 등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왜 이 학교에 지원하는지, 해당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학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구했고 앞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

* 학업계획서는 미국 대학원 지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학교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문 견본(Writing Sample)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형식과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글쓰기이므로 여기서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업계획서에 대해서만 다룬다.

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달리) 학업계획서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기더라도 연구에 대한 나의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내가 미국 대학원을 방문했을 때 내가 지원한 학교의 교수가 나의 학업계획서를 지금까지 읽어본 수많은 학업계획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라고 칭찬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부분 학생의 학업계획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럴 때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다.

나의 학업계획서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 얘기로만 가득하다. 각 파트마다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것도 연구 경험(Research Experience), 연구 관심사(Research Interests), 결론(Conclusion)이다. 솔직히 문학적 글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진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나는 학업계획서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이것이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학업계획서로부터 기대하는 바라는 것이다.

학업계획서는 기회다

학업계획서는 모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다. 어떻게 보면 슬프게도 우리가 지원에 필요한 요소 중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특히 지원 마감일에 근접할수록 학점도, 영어 성적도, 이

력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계획서는 지원 전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이자 기회이다. 구체적으로 학업계획서가 미국 대학원 지원에서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자.

❖ **학업계획서는 개인의 연구에 대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다**

학업계획서는 이력서, 추천서 등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연구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서류다. 가령,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으며, 자신이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무엇을 배웠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박사과정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다. 학업계획서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서류다.

❖ **학업계획서는 지원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학점, 영어 성적, 연구 실적 등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서술할 수 있다. 일부 학교는 아예 공식적으로 학업계획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으라고 지시한다. 나의 경우 내가 선택한 세부 전공과 관련된 기초과목을 학부에서 많이 듣지 못했다. 따라서 졸업 후에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했고, 이런 내용을 학업계획서에 한두 줄 정도로 적었다. 한두 줄이 무슨 큰 차이를 불러오나 싶을 수도 있

지만, 이러한 부분에 의문을 품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있다면 그 한두 줄이 가져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 **학업계획서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주관적인 문서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학업계획서는 지원자의 성격과 스타일, 개성이 강하게 묻어나오는 서류다. 그 내용과 전개 방법, 문장력, 그리고 문단을 나누고 문서의 형식을 정의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본론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 편의 짧은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입학사정관들은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에서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다.

Cheer Up!



한두 장의 짧은 글에 불과한 학업계획서이지만, 이것은 전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다. 자신의 연구 역량을 어필하고, 보완점을 장점으로 바꿈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인 탓이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말자. 이 책의 조언을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강력한 학업계획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Step2 준비하기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힘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온다

많은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학업계획서를 무턱대고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백지에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갑자기 제대로 된 글이 나오기도 힘들다. 한두 페이지의 학업계획서를 ‘대충’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글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다.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학업계획서를 쓰고 싶다.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설득력 있고, 자신이 해온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는 글을 쓰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쁘지 않다”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나도 앞서 말한 많은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빠르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학업계획서 작성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업계획서가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무작정 한 사람의 학업계획서를 따라서 썼다.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내 것으로 바꾸어 쓰고, 경험을 내 이야기로 바꾸어 쓰니 한 편의 글이 완성되었다.

이후 수많은 피드백을 거치며 학업계획서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겉보기엔 그럴 듯했다. 학업계획서다운 모습과 구성을 갖추고 있었고, 읽어봐도 내용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피드백을 주었다. 딱 그 정도였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한 학업계획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고쳐도, 고쳐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 학업계획서를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한참을 그런 상태에서 학업계획서를 붙잡고 씨름하던 도중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힘은 결국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나는 왜 박사과정을 밟고자 하는가?”이다.

나는 왜 박사과정을 밟고자 하는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 질문을 마주했을 때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학업계획서에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왜 박사과정을 밟고자 하는지, 왜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학업계획서

는 왜 내가 박사과정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글인데 정작 내가 그 답을 모르고 있으니 글이 제대로 써질 리가 없었다.

나는 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선택했는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나의 생각과 소신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이루어진 활자로부터 상대방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 이것을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서야 깨달았다.

진지하게 되묻고 솔직하게 대답하자

학업계획서 작성은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답은 바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되묻고 고민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 나는 왜 박사과정을 밟고자 하는가?
- 박사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 왜 현재 연구 분야를 선택했는가?
- 무엇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가?
-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자. 이 순간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만약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무엇에 대해 써야 할까?” 또는 “쓸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학업계획서는 결국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반드시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다. 이런 노력은 헛되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자.

Cheer Up!



충분히 고민하자. 정말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학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유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고민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자. 근본적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학업계획서는 그저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학업계획서, 이렇게 써라

드디어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차례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다면 학업계획서 작성은 결코 어렵지 않다. 본인의 신념이 확고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써도 된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저절로 드러날 테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학업계획서의 내용을 고민 중일 많은 사람들과 영어로 된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학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주제 선정

학업계획서에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이 주제는 반드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업계획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이런 주제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와 연구실에 따라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업계획서를 계획하고 작성해나카며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해야 한다.

개요 잡기

학업계획서의 주제를 정했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전체 개요를 잡아나간다. 개요를 잡을 때는 각 문단이 앞서 정한 주제를 뒷받침하며 여러분의 장점과 경험들을 잘 드러내도록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학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5~6문단 정도로 이루어진다.



학업계획서의 구성

❖ 도입부

짧고 간략하게 작성한다. 보통 자기소개와 연구 관심사를 밝힘으로써 어떤 교수가 나의 학업계획서를 읽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도입부에 훅(Hook)을 넣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유혹하는 것”으로 번역*되는데 시선을 끄는 인용구, 경험담 등을 실음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도입부에 훅을 넣는 것은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잘 넣을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순식간에 여러분의 학업계획서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진부한 말로 한 문단을 낭비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자신이 박사과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라거나, 학업계획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용구 또는 주제 문장이라거나, 누가 봐도 재미있고 인상 깊을 만한 사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면, 훅을 넣으려는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간단하게 내 소개와 관심사를 밝히는 정도로 도입부를 마무리했다.

❖ 연구 경험

주로 교수가 읽는 부분으로 자신이 해온 연구와 그 의미, 수행한 업무, 배운 점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다. 도입부는 비전문공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

* 능률영어사전 'Hook' (<http://www.et-house.com/>)

체적인 전공 분야 내용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때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과, 얼마나 중요한 연구를 해왔는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 그 외 관련된 경험

선택적으로 적는 부분으로 연구 경험이 많다면 생략해도 괜찮다. 만약 연구 경험이 부족하거나 연구가 아닌 다른 경험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한다. 단, 주제에 맞게 이 경험이 어떻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연구 분야에 대해서 풍부하고 깊이 있게 서술한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중요시하고, 박사과정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드러내야 한다. 전공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와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

각 학교별로 맞추어서 작성하는 부분으로, 왜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지를 서술한다. 이것은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아주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다. 그들은 자신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가득한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단이

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만 더 이 문단에 정성을 들여서 왜 이 학교가 나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어필하도록 하자.

이 문단에서 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를 언급한다. 보통 2~3명의 교수와 그들의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짧게 언급하는데, 이는 한 명의 교수만 언급했을 때 그 교수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불합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작성할 때는 짧게 적자면 교수의 이름만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길게 적자면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묘사하는 등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계획서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서류이므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길게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함께 일하고 싶은 교수와 연구 주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마지막 문단뿐만이 아니라) 학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표현하는 것이 좋다. 관심 있는 교수의 현재 프로젝트 및 연구 방향을 나의 능력 및 연구 관심사와 비교하여 파악한 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했을 때 예상되는 퍼포먼스는 어떤 것인지 등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다.

앞서 소개한 학업계획서에서 답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학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자. 각각의 문단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 전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계획하자. 이것을 바탕으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탄탄한 구성의 논리적인 글이 완성된다.

작성하기

개요가 완성되고 각 문단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정해졌다면 글을 쓰기 시작하자. 지금부터는 학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주의할 점을 소개한다.

❖ 연구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한다

학업계획서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연구에 대해서 서술해야 하며,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두괄식으로 쓰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디테일을 전달하는 흐름이 좋다. 각 문단의 첫 문장이 그 문단을 요약하는 주제 문장이 되도록 작성하며, 문장은 되도록 짧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앞서 잡은 주제와 모든 내용이 연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적극성을 드러내자

글 전체에 걸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상 예의바르고 겸손하게 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인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원은 누가 시켜서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다.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찾아나섰다는 인상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잡초 정신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자.

❖ 지나친 자신감은 지양하자

자신감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치게 충만한 나머지 “나는 어떤 분야에 정통하다”라는 식으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탄탄한 이론적 근거가 받쳐주거나, 정말 경험이 많지 않은 한 신빙성과 신뢰성을 얻어내기 힘들다. 본인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면 스스로 되물어보자. 내일 당장 인터뷰를 한다면 정통하다고 한 분야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톤을 조절해야 한다.

❖ 쉬운 영어 표현을 사용하자

마지막으로, 쉬운 영어를 쓰자. 굳이 어려운 단어나 표현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역효과만 날 것이다. 유려한 영어 실력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학업계획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Cheer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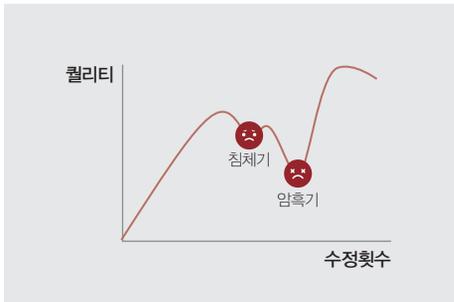


훌륭한 학업계획서를 쓰려면 최대한 일찍 시작해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 최대한 여러 번 퇴고해야 한다. 차별화를 시도하되 무리해서 어렵게 쓰기보다 편한 어휘와 표현들로 쉽게 쓰자. 사전에 교수와 연락해서 학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교수, 연구실, 학교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다면 베스트다.

현재 학업계획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십 번 반복적으로 고치다 보면 발전 곡선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음을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는 고치는 족족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며 빠르게 나아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댈수록 나빠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발전이 더딘 순간이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고쳐도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재 상태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고, 또 읽은 다음 다시 고치면 이전의 상태보다 도리어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암흑기에 접어든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손대야 할지, 아예 새롭게 다시 써야 할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종이 찢가리 한두 장을 붙잡고 영겁의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괴



학업계획서의 반복적인 수정에 따른 발전 곡선

로워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시기는 학업계획서를 정성을 다해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학업계획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볼 타이밍

인 것이다. 학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구했고 앞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학업계획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할 때, 혹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팁을 드린다.

학업계획서 작성 초기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백지를 앞에 두고 느꼈던 그 막막한 감정이 기억나는가?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왜 박사과정을 밟고자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 분야로 이끌었는가?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대답이 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전의 대답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면, 그러한 내용이 학업계획서의 전반에 걸쳐 잘 드러나는지 확인하자. 만약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공부를 하며 작성하자

학부과정을 마쳤든, 석사과정을 마쳤든, 직장 생활을 했던 간에 우리는 아는 것이 부족하고 더 배우고 나아가기 위해 박사과정에 지원한다. 이러한 사실을 입학사정관들도 알고 교수들도 안다. 우리가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왔고,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학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막히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관심 분야를 공부하자. 이것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 의외의 곳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연히 읽은 논문에서 학업계획서에 넣을 만한 연구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고민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믿자

학업계획서는 단순한 경험들의 나열이 아니다. 학업계획서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분의 통찰력과 비전을 담고 있으며, 왜 해당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수정을 거듭해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결코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 학업계획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아지고, 더욱더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합격생의 학업계획서와 교수의 연구계획서를 참고하자

적극적으로 선배들의 학업계획서를 참고하자. 우리보다 앞서서 박사 과정 지원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학업계획서를 읽다 보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얻음과 동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내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미국 명문대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업 계획서였다. 원어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 쓴 학업계획서’란 어떤 것인지, 미국 명문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들이 인터넷에 공유한 학업계획서를 보며 파악해나갔다.

관심 있는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구계획서를 공개했다면 이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5년, 10년,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보며 작성한 연구계획서에는 교수의 관심사와 비전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이를 참고해서 학업계획서를 쓴다면 한 층 더 깊이 있는 전공 내용을 다룰 수 있을 뿐더러 교수의 관심을 끌 만한 소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학업계획서들을 읽다 보면, “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네!”, “이 문장은 나도 써먹을 수 있겠는데?”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 자신의 기억력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표현과 문장들을 메모해두었다가 참고하자.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단어와 표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일부러 어려운 영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항상 조금 더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단어와 표현의 반복을 피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러한 조언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갈고
뒹아야 한다. 조금해하지 말자. 좋은 글은 결코 한 번에 써지지 않는
법이다!

다양한 사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 번 수정하라

앞서 나는 학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들여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서 '최소'라는 단어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나의 학업계획서 작성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업계획서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고자 한다.

100번 이상의 퇴고

나는 결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학업계획서와 같이 목적성이 뚜렷하면서 요약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필력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합격한 미국 명문 대학원의 교수로부터 가장

잘 쓴 학업계획서 중 하나라는 과분한 칭찬을 받았다.

내가 학업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했던 것은 9월 중순이었다. 학업계획서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는 원서 접수 마감일인 12월 15일로 약 3개월 동안 학업계획서를 작성한 셈이다. 그 기간 동안 작성한 학업계획서를 버전별로 다르게 저장해두었는데, 파일 수가 80개를 훌쩍 넘는다. 그마저도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워드가 아닌 LaTeX*라는 조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따로 저장해두지 않았으니, 자잘하게 수정한 것까지 합치면 100번 이상의 퇴고를 거친 셈이다.

100번 이상의 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 훌륭한 학업계획서를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최대한 일찍 시작해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퇴고를 거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사실은 지금을 위해 기다렸다.) 그것은 바로 퇴고할 때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이다.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

피드백을 받는 것은 게으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학업계획서 작성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칫하면 역효과를 가져와

* LaTeX는 한글, 워드와 같이 문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논문이나 출판물 등 특수 형식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이며, 프로그래밍을 하듯 글을 작성하면 문서가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수식 입력이 편하고 표·그림 등의 번호 매임이 용이하며, 자주 쓰는 타이핑 양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한정 늘어지기 쉽다. 정답 없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글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다. 특히 어느 정도 글이 완성되고 학업계획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할 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일해질 확률이 높다.

100번의 수정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내가 생각하기에 학업계획서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피드백을 요청했다. 지난 번 지적 당했던 부분을 고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재배치하는 등의 큰 변화도 있었지만 단어나 표현을 바꾸는 것과 같은 자잘한 변화도 있었다.

피드백을 요청하면 상대방도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업계획서를 수정한다. 당연히 어느 정도 수정이 끝난 상태에서 피드백을 요청하므로 크게 변화를 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럴 땐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게 학업계획서와 관련해서 물어볼 구체적인 질문들을 정리해 두거나 다른 사람들의 학업계획서를 읽으며 어떤 식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 물론 더 이상 학업계획서가 볼 보기 싫어서 피드백을 요청해놓고 늘어졌던 적도 있었다. 이때는 정말 머릿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피드백이 오면 순수한 호기심에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된다. 학업계획서의 반복되는 수정에 아무리 지치고 신물이 나 있더라도 내 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나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업계획서로 돌아오게 된다. 상

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동의하면서, 다시 원래의 궤도인 학업계획서 작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학업계획서의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혼자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것을 모두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착각해 생략하고 쓰거나, 반대로 모두가 아는 부분을 지나치게 자세히 쓸 수 있다. 그러나 학업계획서는 일기가 아니다. 남의 기준에서 볼 때 요점 파악이 수월하고, 하나의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은 학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독자를 고려하는 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 외에도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전공이 같은 사람에게 피드백을 부탁했다면 언급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함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학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실용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며, 지원하는 학교가 같다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할까?

피드백이 필요한 것은 알겠다. 그러나 과연 어느 성인군자가 매년 나의 학업계획서를 읽고 양질의 의견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읽기에도 지루한데 말이다.) 따라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요

량이 필요하다. 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주변에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런 모임을 두세 개 정도 가지게 되면 개개인을 지나치게 괴롭히지 않아도 꾸준히 학업계획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부탁하자. 단, 주의할 점은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부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을 연속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번갈아 구하는 것이 학업계획서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 또는 함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게 된다. 영어 학원을 다녔다면 함께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도 좋은 대상이다. 주변에 이런 커뮤니티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

학업계획서가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들어서면 같은 전공을 가진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원어민에게 각각 적어도 한 번씩은 검토받기를 권장한다. 미리 경고하건대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학업계획서가 180도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는 피드백은 친구들에게서 받는 피드백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친구들은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학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에 관련된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비전공자가 보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도록 작성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전공 내용에 대한 서술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원어민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강력하게 권한다. 학업계획서와 같이 중요한 서류에 실수가 있으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정성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해서 오타자가 없더라도, 단어나 문장의 사용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원어민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관사의 오용도 마찬가지다.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았기에 하나의 글로서의 완성도와 매끄러운 흐름을 판별하는 데도 원어민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된다.

무조건 교정 업체에 학업계획서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잘못된 업체를 선택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학업계획서를 받아볼 수도 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던 원어민 교수, 교환학생을 가서 사귀 친구들, 친구의 친구 등 주변에서 피드백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정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그만큼 학업계획서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Cheer Up!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고 또 반대로 도와주자. 수많은 고민의 시간과 퇴고를 거쳐서 후회 없는 학업계획서를 완성하자.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고될지 모르나, 이런 과정 끝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Living in the moment brings you
a sense of reverence for all of life's blessings.

- Oprah Winfrey

Chapter 6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다

처음에 나는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문서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좋은 추천서인지, 어떻게 하면 강력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1학년 때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받아 보고 나서 굉장히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번 보지도 못한 학생의 추천서를 써야 했으니 교수님도 적잖이 곤란했을 터다. 돌이켜보면 추천서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말이다.

* 이번 장에서는 '교수'와 '교수님'이란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추천서는 지원자의 서류 중 가장 먼저 읽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서는 중요하다. 미국 대학원 지원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입학사정관들 역시 지원자의 서류 중에서 추천서를 가장 먼저 읽는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보다 남들이 보는 여러분’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더 객관적이고, 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본 경험자 또는 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평가이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을 때 경험하게 될 미래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세 명의 추천인으로부터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추천인은 교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직장 상사에게 받기도 한다. 이때 추천인 3명 중 2명 이상은 교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두자.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시 추천인의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이메일로 추천서를 등록할 수 있는 링크가 전송된다. 또한 추천인을 등록할 때, 추천서를 열람할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체크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추천인과 학생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추천서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추천서가 중요한 네 가지 이유

구체적으로 추천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기본적인 평가 지표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를 학점과 영어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각도에서 지원자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며, 잠재된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한다. 그런 면에서 추천서만큼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 게다가 추천서는 숨기고 싶던 여러분의 단점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입학사정관이 간절하게 찾는 것이 아닐까?

※ 적합한 평가자

입학사정관들도 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서류를 검토하고 들여다본다 해도 직접 여러분을 알고 지내온 사람만큼 여러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추천서는 더더욱 적합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이고, 그만큼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천인이 교수라면 다양한 학생을 지도해왔을 것이다. 비교는 자칫하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인다면 여

* How Important are Letters of Recommendation for Graduate School Applications? (<http://www.gradschoolhub.com/faqs/how-important-are-letters-of-recommendation-for-graduate-school-applications/>)

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지 비교우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검증된 사람의 평가

아무리 본인의 연구 역량의 우수성에 대해 설득하려 해도 여러분은 아직 학생일 뿐이다. 학생이 학생을 평가하는 꼴인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연구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 당신의 가능성

추천서는 다른 서류들과 달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현재의 이러한 성향과 역량으로 비추어봤을 때, 장래에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학원 입시라는 것이 이 학생이 대학원에 와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가능성과 재능에 대해 서술하는 한두 페이지의 추천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을 마케팅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서를 우선적으로 본다. 짐작컨대 학생의 추천서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의 다른 서류들도 살펴볼 것인지, 바로 불합격시킬 것인지 여부를 빠르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좋은 추천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박사과정에 있어서 출신 대학은 지원자의 기본 실력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지원자의 연구 경험을 잘 서술하는 추천서가 학생의 출신 대학보다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력한 추천서는 여러분을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다. 출신 대학, 학점, 영어 성적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요소들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여러분의 TOEFL의 말하기 영역과 글쓰기 영역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다고 가정하자. 수업시간에 영어로 진행한 발표 및 영문 보고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추천서를 통해 이를 강조할 수 있다. 이것은 TOEFL 시험에 특화된 말하기와 글쓰기는 잘못하더라도, 실제 학업을 위한 소통에는 문제가 없음을, 아니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학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추천서는 단점을 만회하고, 이력서,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에서 직접적으로 알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추천인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빠르게 부탁해야 한다

추천인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빠르게 부탁해야 한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여러분을 우수한 지원자로 만들어 줄 강력한 추천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유타 대학 교수인 맷 마이트는 “교수에게 추천서 작성을 부탁할 때, 단순히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지 묻지 마라. 강력한 추천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 HOWTO: Get into grad school for science, engineering, math and computer science (<http://matt.might.net/articles/how-to-apply-and-get-in-to-graduate-school-in-science-mathematics-engineering-or-computer-science/>)

최고의 추천인을 찾아라

추천인을 찾는 과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날에 대해 회의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추천서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하면서 말이다. 반대로 열심히 살아오며 교수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자부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 되었든 자신을 위한 최고의 추천인을 찾아야 한다.

나쁜 추천서는 받지 않는 편이 낫다.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시킬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불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맷 마이트 교수의 조언처럼 처음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천서의 퀄리티는

나와 추천인 간의 관계의 깊이와 정비례한다

사실 우리는 부탁하는 대상이 강력한 추천서를 써줄 것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추천서의 퀄리티는 나와 추천인 간의 관계의 깊이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천인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다면 추천서의 내용도 그만큼 자세해지며 여러분의 다양한 장점들을 짚어줄 수 있다.

즉, 강력한 추천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천인과 긴밀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관계는 하루 이틀 만에 쌓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유학 준비는 끝도 없지만 시작도 없다고 말하

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유학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부터 교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추천인을 정했다면 신속하게 부탁하라

추천서는 절대 원서 접수 마감일에 근접해서 부탁하면 안 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원 전 여름 방학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여름 방학이 되면 교수들도 비교적 여유가 생기므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이른 시기에 부탁하면 잊히거나 관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너무 늦어지면 다음과 같은 위험 부담이 발생한다.

❖ 여러 명의 추천서를 써주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한 학기에 여러 학생이 동시에 추천서 작성을 부탁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보다 먼저 추천서를 부탁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의 경우, 다른 학생들도 그 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싶어 할 확률이 높다. 이때, 교수의 입장에서 여러 학생의 추천서를 써주기 곤란할 수 있다. 바빠서 쓸 여력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로는 한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딱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M 교수가 학생 A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추천서를 썼다. 그러면 그다음 학생 B에 대해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쓸 수 있을까? 물론 '가장'이란 말을 빼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다음 학생 C에 대해서는 뭐라고 서술할 수 있을까? 세 명의 학생 모두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일지 모른다. 하지만 추천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추천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소수의 학생에게 양질의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따라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이 너무 늦어지면 이미 추천서를 써주어야 할 학생들이 있어서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부탁해야 한다.

❖ **관계를 진전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교수도 사람이다. 결국 자신과 친하고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보다 좋은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미리 추천서에 대해 상의하고,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학생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줄 확률이 높다.

만약 추천서 부탁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면, 이것과 정반대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도, 인사도 없던 학생이 불쑥 나타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한다. 수업시간에 성적은 그럭저럭 받았지만 그런 학생이 한둘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몇 안 되는 A+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교수의 입장에서 A+ 받는 학생들은 수두룩하다. 그 외에는 학생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무엇을 하는 학생인지, 무엇을 잘하는 학생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한다면? 좋게 보고 싶어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추천서를 써준다 해도 좋은 추천서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 만약의 경우 다른 추천인을 찾을 여유가 없다

추천서 부탁이 늦어졌는데 만약 추천서를 부탁한 교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출장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추천인을 찾을 여유가 없게 된다. 급하게 다른 추천인을 찾았다 해도, 시간에 쫓기며 쓴 추천서는 겉은 그럴 듯해 보일 수 있으나 내용은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바쁜 교수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리 부탁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천인은 신중하게 선택하되, 빠르게 부탁하라고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추천서와 관련된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강력한 추천서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연구, 학업, 성격 등

다양한 장점을 강조하는 추천서를 받아라

사람들이 대학원 입학 전략을 세울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추천서다. 타인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이다 보니 크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탓이다. 그렇지만 분명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있다. 단순히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것 이상으로 나의 다양한 강점을 골고루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명의 추천인이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추천서는 보통 3개다. 이때 세 명의 추천인이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해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여러분의 다양한 강

점을 세 개의 추천서에 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명은 연구 능력에 대해, 한 명은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대해, 다른 한 명은 성격 및 교외활동에 관해서 서술하는 식이다.

물론 세 명이 모두 여러분의 뛰어난 연구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도 좋다. 만약 그들과 각기 다른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시기에 함께 해 여러분의 변화하는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면 말이다. 핵심은 보다 다양한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난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제한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세 개의 추천서 모두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각도에서 장점을 살려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번 장에서는 추천서를 통해 나의 다양한 강점들을 살리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나의 추천서 구성 전략

나는 추천서 세 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다.

- **연구:**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성과로 증명되는 연구 역량
- **학업:** 수업에서 돋보이는 타 학생 대비 우수한 성취도 및 적극성
- **성격:** 교과 외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원만한 성격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어지는 발전 과정

이렇게 쓰는 것이 나도 오글거리고 부끄럽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 글을 만약에라도 나의 추천인들이 볼 것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앞으로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 지금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의 추천서를 써주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타인의 추천서를 써주게 될지 모른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추천서를 위한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검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연구, 학업, 성격의 특징점을 부각하라

나는 추천서를 의뢰할 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강점을 강조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교수님께 해당 내용의 추천서를 부탁드렸는지 살펴보자.

❖ 연구와 관련된 장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라

첫 번째 추천서의 경우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계획했다. 특히 나의 부족한 연구 경험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연구 경험이나 아직 미숙한 연구 역량에 대해 기술하기보다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문 실적과 수상 내역을 언급하고,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을 이루어냈는지 말함으로써 나의 실력보다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

이런 내용의 추천서는 함께 연구를 진행한 지도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연구를 함께한 교수님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가장 강력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연구한 경험이 없거나 함께 연구한 교수가 추천인이 되기를 거부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작은 프로젝트라도 진행하고 연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추천서를 받도록 하자. 이는 추천서가 보여줘야 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강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학업상의 강점을 드러내라

두 번째로는 학업에 관련된 나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추천서를 받고자 했다. 연구 경험이 많지 않다면, 특히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학업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 학과 수업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학사정관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추천서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4년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단순히 학점이라는 숫자가 아닌) 보다 인간적인 면들을 통해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학업에 대해 강조하더라도 연구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가령 연구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분은 출석, 시험 성적 등이 될 것이다. 그에 비해 연구와 관련이 높은 것은 수업에서 진행한 개인 프로젝트, 포스터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이 될 것이다. 조금 감이 오는가? 단순히 이 학생이 출석을 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서 A+를 받았다고 묘사하는 추천서는 입학사정관들의 입

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수업 과제로 나간 개인 프로젝트에서 대학원생 수준의 심도 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는 남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중요한 강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천서는 내가 1등을 했던 수업의 교수님께 받았다. 여러 번 질문을 드리러 찾아뵙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화를 나누다가 미국 대학원 유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나의 부족했던 보고서를 좋게 보시고, 유학의 길을 소개해주신 것이다. 비록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이후 지원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셨다.

❖ 연구와 공부 외의 장점도 어필하자

마지막으로 성격에 대한 추천서이다. 이 또한 개인적으로는 연구와 학업에 관련된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성격에 대한 장점을 학생의 다양한 면모를 통해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이 연구와 공부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다.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 인간관계와 자기관리로 귀결된다. 이러한 기초가 튼튼하고 바르게 확립되어 있을 때 연구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격에 대한 추천서도 충분히 내가 좋은 연구자가 될 것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천서는 나를 입학할 때부터 졸업한 이후까지 알고 지낸 교수님께 부탁드렸다. 이 교수님은 1학년 때 들어간 과동아리의 지도교수님으로서 처음 뵈게 되었다. 매 학기 개강, 종강 때마다 있었던 총회를 통해 교수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선택한 연계전공의 교수님으로서도 여러 번 뵈었으며, 매년 스승의 날마다 찾아뵈거나 여의치 못한 경우 이메일로라도 인사를 드렸다. 학교에서도 마주칠 때마다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교수님과 마주친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물론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에도 자주 찾아뵈고 질문을 드렸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켜보신 교수님이기에 추천서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수님이 나의 성공만 봐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원했다가 떨어진 인턴십과 연구 과제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다. 이력서는 성사된 나의 성공 스토리만을 담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실패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셨다. 따라서 더더욱 추천인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도전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대체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추천서는 결국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인데... 직접 추천인에게 이런 내용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 할까? 그렇다면 해도 결국 무슨 내용의 추천서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장인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싶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부탁하라!>를 살펴보자.

Cheer Up!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를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자 노력한다면,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강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나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좋은 추천서의 밑바탕이 되는 여러분만의 장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서의 내용을 형성해나가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싶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탁하라!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기 전에, 추천인에게 있어서 추천서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추천서를 쓰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추천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우수하며, 왜 지원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인지 어필하고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객관식, 주관식 질문에도 일일이 답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추천서를 부탁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추천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청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후배에 대해 추천서를 써야 한다면? 후배의 인생

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 후배에 대해 과연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어떠한 논리로 후배가 좋은 대학원생이라는 것, 그리고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겠는가? 이처럼 추천서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수한 학생의 추천서를 쓰는 것은 분명 즐겁고 보람찬 일일 것이다. 자신이 추천한 학생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신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학생이 저평가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본인이 쓴 추천서의 신뢰도도 낮아진다.

대부분의 추천인들은 굉장히 바쁘다. 그들에게는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때 추천서를 부탁하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현재의 위치에 올랐기에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추천서를 쓴다. 또 우수한 학생이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천서를 쓴다. 따라서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부탁해야 한다. 그렇다면 추천서는 어떻게 부탁해야 하며, 부탁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락을 드릴 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프레임(Framing)하라

가장 먼저 추천인에게 이메일로 추천서와 관련해서 찾아뵙고 의논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린다. 이때 단도직입적으로 '추천서'를 거론하되, 상대방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도를 지키며 글을 작

성해야 한다. 추천서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불편한 관계로 남지 않도록 예의를 갖춘다. 이때 자연스럽게 관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프레이밍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관계’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은 제가 어떠한 일로 어려웠던 시기에 항상 이끌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신 저의 멘토입니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해당 교수는 학생을 단지 진로 상담을 한 번 해줬던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평범한 사제 관계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낸 멘토와 멘티가 된다. 이런 관계가 인식되면 추천서 작성을 거절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실제로 추천서의 도입부에 적는 내용 중 하나가 학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학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까워졌는지 등을 적는다. 따라서 추천인이 미처 기억해내지 못하는 관계를 여러분이 먼저 친절하게 언급한다면, 추천인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기억을 소환하여 흔쾌히 써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학업적인 면이나 연구와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좋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결 고리를 강조할 만한 일이어도 괜찮다. 추천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다양한 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추천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천인이 여러분에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넣어줄 수 있다. 따라서 추천인에게 연락을 할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다양하게 추천인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해서 추천인의 기억을 환기시키자.

찾아보기

추천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다음은 실제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차례다. 상대방이 추천서 작성 요청을 승낙했거나 더 자세히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경우, 약속을 잡고 찾아가자.

추천인을 찾아갈 때는 유학을 결심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 두 가지를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자신의 계획과 꿈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추천인은 더더욱 여러분을 대변해서 입학사정관을 설득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다. 따라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추천인을 찾아가자.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

유학을 결심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다. 찾아가서 말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해 이력서와 학업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추천인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하자. 더 나아가서 앞서 언급한 추천인과의 관계, 지원하는 학교 목록, 관련된 문서 등을

함께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추천서 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서류를 드리자.

- 지원 학교 목록
- 이력서
- 학업계획서
- 기타 공식 문서 (성적증명서, 장학금 수혜내역, 수상내역 등)
- 논문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추천인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다. 추천서도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학생이다”라는 말은 별다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어째서 훌륭한 학생인지 성적이 되었든, 프로젝트 결과가 되었든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여러분이 정리한 일화들은 추천서에 삽입되어 주장을 보조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처음 부탁할 때부터 여러분에 대한 서류 더미를 교수에게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귀찮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업무에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할 서류까지 잔뜩 있다면 최악으로 느껴질 것이다. 일단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달한다. 그런 다음 추천서를 작성할 때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여기에 있으며, 언제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

다면 말씀해달라고 하면서 전해드린다.*

주기적으로 리마인드시켜 드리기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추천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지원 마감일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유학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 추천인도 이 과정의 일부라는 소속감이 드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기도 쉽다.

그리고 자주 감사의 말을 전하자. 바쁜 일상 속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대해 신경 써주고 추천서를 써주는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항상 감사하자. 그러나 동시에 적절한 부담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박사과정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추천서를 교수님께서 써주셔서 제게는 의미가 큼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원서 접수 시기가 오면, 온라인으로 추천인을 등록하게 된다. 추천서의 마감일은 대부분 지원 마감일과 동일한데, 추천서의 경우 어느 정도 늦어져도 봐주는 편이다. 일부 학교는 늦게 도착하는 서류를 일절 받지 않으므로 정해진 마감일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기에서도 앞서 우리가 세웠던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 연구 활동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 관련된 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고, 이력서와 학업계획서에서 해당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추천인과의 관계에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늘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어떻게 자신의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자.

학교마다 마감일이 다르고, 지원하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추천인들이 제때 추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 마감 일주일, 3일, 1일 전에 각각 짧은 이메일을 보내 알렸다.

좋은 추천서를 받는 데는 전략과 요령,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일찍부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시작은 추천인을 선정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부터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추천인과 긴밀한 관계를 쌓고 강력한 추천서를 받아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추천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

지원자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추천인이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추천서를 원활하게 쓰기 위해 우선 추천서의 초안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단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추천인이 추천서의 초안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추천서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써가더라도 그것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추천인은 거의 없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

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어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제출하는 추천서 외에도 추천인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추천 대상에 대한 단답형 물음에 대답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등 학교별로 다양한 평가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추천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추천인들이 아예 여러분이 써온 추천서를 읽지도 않고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추천서를 써오라는 말에 지나치게 상처받거나 서운해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추천서를 쓰는 일은 고역이며(곧 느끼게 될 것이다), 추천인으로서 추천서를 쓰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요구되는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추천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자.

어쨌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책에서 추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조금은 자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직접 추천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추천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알게 된다면 자료를 준비하고 교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서 작성 방법

추천서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장에서 2장 정도다. 대학원 지원 서류 중 하나인 공식 문서이므로, 레터 헤드(Letterhead)가 들어가며 여기에

는 학교의 마크 및 학과, 주소, 연락처 등도 포함된다. 형식은 일반적인 편지의 형태이며, 깔끔하고 정갈하게 디자인하여 공식적인 문서의 느낌을 주도록 한다.

❖ 추천서의 시작

일반적으로 추천서는 ‘To whom it may concern.’과 같이 시작한다. 그 이유는 하나의 추천서를 수정 없이 여러 학교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각 학교의 이름 또는 입학처의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일일이 학교마다 바꾸어 써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 추천서의 목적

다음은 일반적으로 이 추천서의 목적을 쓴다. 가령 “이민아 학생을 당신 학교의 박사과정에 추천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와 같은 식이다. 그런 다음, 추천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학부 연구생으로서 1년간 지도했다거나,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의 몇 과목을 들었다가나 하는 식이다. 가독성을 위해 여러 항목이 있을 경우 목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 추천인 자신에 대한 서술

이는 추천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보통 현재 소속과 전공 분야, 연구 실적 및 수상 내역 등을 언급한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한 후 관련 있는 학생 지도 경력을 보다 상세하게 적기도 한다. 가령 “어느 학교에서 n명의 학부생, m명의 석사과정 학

생, k명의 박사과정 학생을 배출했으며 이민아 학생은 그중에서 몇 번째로 우수한 학생이었다”라는 식이다.

❖ 학생의 장점 부각

그다음으로 학생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문단에 한 가지의 장점을 담고 여러 문단을 나열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그녀는 글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주제문과 함께, 어떻게 이 학생이 자신의 수업에서 훌륭한 보고서로 자신을 감탄시켰으며, 다른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과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만한 글쓰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문단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서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문, 수상실적 등을 함께 언급하여 이 사실을 강조할 수도 있다. 보통 이런 뒷받침 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교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점 언급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학생의 장점 나열이 끝나면 간단하게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한다. 또는 장점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살짝 단점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학생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느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으며 어떤 발전 양상을 보여왔는지 언급해주는 편이 훨씬 더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단점에 대해 잘 서술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 왜 이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의 박사과정에 적합한 학생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여러 가지 모습에 비추어보았을 때 학생이 대상 학교에서 무사히 학위를 마치고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추천서를 마무리한다. 의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며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한다. 하단에는 편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적으며 사인을 첨부하기도 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스스로 추천서를 쓰는 일은 고역이다. 정말 어렵다. 특히 겸손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칭찬한다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참 힘든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선택지가 없지 않은가? 무조건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오글거림과 부끄러움을 참고 자신에 대해 논리적으로 칭찬하고 추천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한 번 자신이 쓴 추천서를 읽어보자. 본인이기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의심하라

자신이 아니고서는 알기 힘든 정보를 담으면 안 된다. 게다가 교수가 찾기 힘들 것 같은 정보를 담아서도 안 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

수가 여러분에 대해 떠올렸을 때 바로 알 만한 정보들만 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답을 수 있는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들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조금은 구체적인 정보들까지 범위를 넓혀도 좋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자.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 스스로 추천서를 썼다는 것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 글의 스타일을 의심하라

영어가 제2외국어인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원어민의 입장에 서는 글의 스타일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생각해보자. 그들은 우리가 쓴 학업계획서, 라이팅 샘플 등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추천서를 읽었는데 여러분이 주로 쓰는 단어, 표현, 문장, 연결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심증뿐이라 해도 그 추천서의 신뢰도는 곧두박질을 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글을 작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또는 전체적인 개요만 목록으로 작성한 뒤 구체적인 문장은 추천인에게 직접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 추천서의 스타일을 조심하라

학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처음 쓴 추천서는 형편없을 것이다. 그러나 추천서를 여러 번 써본 교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키는

형식과, 내용의 구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담는 내용 등이 정해져 있다. 이를 너무 무시하고 창의적으로 쓴다면, 그 창의성을 높게 쳐줄 수 있을지언정 이 또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성적, 수업에서의 등수, 교수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우수함의 척도 등에 대해 통용되는 수준의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나는 우수하다”고 주관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Cheer Up!



자신의 추천서를 쓰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차피 추천서를 써오라고 한 것은 추천인이니 자신 있게 써보자. 괜한 걱정과 단점을 많이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추천인도 제출하기 전 여러분이 써온 추천서를 검토하며 지나친 장점은 어느 정도 손질하거나 빼고,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면 추가할 테니까!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 단점을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러 단점을 많이 넣진 말자. 차라리 장점을 많이 넣고 추천인이 그중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 고르게 하자!

When you expect things to
happen - strange enough - they do happen.

– J. P. Morgan

Chapter 7

장학금
Scholarship

장학금은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합격 확률을 높여주는 지표다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학비에 지레 겁을 먹어 유학 갈 꿈조차 꾸지 못한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미국 명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한 해 소요되는 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해 약 1억 원에 육박한다. 국내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최대 1천만 원 이내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쉽게 유학을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간절히 꿈을 꾸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길도 열리는 법! 이번 장에서는 장학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장학금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장학금은 어마어마한 등록금과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강력한 메리트를 가진다. 장학금의 지원 기간과 금액은 장학재단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 지원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다. 프로그램과 본인의 학과에 따라 액수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확하게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항목	금액
등록금	\$33,930 (약 3,800만 원)
생활비*	\$32,538 (약 3,650만 원)
총액	\$66,468 (약 7,450만 원)

스탠퍼드 대학 대학원생 연간 지출 예상 비용**

학교로부터 장학금 또는 풀펀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격 후의 일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기 힘들다. 게다가 학교마다 지원 범위와 액수가 다르고 이 또한 매년 바뀔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아무런 도움 없이 순수 자비로 진학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항상 따라다

* 교내 기숙사 거주 기준. 교외 기숙사 거주 시 10~40% 정도의 생활비 추가

** 2017-18 Average Graduate Student Expense Budget (School of Engineering, 8-10 units, autumn/winter/spring quarters, single on-campus 기준) (<https://gradadmissions.stanford.edu/admitted-students/financing-graduate-study/estimated-expense-budget>)

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학금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장학금의 장점

장학금의 장점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 미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장학금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하게 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학생과 교수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준다

장학금 지원의 가장 큰 목표인 동시에 1차 목표는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다.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고, 심지어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등록금과 생활비는 안 그래도 움츠러든 유학생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나 장학금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또는 의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다.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장학금은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줄여준다. 다시 말해 학교 조사를 할 때 재정적인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크게 줄어든다. 사립대학인지 주립대학인지에 따라, 그리고 어느 도시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천차만별이다. 만약 금전적인 요인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라면 쉽사리 비싼 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에 지원하기는 힘들 것이

다. 1년도 아닌 5년 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며 이후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학금이 있으면 학교 선택을 하는 관점에서 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장학금은 교수의 재정적 부담도 줄여준다.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여러분과 같이 지도교수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연구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국제 학생을 뽑는 것은 교수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생이 외부 장학금을 받고 연구 역량까지 겸비했다면 교수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장학금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우수성 입증의 지표

장학금은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즉, 여러분의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지표가 된다. 국내외적으로 알아주는 장학재단의 경우 지금까지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들을 다수 배출해냈으며 그 이름에 대한 신뢰도가 탄탄하게 쌓여 있다. 따라서 이런 재단의 장학생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실력이 검증된 학생임을 보여준다.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다 보면 제출하는 서류 중 재정보증서라는 것이 있다. 미국에서 수학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댈 것인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다. 이때 장학재단의 재정보증서는 재단이 지원할 만큼 여러분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이자 각서이자 보증 수표가 된다. 따라서 장

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가 되어 합격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Cheer Up!



장학금은 연구 역량에 대한 보증수표와도 같으며 그와 동시에 학생과 교수 모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실제로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지원해야 한다. 모든 기회를 붙잡아 도전하자!

국내 장학재단의 선발 개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내 장학재단과 국외 장학재단,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장학재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단, 국비 장학금의 경우 그 출처를 장학재단이라 칭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으나, 매년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 편의상 장학재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국외 장학재단의 경우 국제 학생이라면 그리고 아직 박사과정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외 장학금의 경우 박사과정을 시작한 뒤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에 지원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해 요구하는 사항이 저마다 가지각색이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선발을 하는 곳도 많다. 예를 들면, 합격 통지와 동시에 (또는 합격 통지 직후) 제공되는 장학금(Fellowship)은 학업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장학금이다. 각자 지원하는 학교가 모두 다르고, 학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국내 장학재단의 선발 개요

국내에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5개를 들 수 있는데 한미교육위원단, 한국고등교육재단, 관정이중환재단, 국립국제교육원, 일주장학재단이 그것이다.* 이들은 해외 대학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는 훌륭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정 국가나 전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재단들이 있으므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5개의 장학재단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알맞은 장학재단을 찾아나가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의 이름보다 더 쉽게 구분되는 장학재단의 이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재단’ 또는 ‘장학 프로그램’을 칭할 때 공통적으로 장학재단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한미교육위원단은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인 ‘풀브라이트’로, 국립국제교육원과 국비유학생 프로그램은 모두 ‘국비장학금’이라 칭하겠다.

장학 재단	장학 프로그램	홈페이지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www.fulbright.or.kr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 유학 장학제도	www.klas.or.kr
관정이중환교육재단	해외 유학 장학생	www.ikef.or.kr
국립국제교육원 (국비장학금)	국비유학생	www.niied.go.kr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 박사	www.ijufoundation.org

대표적인 국내 장학재단

* 삼성장학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더 이상 해외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지원시기	대상	서류	전형	지원범위	특징
한미 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7월	미국 석사,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재학/졸업증명서 • 어학능력증명서 • 포트폴리오 •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추천서 3부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대 2년 1년차 최대 \$40,000 2년 차 최대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취득 후 2년 미국 내 거주 의무 • 인문, 사회, 예술 분야 29명 •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분야 5명 선발
한국고등 교육재단	8월	미국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 어학능력증명서 • 학업계획서 • 기타 저서/역서/논문(선택) • 추천서 1부 	서류전형 필기전형 (영어, 전공) 면접전형	최대 5년 등록금, 생활비,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 순수자연과학, • 정보통신 분야 30명 선발
관정이중환 교육재단	3월 공고/ 4월 지원	13개국 박사, 석사,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허가서(예비장학생 제외) • 성적/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과제증명 또는 비교세증명원 •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어학능력증명서(선택) • 수학능력증명서(선택) • 대외활동 실적 증명서류(선택) • 추천서 1부 	서류전형 면접전형	국가별 지급 상한액 상이 미국 기준 최대 5년 연간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 후 모두 가능(단, 지원 전의 경우 다음 해 입학까지 입학하는 조건) • 과정 별 연령제한 존재 • 100여명 선발(자연이공계열 80% 이상) • 장학금 이증수혜 금지
국립 국제교육원 (국비장학금)	4월 공고/ 5월 지원	45개국 석사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 어학능력증명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대외활동 실적 증명서류 • 추천서 1부 	서류전형 면접전형	국가별 지급 상한액 상이 미국 기준 최대 2년 연간 \$35,000 (저소득층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 후 모두 가능(단, 지원 전의 경우 다음 해 9월 말까지 입학 허가 조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요구 • 학교장 추천서 필요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만 응시 가능 • 30여명 선발(일반, 저소득층 특별 전형)
일주학술 문화재단	5월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허가증명서/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 어학능력증명서(선택)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대 5년 연간 최대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재학생도 지원 가능 • 기초, 순수 학문 연구자 우대

대표적인 국내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개요*

* 표를 참고함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자.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대상, 요구되는 서류 및 특징, 지원 범위는 매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장학금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일례로 2016년도부터 삼성장학회의 장학금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 표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반드시 각 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장학금의 종류와 특징

장학금은 각 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의 지원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지원 전 장학금 - 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기 전 지원 가능
- 지원 후 장학금 - 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지원 가능
- 지원 전후 장학금 -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대부분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의 원서 접수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감하고, 입학 통보 및 결정은 1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4월 중순에 끝난다. 지원 전 장학금인 폴브라이트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경우, 원서 접수 전 여름인 7월과 8월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후 장학금의 경우 원서 접수 후 진학할 학교가 결정된 4월과 5월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한다. 지원 전후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4월과 5월에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입학 허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원 대상

일부 장학금의 경우 국가를 미국으로 제한하거나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서 지원하자. 지원 국가를 미국으로 제한하는 곳은 폴브라이트와 한국고등교육재단이며,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일주학술문화재단의 경우 박사과정만 지원한다.

❖ 지원 범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장학재단별로 상이하다. 폴브라이트와 국비장학금이 미국을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 또한 무조건 5년 지원이 아닌, 중간 평가를 통한 기간 연장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다양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등록금과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서류 및 선발 전형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제외한 모든 장학재단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성적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TOEFL, GRE 등),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이 있다. 재단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 특징

폴브라이트의 경우 2년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즉, 학위를 마친 뒤 미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경우 다른 장학 재단에는 없는 필기시험이 있으며 국비장학금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요구하므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은 이 외에도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는 대표적인 5개의 장학재단만 소개했다. 자신의 분야와 상황에 맞는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앞서 소개한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지원 시기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에 앞서 각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자.

Cheer Up!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국내의 해외 유학 장학금으로는 풀브라이트, 한국고등교육재단, 관정이종환재단, 국비장학금, 일주장학재단 등이 있다. 지원 시기에 따라 지원 전 장학금, 지원 후 장학금, 지원 전후 장학금으로 나뉘며 지원 시기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재단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장학금 지원을 박사과정 지원의 예행연습이라 생각하라

앞서 국내에 있는 다섯 개의 장학재단과 각각의 지원 시기 및 요구사항, 특징 등을 알아보면서 장학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장학금 지원을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예행연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과 박사과정 지원은 비슷하다

국내 장학재단의 프로그램을 살펴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류전형에서 성적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엔 암묵적으로 연

구 경력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학업계획서를 가장 중요시한다. 박사과정 지원과 매우 흡사한 환경인 것이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실제 박사과정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평가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장학금 지원 과정은 박사과정 지원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

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받기 전 지원 가능한 장학금으로는 폴브라이트와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있으며 각각 7월과 8월에 지원을 받는다. 만약 이 시기에 자신의 영어 성적이 완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여력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자.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지원 전 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영어 공부 및 서류 준비 계획을 세우자. 즉, 7월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TOEFL 및 GRE 시험을 6월 중순까지 치르고 이력서와 학업계획서 작성을 7월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자.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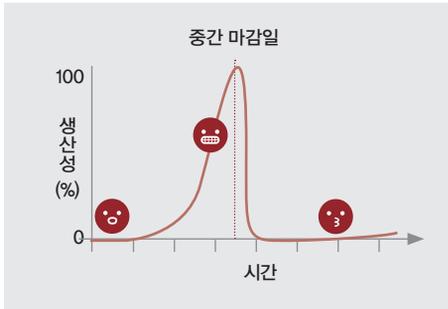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단계라도 괜찮다. 물론 이미 스스로 만족스러운 정도로 완성했다면 입 아프게 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도 지원 당시 이력서는 굉장히 초기 버전으로 아마추어 티가 폴폴 났으며, 학업계획서로는 다시 읽어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글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기를 기다렸다가 도전하면 늦다.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까이고(?), 고쳐나가야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만일 여러분이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면, 필경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추천서도 받아야 하고, 아직까지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은 학업계획서를 급하게 작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경우 전공과 영어에 대한 필기시험에 대비해 공부할 해야 하고 국비장학금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현재 무언가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다시 한 번 권고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장학금 지원을 준비하느라 발생하는 웬만한 기회비용을 모두 능가하며,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도전하는 편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원으로 생산성과 능률을 높여라

지원 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간 마감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준다. 사실 적절한 외부 자극이 없으면 이력서나 학업계획서의 작성은 무한정 늦춰지게 마련이다. 유학 준비를 시작한 것은 3월이지만 실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원 마감 한 달 전인 11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찍이 작성을 시작하더라도 마감을 앞둔 사람만큼의 생산성을 보이기 힘들다. 따라서 7, 8월에 있는 지원 전 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준비하다 보면 전체



중간 마감일과 생산성/능력 간의 관계*

적인 유학 준비에 대한 생산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보다 이른 시기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을 또는 겨울에 접

어들어서야 제대로 준비를 시작한다면, 본인은 여름에 이미 어느 정도 미숙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겪어보는 것이다. 많이 경험했겠지만, 무엇이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있을 때 고치고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유학 준비도 똑같다.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생각의 깊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장학재단에서 지원 시 지도교수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때 추천서를 부탁드리며 추천인에게 이력서와 학업계획서의 검토를 부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류 과정을 통과하여 면접 과정에 접어들었다면, 이 시간을 심사위원의 눈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아무리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하며 피드백을 받더라도, 학생의 입장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피드백이 오가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 Productivity after deadline (<https://graphsaboutgradschool.wordpress.com/2014/06/03/productivity-after-deadline/>)

An optimist is the human personification of spring.

- Susan J. Bissonette

Chapter 8

콘택트 메일

Contact Mail

보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학 준비는 정말 끝이 없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이다. 앞서 우리는 인상 깊고 강력한 학업계획서를 완성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콘택트 메일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관심 있는 교수에게 자신을 알리는 메일을 보낼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보내기로 했다면 명심하자. 콘택트 메일은 단순히 메일만 하나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콘택트 메일(Contact Mail)이란 무엇인가?

‘콘택트 메일’*이란 ‘콘택트’와 ‘메일’의 합성어다. ‘콘택트’란 말 그대로

* 일반적으로 ‘컨택 메일’이라고 부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컨택’ 대신 표준어인 ‘콘택트’라고 부르기로 한다.

상대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메일’을 붙여서 ‘콘택트 메일’이라 한 것이다.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수에게 자신을 알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콘택트 메일을 보낸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콘택트 메일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달 동안이나 썼다. 어떠한 내용으로 각 문단을 구성할 것인지, 나의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어떤 교수에게 보내고 보내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쓰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통신 수단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긴 시간이다. 어느 누가 이메일 하나를 한 달 동안 붙잡고 있겠는가?

더 부끄러운 것은 콘택트 메일을 다 작성한 다음에도 실제로 보내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콘택트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 메일을 보내기까지 두 달이 소요되었다. 첫 번째 메일을 보낼 때는 엄청 떨렸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고 바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즐겁게 놀았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답장을 기대하지 말자고 원래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심리상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이메일에서 뭐가 실수한 게 있나? 괜히 이메일을 보내서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긴 것이 아닐까? 교수 사회에서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닐까? 등등. 그래서 그

때부터 과연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더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콘택트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 두 달 동안 고심했다.

콘택트 메일은 정말 주관적이며, 정해진 답이 없다.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기준도 개인마다 다르다. 무조건 “보내는 것이 좋다”라거나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저마다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콘택트 메일에는 보내는 경우, 보내지 않는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다. 만약 주변에서 콘택트 메일을 보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콘택트 메일을 보내서 덕을 본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도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대되는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많은 미국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스로 콘택트 메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누구한테 보낼 것이고 누구한테는 보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대표적인 이유와 장점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주된 이유는 지원하는 학교의 교수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아무리 관심 있는 교수의 논문을 읽고 앞으로 같이할 연구에 대해 고민하면 무엇 하겠는가? 그들은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 연말이 되어 서류 심사 기간이 되면, 여러분은 그저 천여

명의 지원자들 중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미리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그들의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고 여러분 자신의 열정을 소개한다면?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교수에게 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음
- 연락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합격과 직결됨
- 학교와 연구실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전략 모색 가능
-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수단

특히 일부 학교는 연락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즉, 교수와 연락이 닿은 학생만 선발하는 것이다. 일종의 ‘내정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교수의 연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준비되어 있는 학생만을 상호합의 하에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콘택트 메일의 성공 여부는 합격·불합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이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답장을 보내준 교수가 매우 친절하다면 학교 및 연구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학교 내부의 학생 선발 절차에 대해 알려주거나, 관심 있는 교수들이 올해는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내가 관심을 표명한 분야에 연구 계획이 없다거나, 편당이 없다는 사실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타 학과 지원을 통해 연구실을 지원하거나, 자신이 아닌 동일 학과 내 다른 교수에게 지원하기를 제안할 수도 있다. 특정 학과에 경쟁률이 유난히 높아서 다른 학과를 통해 동일 연구실에 들어올 수 있는 차선택이 있거나, 학생의 관심사가 자신보다 다른 교수와의 연구 관심사와 더 일치한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지원 학과 및 교수를 달리하는 등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컨택트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컴퓨터학과 교수인 필립 구오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보내는 컨택트 메일은 스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교수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인적으로 대학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컨택트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입학사정을 (교수의 관여 없이) 입학처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 교수의 홈페이지에 컨택트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명기된 경우
- 교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 Advice for Ph.D. Program Applications (<http://www.pgbovine.net/grad-school-app-tips.htm>)

입학사정을 입학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혹은 교수가 개입하는 부분이 적은 경우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이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교수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나는 지원한 학교의 대학원생으로부터 조교수의 경우 입학 심사 시 없을 확률이 높다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

위의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콘택트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교수들이 있다. 일반적인 미국 대학의 교수는 평소에도 하루 1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는다고 한다. 만약 매년 대학원 지원 시즌이 될 때마다, 지원하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콘택트 메일을 보낸다면? 이것은 분명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양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연구에 가져주는 관심은 고맙지만 이메일은 마냥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보낸다면 오히려 교수에게 안 좋은 인상만을 남길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몇 달 동안이나 망설이다 콘택트 메일을 보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수가 이메일 하나하나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콘택트 메일 때문에 여러분을 저평가할 것이라는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 그리고 이 책의 조언을 따라 차근차근 콘택트 메일을 작성한다면 이메일 때문에 나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콘택트 메일은 가성비가 뛰어난 자기 마케팅 수단이다

요약하자면 콘택트 메일은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위험성도 낮지만 보상은 굉장히 높은 좋은 자기 마케팅 수단이다. 개인적으로는 (교수가 콘택트 메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보기를 권한다. 앞서 말했듯이 콘택트 메일을 보냈을 때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원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보낸 메일에 상대방이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거나 인터뷰를 요청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류로만 보는 지원자들과는 다르게 여러분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학사정관과 교수도 사람이기에 서류상으로만 본 지원자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대화를 나눠보고, 이름을 들어본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결국 보내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시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또한 “빠를수록 좋다”거나 “늦어지면 나쁘다”고 이분법적으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일단 편의상 지원 전 이름을 기준으로 그전을 빠른 것, 후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자. 빠르게 연락할수록 교수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원할 즈음에는 잊힐 가능성도 있다. 늦게 콘택트 메일

을 보내면, 보다 최근 연구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고 교수의 기억에도 잘 남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가 이미 뽑을 학생들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남들보다 늦게 얻을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금력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미리부터 직접 학회에 가거나 학교를 방문하여 교수를 직접 만나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용기가 있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다. 그만큼 교수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일도 없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Cheer Up!



콘택트 메일을 보내는 것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다. 학교와 연구실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수단이다. 교수가 지원자로부터 메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해보자. 적극적으로 그들의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표출하자!

메일은 반드시 짧게 두괄식으로 작성한다

콘택트 메일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는가? 잘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 보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앞으로 나의 지도교수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심하고 나면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편지글의 형식, 내용과 구성, 문장과 표현, 단어 하나하나의 올바른 사용에 집착했다. 하지만 이런데 집중하다 보면 본래 목적을 잊게 된다. 콘택트 메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쓰기다.

상대방을 배려한 글쓰기가 중요하다

지금 와서 내가 대학교 2, 3학년 정도에 썼던 이메일을 보면 미숙하기 짝이 없다. 그 당시 내 편에는 몇 시간 동안 아주 공들여서 쓴, 잘 쓴 이메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더 부끄럽다. 지금은 그때처럼 내 실력에 대해 자만하진 않지만, 가끔씩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을 받다 보면 그 때의 나의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틀리기도 하고,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무턱대고 용건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하는 질문들마저도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맥락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묻는 방식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 이메일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을 잊지 말자. 남들이 자신을 보고 가질 수 있는 첫인상이다 생각하고,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자.

콘택트 메일을 작성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무조건 짧게, 두괄식으로 작성하라는 것이다. 이전 장에서 강조했듯 교수들은 매우 바쁘다. 정말 바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는데 그중 여러분의 것을 읽기만 해도 받은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쓴 메일이 매우 길다면? 과연 본문을 얼마나 읽을 것 같은가? 전체의 50%? 10%? 대부분의 경우 열자마자 여러분이 올해 지원하는 학생이라는 사실만 파악하고 보관함에 넣어버리거나(그나마 다행이다), 바로 삭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교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글은 사실상 읽어도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인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은 무조건 짧아야 한다. 그리고 두괄식이어야

한다. 짧고 핵심만 담은 글은 무엇보다도 읽을 마음이 생긴다. 아니, 읽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다. 두괄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짧은 글마저도 첫 문장만 읽고 넘어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조금 더 사려 깊음을 보여주고 싶다면 중요한 부분을 굵게 표시하거나, 링크를 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자신의 홈페이지, 논문 등을 링크해놓을 때 효과적이다.

콘택트 메일도 편지글이다

콘택트 메일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했으니,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콘택트 메일의 편지글로서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의 이메일은 지원 당시 내가 보냈던 이메일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발전의 여지가 아주 많은 글이다. 그래도 내가 오랜 고민의 시간을 거치며 작성한 이메일이므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 공유한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씩 뜯어보며 각각의 부분을 왜 그렇게 썼는지 살펴보자.

❖ 제목

이 메일의 제목은 'Prospective Student: Inquiry for Joining Your Laboratory (입학 희망자: 연구실에 대한 질문)'이다. 제목을 작성할 때엔 내용이 드러

Prospective Student : Inquiry For Joining Your Laboratory

Dear Professor A ,

This is Mina Lee, a student applying for fall admission to the doctoral program at B university. I am sending this email to you as my research interests and area of expertise fit well in line with your ongoing research topics, especially C.

I recently worked on C'. I am primarily interested in C, but I am also eager to explore other interesting areas at the intersec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and software engineering.

I do hope that you could take a closer look at my application and we could collaborate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Yours sincerely,
Mina Lee

콘택트 메일 예시

나면서 한 줄 안에 들어가도록 쓴다. 우리의 경우 앞으로 지원할 것이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므로 '입학 희망자'라는 뜻의 'Prospective Student'와 '연구실에 대한 질문'이라는 뜻의 'Inquiry for Joining Your Laboratory'를 사용했다. 이 정도 길이의 제목은 화면에서 잘리지 않고 한눈에 보이므로 읽기에도 좋고, 제목만 보아도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므로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일부러 눈길을 끌 만한 현란한 제목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내용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제목도 지양해야 하며 주된 용건이 다른 것인 마냥 속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목과 본문의 도입부는 교수의 논문
에 대해 질문하는 척하면서, 실제 내용은 “자기소개 및 함께 일하고
싶다”인 경우다. 물론 그들의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질문
을 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이 경우 아예 연구에 관한 메일로 연락을 주
고받기 시작해서, 나중에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러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 양 교수를 속이진 말자.

❖ 인사말

영어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Dear Professor A,’라고 쓴다. 일반적으
로 교수의 경우 ‘Dear Professor’ 그리고 이름을 적는다. 성이 ‘Lee’, 이
름이 ‘Mina’라면 ‘Dear Professor Mina Lee,’라고 적으면 된다. ‘Professor’
를 줄여서 ‘Prof.’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름은 생략하고 성만 적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쉼표가 있다는 것이다.

❖ 본문

본문은 최대 세 문단을 넘지 않게 쓴다. 각각의 문단도 지나치게 길
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추려서 세 문단 정도로 압축시키자. 일
반적인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단에는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용건을 쓴다. 각각
한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This is Mina Lee, a student applying for fall admission to the doctoral program at B university. I am sending this email to you as my research interests and area of expertise fit well in line with your ongoing research topics, especially C.

(저는 이번에 B 대학의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이민아입니다. 제 연구 관심사인 C 와 교수님의 연구 주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가? 가장 먼저, 나의 이름과 이번 년도 B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임을 밝혔다. 여기에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등 나의 신상정보를 모두 나열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자. 콘택트 메일에는 핵심만 담아야 하는 것을 계속 상기하며 작성한다.

다음 문장에서는 이 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교수와 연구 관심사가 같으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C에 관심이 있기 때문임을 말했다. 이로부터 교수는 내가 올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하며, 자신과 C 라는 주제로 연구를 같이 하고자 하는 학생임을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이로써 콘택트 메일의 목적은 모두 달성된 것이다.

한 가지 팁은 해당 교수와 아는 사이거나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를 도입부에 언급하는 것도 좋다는 점이다. 가령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거나 학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 상대방도 당신이 누구인지 보다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고, 아예 인연이 없는 모르는 사람의 이메일보다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려 할 것이다. 만약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교수의 키노

트, 온라인 강의,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인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직접 만난 것만 못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교수에게 나의 관심사를 드러냄과 동시에 교수의 연구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는 자신의 연구, 관심 있는 연구 주제,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해당 교수의 논문, 프로젝트 등과 연결되도록 쓰면 더욱 좋다. 이때 본인이 교수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 “나의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교수님의 연구실의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이다.

I recently worked on C'. I am primarily interested in C, but I am also eager to explore other interesting areas at the intersec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and software engineering.

(저는 최근에 C'를 연구했습니다. 현재 주된 관심사는 C이지만,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 공학을 접목시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언급하는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프로젝트가 종료될 예정이거나 더 이상 인원을 추가할 여유가 없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콘택트 메일도) 다른 주제로 연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마지막 문단은 질문이나 부탁으로 마무리한다.

I do hope that you could take a closer look at my application and we could collaborate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제 지원서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이메일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뭐라도 질문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이메일을 보내 질문을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대한 스스로 답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질문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의 없이 질문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콘택트 메일은 어떻게 쓰던 간에 답장이 안 올 확률이 높다. 이는 메일을 아무리 잘 써도 철저히 교수의 스타일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질문은 하되 대답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콘택트 메일에서 주로 하는 질문은 “올해에 새로운 학생을 받을 계획이 있는가?”, “편당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등이다.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교수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꽤 많은 수의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놓는다.

그래도 질문하고 싶다면, 이를 숙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의 이 정보가 최신에 업데이트 된 것이 맞으며 올해 지원자들에게도 적용되느냐”고 묻는 것이 안전하다.

어쨌든 질문할 때에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자. 여러 개의 질문을 한다면 목록 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메일이 길어져도 자연스럽게 목록에 의해 여백이 생기고, 질문도 돋보일 수 있다. 질문할 것이 없다면,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히며 올해에 지원할 것이니 자신의 지원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가볍게 부탁하며 편지를 마무리하자.

❖ 마무리

영어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는 무난하게 ‘Yours sincerely,’나 ‘Best regards,’와 같은 표현들을 쓸 수 있다. 처음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쉼표가 있음에 주의하자. 그리고 다음 줄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된다.

Yours sincerely,

Mina Lee

❖ 첨부파일

이메일을 아예 읽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고, 읽더라도 꼼꼼히 다 읽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첨부파일을 열어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거나 이력서 정도만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Prospective Student : Inquiry For Joining Your Laboratory

Dear Professor A,

This is Mina Lee, a student applying for fall admission to the doctoral program at B university. I am sending this email to you as my research interests and area of expertise fit well in line with your ongoing research topics, especially C.

I recently worked on C. I am primarily interested in C, but I am also eager to explore other interesting areas at the intersec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and software engineering.

I do hope that you could take a closer look at my application and we could collaborate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Yours sincerely,
Mina Lee



제목

- '입학 희망자'라는 뜻의 'Prospective Student'와 '연구실에 대한 질문'이라는 뜻의 'Inquiry for Joining Your Laboratory'를 사용한다.
- 현란한 제목, 내용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제목을 쓰지 않는다.
- 주된 용건이 다른 것인 마냥 속이지 않는다.

인사말

- 영어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인 'Dear Professor A,'라고 쓴다.
- 'Professor'를 줄여서 'Prof.'로 표기하기도 한다.
- 이름은 생략하고 성만 적을 수도 있다.
- 마지막에 심표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본문

- 본문은 최대 세 문단을 넘지 않게 쓴다.
-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주려서 세 문단 정도로 압축한다.
- 첫 번째 문단
 -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용건을 쓴다.
 - 한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쓴다.
 - 해당 교수와 아는 사이거나 공통분모가 있다면 이를 도입부에 언급하는 것도 좋다.
- 두 번째 문단
 - 자신의 연구, 관심 있는 연구 주제,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 해당 교수의 논문, 프로젝트 등과 연결되도록 쓰면 좋다.
- 세 번째 문단
 - 질문이나 부탁으로 마무리한다.
 - 질문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자.
 -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질문하지 말자.
 - 질문은 하되 대답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히고, 올해에 지원할 것이니 자신의 지원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가볍게 부탁하며 마무리하자.

마무리

- 무난하게 'Yours sincerely,'나 'Best regards,'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 처음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심표가 있음에 주의하자.

첨부파일

- 첨부파일을 열어볼 확률은 거의 없다.
-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거나 이력서 정도만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Nothing shows a man's character more than what he laughs at.

- Johann Wolfgang von Goethe

Chapter 9

인터뷰
Interview

말만 들어도 두려운 인터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미국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인터뷰란 무엇인가? 지원한 대학의 교수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면접 전형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지금까지 해온 연구,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가며, 학교, 연구실, 생활환경 등 궁금했던 점에 대해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는 아직도 인터뷰 요청 메일을 받았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인터뷰 요청 메일

나는 지원 전후로 총 7번의 인터뷰를 했다. 7번 정도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했

Skype call?

Dear Mina,

My name is A; I'm a CS prof at Stanford. I'm Writing to see if you would have some time for a brief Skype call on Monday about our PhD program. I could be available either at 9:30am or 4:30pm Pacific Time. Would either of those times work for you?

Regards,

A

스탠퍼드 대학으로부터 받았던 인터뷰 요청 메일

다. 중간 중간 실수도 많이 하고, 준비가 미흡해서 후회했던 적도 많다.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며 (스탠퍼드 대학과 한 인터뷰였다!) 아쉬움이 전혀 남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처음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박사과정 지원이라는 특성상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족보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질문과 형식은 정해져 있는 편이다.

위의 내용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받은 인터뷰 요청 메일로, 지원을 마치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수로부터 이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된다.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인터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 방문 인터뷰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수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하루에서 2박 3일까지 소요 시간이 다양하다. 캠퍼스 투어, 교수진과의 식사 등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자비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전화 인터뷰

일반적으로 학과 차원에서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는 한, 교수나 학생 모두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문 인터뷰보다는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때는 주로 스카이프(Skype)*를 이용해 화상 전화를 한다.

지원하는 모든 학교와 인터뷰를 해야 할까?

짧은 대답은 “아니다”이다. 인터뷰를 심사과정에 포함하는 학교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스카이프 (<http://skype.daesung.com/eng/main.asp>)

Your Berkeley Grad School Application

Hi Mina!

I'm on the admissions committee for UC Berkeley PhD in CS, and I'm one of the faculty who has been interested in your application.

Part of our admissions process is to do phone or skype interview with candidates who have made it through the first rounds of consideration(this doesn't mean you are guaranteed to be admitted, but you have made it to the final round).

...

버클리 대학으로부터 받았던 인터뷰 요청 메일

❖ 학교에서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평가 과정에 포함)

첫 번째로 인터뷰가 평가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학교에서 인터뷰를 요구할 것이다. 이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의 교수이다. 물론 학업계획서에 언급한 교수가 아닐 수도 있다. 매년 입학사정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꽤 많은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가 평가 과정에 포함된다면 이것을 인터뷰 요청 메일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위의 버클리 대학으로부터 받았던 인터뷰 요청 메일과 같이 “인터뷰는 우리의 입학사정 과정 중 일부이다. 이는 당신이 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

중 후보자군 안에 들었다는 의미이다”라고 언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한다면 합격 후보자에서 제외될 것이다. 해당 학교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제시한 시간에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가능한 시간대를 세 가지 정도 제시하라. 어떤 경우이라도 인터뷰 요청이 온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인터뷰 요청은 거절하면 안 된다.

※ **교수가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평가 과정에 포함 또는 미포함)**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수가 여러분의 지원서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평가 과정에 교수와의 인터뷰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교수가 올해 입학사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입학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같은 학교의 여러 교수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 **학생이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평가 과정에 포함 또는 미포함)**

학생이 직접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주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문을 하거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교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다. 콘택트 메일을 보낼 때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지원 후 리마인드 차원에서 연락하는 것이다.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며 어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뷰가 지원자의 역량을 측정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미 서류로도 충분히 유능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인터뷰는 그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곧잘 내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인터뷰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학교들이 아직 인터뷰를 평가 과정의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준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인터뷰의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보통 인터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짧아질 경우 정말 급하게 질문과 대답만 하다 끝나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원자의 여러 면모를 많이 놓칠 수 있다. 1시간 이상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며 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 인터뷰는 대부분의 경우 30분 전후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시간은 대부분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진행되는 인터뷰도 있으며,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인터뷰를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3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면, 아무리 일찍 끝나더라도 20분 이상은 인터뷰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끈직한 지원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30분을 꼭 채운다 해도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경험상 교수가 인터뷰에 늦었던 적도 몇 번 있다. 안 그래도 가뜰이나 긴장한 상태인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평정심을 잃게 마련이다. 나도 그랬다. 10분 정도 늦게 나타난 교수가 “이전에 있었던 일정이 늦게 끝났다”며 사과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이미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당황한 상태였다.

만약 교수가 인터뷰에 늦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들도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바쁘므로 늦는 경우가 허다하다. 긴장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힘들 수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 아마도 늦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늦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자고 할 것이다. 인터뷰는 형식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 내용과 양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Cheer Up!



교수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가? 축하한다! 이제 여러분은 합격의 문턱에 서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릴 것이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다가 인터뷰 당일이 되어서야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럴수록 꼼꼼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자.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

인간성, 성격, 느낌을 볼 수도 있다

인간성과 성격, 느낌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적어도 5년간 함께 일할 상대라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것만을 유일하게 보기 위해 진행되는 인터뷰는 거의 없지만,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이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합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하는 인터뷰도 있다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다. 바로 합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인터뷰가 꽤 많다는 것이다. 내게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교수의 연구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거의

전부였던 인터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보다도 교수가 인터뷰 시간 내내 훨씬 더 말을 많이 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나는 합격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류상으로만 알았던 학생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자세히 알아가고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인터뷰는 평가의 목적보다는 확인의 목적이 더 강하다.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성, 성격, 느낌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입학사정이 전적으로 입학처에게 맡겨져 있는 탓이다. 그들의 실력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통과한 지원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교수들의 역할은 확실하다. 합격한 훌륭한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것이다.

질의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뷰도 있다

질의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뷰의 대부분도 합격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학교에 오기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교수도 학생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학생도 사실 교수의 홈페이지지만 보고 지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도 한 번은 교수뿐만 아니라 그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들과도 함께한 전화 인터뷰가 있었다. 대학원과 연구실 생활에 대

해 물어보라며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과 미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인터뷰를 끝마치며 말하길, 이미 입학처에 나를 강력히 추천해두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 외에도 짧게 몇 개의 질문만 한 뒤 나머지는 앞으로 함께할 연구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 인터뷰도 여럿 있었다.

평가가 목적인 인터뷰도 있다

반대로 평가가 목적인 인터뷰도 있다. 이때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어가 그 예이다. 교수의 입장에서 TOEFL, GRE 등의 점수로만 나타나는 지원자의 영어 실력을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실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터뷰를 통해 학생이 미국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하고 연구실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평가가 목적인 인터뷰와 그렇지 않은 인터뷰 모두, 적어도 지금까지 한 연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확률이 높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지만, 자신의 연구에 대해 얘기할 때만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연습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해두는 것이 좋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도 두 경우 모두 대화를 오래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평가가 목적이란다면 여러분과 얼마나 연구 관심사가 겹치는지, 그리고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 잘 맞는지를 보고

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합격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면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 경우 보통 자신의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물은 뒤 어떤 방향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동 연구, 새로운 연구 방향 등을 논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교수도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Cheer Up!



인터뷰는 다양하다. 인터뷰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목적일 것이다. 서류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의 매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 질문에 대답하고, 반대로 질문하는 연습도 하자

지금까지 인터뷰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 분에 대해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질문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교수에게 할 질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질문

가장 먼저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살펴보자.

❖ 간단한 자기소개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할 때 지원자가 긴장을 풀고 부담 없이 말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그런 뒤 인터뷰의 초반에는 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을 묻곤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주로 한다.

- 가장 최근에 한 연구는 무엇인가?
-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가?
-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겨냈는가?
-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인터뷰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주로 그동안 여러분이 진행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묻는다. 주의할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이력서와 학업계획서 등을 모두 보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철저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학업계획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만 읽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많은 학생들의 이력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까먹기 쉽다.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질문과 대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수

의 의견을 묻고, 공통 관심사나 연구 주제가 있다면 이를 언급하면서 일방적인 질문-대답이 아닌 대화 형식의 인터뷰를 이어나가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연구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도 자주 등장한다.

- 왜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가?
- 대학원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가?
- 다른 학교는 어디에 지원했는가?
-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 만약 대학원에 와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모두 다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민했던 질문들이다. 이렇게 보면 인터뷰는 정말 별 거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과 나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평소 충분히 연습해두자.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을까?

위에서 소개한 질문에 대해 답한 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된다. 물

론 이것은 모두 영어로 해야 한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실제 질문하고 대답하듯이 인터뷰 내용을 예측하여 대본처럼 쓴 뒤 달달 외우자.

여기에 약간의 조언을 더하자면, 키워드에 따라 대답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작성해놓는 것과 별개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그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소재들도 여러 가지 준비해두는 식이다.

이렇게 할 말들이 준비되고 나면, 질문에 대해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 이때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제 인터뷰처럼 연습해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대본 없이 예상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터뷰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에게 할 질문은 왜 준비해야 하는가?

인터뷰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교수에게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인터뷰를 마치며 모든 교수가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질문 있니?”이다.

평소 묻고 싶었던 것들이 쌓여 있다면 이때 하면 된다. 어찌면 다 묻기엔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난감할 것이다. 급하게 질문을 만들어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니까! 인터뷰를 하며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물어봐도 좋지만, 그런 순발력이 없다면 더욱 곤란할 것이다. 하고 싶었던 질문마저도 미리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제대로 물어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 연구실과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지? 지금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줄게”라고 할 때 “질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교수에게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도 인터뷰에 앞서 준비해두면 된다. 사실 궁금한 점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려니 어려운 것일 뿐이다.

따라서 평소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잘 적어두었다가 유창한 영어로 질문하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질문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학교 조사를 하면서 또는 교수의 논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 학교와 교수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 학교와 교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질문은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히 해야 한다.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대답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Cheer Up!



질문은 여러분의 학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당락이 결정되는 인터뷰라면 더욱더욱 신경 써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자.

There are only two ways to live your life.
One is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The other is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 Albert Einstein

감사의 말

책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작은 지면을 빌어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원 지원을 준비할 때부터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였기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과정에서 받았던 도움은 모두 결정적이었고, 이 중 어느 한 분의 도움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이곳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분들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제가 도움을 받았던 시간 순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 밤 제가 잘 되기를 기도해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두 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예쁜 딸이 보고 싶을 땐 너무 참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래도 평소에는 두 분이 알콩달콩 즐거운 추억들로 하루하루를 가득 채워나가셔야 해요. 저도 씩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생 무지렁이였던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부족했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 오학주 교수님, 주재걸 교수님, 이희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뵙지 못했다면 연구라는 걸 해보지도, 미국 대학원에 도전할 용기를 가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밴드에서 연주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저의 대학 생활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유학생 연합(AKUSSA)을 소개해준 주재우 선배와, 유학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준 장호진 선배에게도 감사합니다. 영어 시험과 장학금 지원을 준비하던 무렵 “네가 TOEFL 110점 이상이 목표라고?” 그리고 “장학금은 원래 못 받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해”라고 말했던 선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배가 아니었다면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았을 테고, 장학금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 스터디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만나, 유학을 준비하는 기간 동

안 가장 오래 함께한 이동주, 최은강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스터디가 끝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이력서와 학업계획서를 몇 시간씩 꼼꼼히 봐주었습니다. 스터디 후에 이어진 맛집 탐방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되고 외로운 길인데, 이 과정을 너무나도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업계획서 피드백을 함께한 AKUSSA의 구성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후배를 위해 흔쾌히 자신의 이력서와 학업계획서, 그리고 유학 준비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AKUSSA의 인연만으로 불쑥 연락을 드려 학업계획서에 대해 질문하고 피드백을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답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문선진 선배께 감사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 대학원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진성 박사님께 받은 도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박사님의 이력서를 보고 무턱대고 연락한 전혀 연이 없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조사에서부터 이력서, 학업계획서,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쁜 와중에 부족한 저의 학업계획서를 읽고 피드백을 주신 정영범 박사님, 김덕환 박사님, 박대준 박사님, 김도형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주신 의견과 정보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에서 만나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William Byrd에게도 감사합니다. 비슷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계의 선배로서 인간적인 충고를 많이 해주었고, 학업계획서 및 연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스카이프로 학업계획서를 한 줄 한 줄 봐주는 등 지원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은 학회에서 만났던 Vincent St-Amour에게도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순간마다 저의 질문에 대해 장문의 이메일로 정성 어린 답장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게서 가능성을 봐주시고 유학의 기회를 열어준 한국고등교육재단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장학생으로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발된 이후 지원 서류를 준비하고,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출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끌어주신 홍세운 부장님과 김이현 선생님께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유학을 준비한 같은 기수의 해외 유학 장학생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학업계획서부터 책을 집필하는 과정까지 도와주신 우동현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수십 번에 걸쳐 이력서, 학업계획서, 콘택트 메일의 모든 문장과 단어의 적절한 사용을 여쭙볼 때마다 매번 정성을 다해 봐주신 Richard Greever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부족했던 영어 실력을 많이 깨닫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게 용기와 자극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교환학생 수기를 읽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던 후배가 떠오릅니다. 이분의 이메일에 정성 어린 답장을 하며, 저도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앞길을 개척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학을 준비하는 내내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끝난 뒤 유학을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진지하게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며, 오히려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많이 반성하며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천재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더군요(여러분,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글이 정체성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딱딱하던 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곽진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초기의 콘셉트를 잃고 방황하고, 글 쓰는 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이 책이 제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며, 바쁜 와중에도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의 일부를 읽고 책이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적을 해준 홍신범, 조현호 오빠에게 감사하며 책의 콘셉트, 마케팅, 차례에 대해 의견을 준 오준형, 김양선, 이동형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쓴 글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하며」을 읽고, 댓글을 남기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계속 상기하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짧은 기간 동안 글을 쓸 수 있게 지도해주신 이상민 작가님과, 지극정성으로 원고를 다듬고 편집 및 디자인을 도와주신 푸른들녘의 선우미정 선생님, 이동하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손을 통해 지나치게 공순이 같았던 제 글이 매끄러워지고, 빠른 시간 안에 책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은 이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민아 올림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소망의 크기'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다.

-강상구, 「1년만 미쳐라」

부록

| 지원 마감 | 결과 발표 (1~4월)

9	10	11	12	1	2	3	4	5	6
				인터뷰 질의응답을 위한 학교 조사					
								지원 후 장학금 신청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항목 채우기 - 남들과 차별화시키기 - 프로페셔널 하게 만들기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학업계획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진학 이유 고민하기 - 개요 잡고 작성하기 - 피드백 받아 수정하기 									
				추천서 등록 여부 확인					
				리마인드 메일 발송					
			주요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하기 교수에게 할 질문 준비하기						

나의 이력서

Mina Lee

<https://minalee.info>

INTERESTS	Program Synthesis, Computer-Aided Education, Software Security	
EDUCATION	Korea University <i>Undergraduate Student</i>	Mar. 2012 - Aug. 2016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Software Technology and Enterprise Program• Total GPA of 4.39 / 4.5 (98.7 / 10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Exchange Student</i>	Sept. 2014 - Apr. 2015 Vancouver, Canada
HONORS AND AWARDS	Doctoral Study Abroad Scholarship ,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FAS), awarded to qualified students to complete their doctorates, full tuition and stipend, 2017-2022 Best Paper Award ,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 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hip,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2015-2016 Semester High Honors, Korea University, 2012, 2013, 2015, 2016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Korea University, 2016 Scholarships for PLDI 2016, PLMW@PLDI, 2016 Dean's List, Korea University, 2015 Venture Internship Program Scholarships, Korea University, 2013 Honors Scholarships, Korea University, 2013 Collegiate Honors, Korea University, 2013 Best Honors Scholarships, Korea University, 2012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for Freshmen, Korea University, 2012	
PUBLICATIONS	<u>Mina Lee</u> , Sunbeom So, and Hakjoo Oh. 2016.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for introductory automata assignments. In <i>Proceedings of the 2016 ACM SIGPL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i> . [pdf][demo][code]	
RESEARCH EXPERIENCE	Programming Research Laboratory , Korea University <i>Research Intern (Adviser: Professor Hakjoo Oh)</i>	Nov. 2015 - Aug. 2016 Seoul,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project on automatic synthesis of regular expressions, won gold prize in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with poster, and published paper based on work• Participated in projects on program synthesis, static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ul style="list-style-type: none">Program Synthesis: Synthesized simple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Static Analysis: Reduced false alarms by selectively applying soundness to programsMachine Learning: Learned feature programs from results of static analysis• Gave poster presentation on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at SPLASH 2016	
TEACHING	Basics of Computer Systems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Teaching Assistant</i>	Jan. 2015 - Apr. 2015 Vancouver,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SC 261 Basics of Computer Systems i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Covered basic C programming, assembly language (X86-64), pipelined CPU, caching, memory hierarchy, virtualization, processes and threads, file systems, and networking• Ran laboratories for over 50 students twice a week, had office hours every week, answered questions in person and online, marked assignments, and proctored exams	

INTERNSHIPS	<p>Smart and Innovative Technology Jan. 2016 - Feb. 2016 <i>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i> Hwaseong,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ed industrial protocols and their specifications for automatic control systems • Evaluated open source libraries for protocols such as Modbus TCP, OPC UA, and BACnet • Developed prototypes for networking simulation using Java for development, MariaDB and MyBatis for database management, and Maven for project management <p>Trap Danmark Jun. 2015 - Aug. 2015 <i>Software Developer Intern</i> Horsholm, Denma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ilt up digital strategy for national Danish topographic encyclopedia • Designed interactive UI tailored for map-related features using Mapbox API • Developed Android application for prototyping and suggested markup language
EXTRACURRICULAR ACTIVITIES	<p>Korea University Buddy Assistants Sept. 2013 - Feb. 2014 <i>Buddy Assistant</i> Seoul,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zed and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welcoming party, weekly dinners, monthly field trips, and international student festival • Helped exchange students adjust to Korean culture and campus life • Taught Korean and learned English by participating in language exchange programs <p>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Computer Security Mar. 2012 - Dec. 2013 <i>Regular Member</i> Seoul,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ught C programming language to freshmen for semester • Gave lectures and made assignments with own material on weekly basis • Participated in study groups for web hacking and system hacking
TECHNICAL SKILLS	<p>Advanced C, Java, HTML, CSS, PHP, JavaScript, jQuery, Ajax Moderate OCaml, Python, Assembly Language (X86-64), Android Novice Coq</p>
LANGUAGE PROFICIENCY	<p>Fluent in English and Native in Kore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GRE: Verbal (161, 88%), Quantitative (170, 97%), Writing (4.0, 59%) • IBT TOEFL: 114 (Reading: 28, Listening: 30, Speaking: 26, Writing: 30)
REFERENCES	<p>Hakjoo Oh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Phone: +82-2-3290-4601 Email: hakjoo_oh@korea.ac.kr http://pr1.korea.ac.kr</p> <p>Jaegul Ch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Phone: +82-2-3290-4602 Email: jchoo@korea.ac.kr https://sites.google.com/site/jaegulchoo</p> <p>Heejo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Phone: +82-2-3290-3638 Email: heejo@korea.ac.kr http://ccs.korea.ac.kr/people/heejo</p>

나의 학업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MINA LEE

<https://minalee.info>

Computer Science Department

My research objective is in the area of programming languages and computer security. Through my research, I would like to leverage program reasoning and synthesis techniques to identify and eliminat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programs. To this end, I hope to pursue a Ph.D. in Computer Science at Stanford University.

1 Research Experience

I worked as a research intern at the Programming Research Laboratory at Korea University. Participating in various projects on program synthesis, static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gave me the opportunity to become better acquainted with the essentials of programming languages.

Regular Expression Synthesis. In my joint graduation project, we built a system to help students learn how to construct regular expressions [1]. Given positive and negative examples, it automatically constructed the simplest regular expression consistent with the examples. To develop the system, I formulated the synthesis task as a search problem, designed an efficient search algorithm which exploits the semantic properties of regular expressions, incorporated pruning techniques, proved the soundness of the algorithm, and made it available online [2]. This experience provided me a good, overall understanding of program synthesis as well as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gramming language techniques. This work earned us the *Best Paper Award* fro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and the Gold Prize in the Graduation Project Competition at Korea University.

Selectively Unsound Static Analysis. This work aimed to reduce the number of false alarms in static analysis, specifically interval analysis for buffer-overflow detection. Our insight was that the parts of programs that tend to produce only false alarm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whereas real buggy parts are unpredictable. We used a one-class support vector machine to learn such properties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and used them to selectively analyze new programs unsoundly. It was the first project I participated in, and my role was to reform the work based on the reviews from previous submissions. It was an instructive experience in that I learned the qualities required for a paper to be properly organized and supported, there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ensuing projects.

Automatic Feature Construction. Another project was on generating features from a codebase for machine learning-guided adaptive static analysis. The motivation of this project stemmed from the burden on domain experts to create a set of features for each instance of static analysis. In brief, our approach performed static analysis on programs, automatically extracted and refined code snippet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nd selected a subset of them to serve as feature programs. In the project, I examined the output of the system and reasoned about their representativeness and effectiveness as features.

In addition to these projects, atten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PLDI and OOPSLA, was the culmination of my academic life. In presenting posters and sharing opinions, I could narrow down my research interests and solidify my ideas. At school, I audited graduate courses such as *Program Analysis* and *Programming Language Theory* as well as an undergraduate course *Programming Languages*. Also, I independently studied SAT/SMT solvers to familiarize myself with satisfiability-based technologies. These numerous undertakings further broadened my perspective and strengthened my background in programming languages.

2 Research Interests

My primary interests are program synthesis, reasoning, and repair. I would like to apply these techniques to interdisciplinary domains, spreading programming language ideas beyond the field.

Program synthesis has the enormous potential to make our lives more convenient by automating complicated, demanding, and repetitive tasks. To improve the current synthesis algorithms, I will leverage a range of techniques including sketching, constraint solving, and machine learning. With learning-based approaches, I would like to mine information from existing repositories such as GitHub to facilitate the synthesis process. I will also strive to develop more effective and scalable program synthesis techniques through modular and incremental synthesis. At the same time, I hope to bring these theoretical insights to pragmatic use by building tools and applying them to a variety of domains such as education and security.

Education. I aspire to build a personalized educational assistant that tailors itself to the needs of each student at both the university level and before, providing greater learning opportunities to reach more people. For programming assignments, this could involve designing domain-specific languages for correction strategies, reasoning about symbolic equivalence of programs, inferring program distances for quantitative repair, and automating error localization and correction of programs.

Security. Automated reasoning and program repair can find and remov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program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lore the use of SMT solvers for software security such as vulnerability checking and exploit generation. Furthermore, I hope to use program synthesis techniques to generate a set of syntactic changes which can remove the vulnerabilities. I believe my former involvement in computer security from taking the class *Introduction to Cryptology* to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Computer Security* would serve as starting points for applying programming language-based techniques in the context of security and privacy.

3 Conclusion

With this focus and potential directions to keep in mind, Stanford University would be an ideal place to pursue my doctoral study. In particular, I hope to work with **Professor Clark W. Barrett** as my research interests and area of expertise fit well in line with his research interests, specifically automated reasoning and satisfiability-based techniques. His expertise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lvers for SMT will provide a rich context for my proposed research. Also, I am eager to receive the tutelage of **Professor John C. Mitchell** whose research problems are at the intersec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and computer security. His paper o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3], which highlighted opportunities to utilize their data for research purposes as well as concerns on the users' privacy, made me more conscious abou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measures to lower potential security risks.

Upon completing my Ph.D., I would like to remain in academia as a professor to continue researching and teaching students. I firmly believe my proposed research can contribute to your university and academic community in that it will bring the finding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research to campus courses as well as state-of-the-art technical support to millions of people concerned with their privacy. For these reasons, I am confident that Stanford University is a great place for me to pursue a Ph.D.

References

- [1] **Mina Lee**, Sunbeom So, and Hakjoo Oh. 2016. Synthesizing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for introductory automata assignments. In *Proceedings of the 2016 ACM SIGPL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Programming: Concepts and Experiences (GPCE 2016)*.
- [2] AlphaRegex: Automatic Synthesizer for Regular Expressions from Examples.
<http://pr1.korea.ac.kr/AlphaRegex>
- [3] Pierre Dillenbourg, Armando Fox, Claude Kirchner, John C. Mitchell, and Martin Wirsing. 2014. Massive open online courses: current state and perspectives. *Dagstuhl Manifestos* 4(1).